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본문해설 1

내 유년의 7월에는

→ 유년 시절에 대한 회상, 시간적 배경

넷가 잘 자란 미루나무 한 그루 솟아오르고

→ 공간적 배경, 아름다운 정경

또 그 위 파란 하늘에 뭉게구름 내려와 어린 눈동자 속 터져나갈 듯 가득 차고

→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는 시적 화자의 모습을 제시 (시각적 심상)

찬물들은 반짝이는 햇살 수면에 담아 씬 없이 흘러갔다.

넷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 동요의 가사 - 시적 화자의 순수한 동심을 드러냄

착한 노래들도 물고기들과 함께 큰 강으로 헤엄쳐 가 버리면

→ 노래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역동적인 심상을 부여함, 의인법

과수원을 지나온 달콤한 바람은 미루나무 손들을 흔들어

→ 미각적 심상

차르르차르르 내 겨드랑에도 간지러운 새잎이 돌고

→ 잎이 치며 내는 소리, 자연과 동화된 동심의 모습

물 아래까지 헤엄쳐 가 누워 바라보는 하늘 위로

→ 걱정이나 근심이 없는 시적 화자의 유년 시절

삐뚤삐뚤 헤엄쳐 달아나던 미루나무 한 그루.

→ 미루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

달아나지 마 달아나지 마 미루나무야, 귀에 들어간 물을 뺏으려 햇살에 데워진

→ 촉각적 심상

둥근 돌을 골라 귀를 가져다 대면 허기보다 먼저 온몸으로 퍼져 오던 따뜻한 오수,

→ 실컷 놀다 평화롭게 낮잠에 빠짐. (서정적이고 평화로운 유년 시절)

점점 무거워져 오는 눈꺼풀 위로

→ 공감각적 심상 (청각의 시각화)

멀리 누나가 다니는 분교의 풍금 소리 쌓이고 미루나무 그늘 아래에서 7월은 더위를 잊은 채 깜박 잠이 들었다.

→ 더위마저 잊은 채 잠들었던 평화로운 유년 시절의 하루 (주객전도된 표현)

- 정일근, '흑백 사진 - 7월'

■ 해제 : 이 시는 아련한 추억으로 간직되고 있을 어린 시절의 아름다운 기억을 향토적인 배경과 서정적인 어조, 감각적인 시어로 그리고 있다.

시적 화자인 '나'는 이미 성장한 어른으로 어린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을 회상하고 있다. 그 시절에 대한 기억은 마치 한 편의 흑백 사진처럼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다. 정일근은 따스하고 편안한 시적인 분위기를 견지하면서 사물의 본질을 통찰하는 예리한 시각을 지녔다고 평가받는다. 서정시다운 진정한 울림과 리듬이 있어 독자들을 사유의 여로(旅路)에 빠져들게 하는 이 작품에는 이 같은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특히, 시각·촉각·후각·청각·근육 감각적 이미지 등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형상화된 자연의 아름다움, 자연과 합일되었던 무구한 유년 시절이 이를 회상하는 어조와 이를 통해 드러나는 화자의 태도와 정서 등과 잘 어우러져 있다.

■ 구성

■ 내 유년의 ~ 한 그루.: 유년 시절의 아름다운 여름 풍경. 어린 시절 노닐던 냇가와 그곳에 있던 미루나무 한 그루에 대한 회상

■ 달아나지 마 ~ 잠이 들었다.: 오수에 빠져 자연에 동화된 화자의 모습. 아름다운 자연과 그러한 자연에 합일되었던 화자의 유년 시절. 순수한 동심과 7월의 평화로움

■ 어휘 풀이

허기: 몹시 굶어서 배고픈 느낌.

오수: 낮잠.

■ 성격: 서정적, 낭만적, 동화적

■ 어조: 부드럽고 순수한 어조, 회상적 어조

■ 특징

■ 유년의 한 장면을 한 장의 흑백 사진처럼 표현함.

■ 유년의 한 때를 클로즈업하여 순수하고 감각적인 이미지로 형상화함.

■ 제재 : 추억 속의 자연의 모습

■ 주제 : 유년의 평화롭고 아름다운 추억. 아름다운 자연과 유년의 순수한 동심의 세계

▣ 본문해설 2

내 유년의 7월에는 넋가 잘 자란 미루나무 한 그루 솟아오르고

유년의 7월에 대한 회상 + 나머지 부분(아름다운 자연에 합일되던 화자의 어린 시절)

또 그 위 파란 하늘에 몽게구름 내려와 어린 눈동자 속 터져나갈 듯 가득 차고 찬물들은 반짝이는 햇살 수면에 담
아 쉽 없이 흘러갔다.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는 소년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제시

→ 넋가를 배경으로 자라는 미루나무와 하늘을 배경으로 몽게구름이 만드는 거대한 자연의 풍경을 어린 화자의 눈
동자에 비친 대로 그렸다. 푸른색과 흰색의 색채 이미지가 아름다운 자연을 완성하고 있다.

넋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착한 노래들도 물고기들과 함께 큰 강으로 헤엄쳐 가버리면

자연에 동화된 동심의 세계. → 넋물의 흐름을 보면서 화자가 갖는 의문으로, 상실감의 정서와는 무관한 미지의
세계에 대한 무의식적 동경이나 호기심의 표현이다.

과수원을 지나온 달콤한 바람은 미루나무 손들을 흔들어 차르르 차르르 내 겨드랑에도 간지러운 새잎이 돌고

공감각적인 이미지

음성상징어. 미루나무 잎이 부딪치며 내는 소리(의성어)

또는 잎이 반짝이는 모습(의태어)

내 겨드랑에도 ~ 새 잎이 돌고 → 과수원과 미루나무를 거쳐 온 바람에 대한 화자의 반응을 감각적이고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한 것이다.

물 아래까지 헤엄쳐가 누워 바라보는 하늘 위로 <빠들빠들 헤엄쳐 달아나던 미루나무 한 그루. 달아나지 마 달아나
지 마 미루나무야,> < > : * 자연과 하나를 이룬 동화적인 세계

→ 하늘을 배경으로 바람에 나부끼는 미루나무가 마치 하늘 위로 헤엄쳐 달아나는 것 같이 보이는 현상에 대한 화
자의 정서적 반응. 명령형 어조를 통해 안타까움을 효과적으로 표현했다.

귀에 들어간 물을 뱉으려 햇살에 더워진 둥근 돌을 골라 귀를 가져다 대면

→ 계곡이나 넋가에서의 물놀이 중 귀에 들어간 물을 뱉아내는 방법으로 따뜻하게 데워진 납작한 돌을 귀에 댄었던
일을 묘사한 것이다.

<허기보다 먼저 온몸으로 퍼져오던 따뜻한 오수,>

핵심어. 자연과 어우러진 화자가 따뜻한 별 아래에서 낮잠 자는 모습, 평화로운 정경을 드러냄.

점점 무거워져 오는 눈꺼풀 위로 멀리 누나가 다니는 분교의 풍금소리 쌓이고>

< > : 서정적인 분위기 - 복합 심상(촉각, 청각)

미루나무 그늘 아래에서 7월은 더위를 잊은 채 깜박 잠이 들었다.

■ 갈래 : 서정시, 산문시

■ 성격 : 회상적, 낭만적, 서정적, 동화적

■ 어조 : 부드럽고 순수한 어조, 회상적 어조

■ 제재 : 추억 속의 자연의 모습. 자연 속에서 뛰어놀다 잠이 들곤 했던 화자의 평화로운 유년 시절.

■ 특징 : ①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함.

② 회상적 어조로 전체 시상을 이끌고 있음.

③ 유년의 한 장면을 한 장의 흑백 사진처럼 표현함

③ 대화체의 형식을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다.

④ 유년의 한 때를 클로즈업하여 순수하고 감각적인 이미지로 형상화함

■ 주제 : 아름다운 자연과 동심의 세계. 유년의 평화롭고 아름다운 추억

■ 해제 : 자연 속에서 자연과 하나가 되었던 어린 시절의 아련한 향수를 '흑백 사진'처럼 보여 주고 있는 시이다.
그 추억은 아름답고 평화로운 자연의 모습이자 그러한 자연에 동화된 화자 자신의 모습이다.

유년 시절, 화자는 헤엄을 치고 난 후 미루나무와 그늘에서 7월의 더위를 잊은 채 낮잠을 자고 있다. 이 장면에는
순수한 동심의 세계와 시골 풍경의 평화로움이 흑백 사진의 여운처럼 남아 있다.

자연과 동화되어 마음껏 즐기던 유년의 한때를 잔잔하게 회상하고 있다. 유년의 모습을 클로즈업하여 순수하고 감
각적인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있다. 평화로운 자연 속 순진무구한 화자의 모습에서 감각적인 아름다움과 동심을 느낄

수 있다.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본문해설

길 복판에서 6,7인의 아이들이 놀고 있다. 적발동부(赤髮銅膚)의 반라군(半裸群)[벌거벗은 아이들]이다. 그들의 혼탁한 안색, 흘린 콧물, 두른 베두렁이, 벗은 옷통만을 가지고는 그들의 성별조차 거의 분간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은 여아가 아니면 남아요, 남아가 아니면 여아인, 결국에는 귀여운 5,6세 내지 7,8세의 <아이들>임에는 틀림없다. 이 아이들이 여기 길 한복판을 선택하여 유희[놀]하고 있다.

돌멩이를 주워 온다. 풀——이처럼 평범한 것이 또 있으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초록빛의 물건이란 어떤 것이고 간에 다시없이 심심한 것이다. 그러나 하는 수 없다. 곡식을 뜯는 것도 금제[금지]니까 풀밖에 없다.

돌멩이로 풀을 짓짚는다. 푸르스레한 물이 돌에가 염색된다. 그러면 그 돌과 그 풀은 팽개피고, 또 다른 풀과 돌멩이를 가져다가 똑같은 짓을 반복하다. 한 10분 동안이나 아무 말이 없이 잠자코 이렇게 돌아본다.

10분만이면 권태가 온다. 풀도 싱겁고, 돌도 싱겁다. 그러면 그 외에 무엇이 있나? 없다.[**일상적인 삶의 권태**]

그들이 일제히 일어선다. 질서도 없고, 총동의 재료도 없다. 다만 그저 앉았기 싫으니까 이번에는 일어서 보았을 뿐이다.

일어서서 두 팔을 높이 하늘을 향하여 쳐든다. 그리고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러 본다. 그러더니 그냥 그 자리에서들 경중경중[힘있게 솟구쳐] 뿜다. 그러면서 그 비명을 겸한다.

나는 이 광경을 보고 그만 눈물이 났다. 여복[오죽]하면 저렇게 놀까? 이들은 놀 줄조차 모른다. 어버이들은 너무 가난해서, 이들 귀여운 아기들에게 장난감을 사다 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 하늘을 향하여 두 팔을 뻗치고,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뛰는 그들의 유희가 내 눈에는 암만해도 유희같이 생각되지 않는다. 하늘은 왜 저렇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푸르냐, 산은, 벌판은 왜 저렇게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푸르냐는 조물주에게 대한 저주의 비명[**원관념:자연**]이 아니고 무엇이랴! [**설의, 단조로운 자연 풍경**]

아이들은 짓을 줄조차 모르는 개들과 놀 수는 없다. 그렇다고 모이 찾느라고 눈이 벌건 닭들과 놀 수도 없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너무나 바쁘다. 언니 오빠조차 바쁘다. 역시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노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대체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놀아야 하나? 그들에게는 영영 엄두가 나서지를 않는 것이다. 그들은 이렇듯 불행하다. 그 짓도 5분이다. 더 이상 더 길게 이 짓을 하자면, 그들은 피로할 것이다. 순진한 그들이 무슨 까닭에 피로해야 되나? 그들은 위선 싱거워서 그 짓을 그만 둔다.

그들은 도로 나란히 앉는다. 앉아서 소리가 없다. 무엇을 하나 무슨 종류의 유희인지, 유희는 유희인 모양인데——이 권태의 왜소[**작은**] 인간들은, 또 무슨 기상천외의 유희를 발명했나?

5분 후에 그들은 비키면서 하나씩 둘씩 일어선다. 제 각각 대변을 한 무더기씩 누어 놓았다.[**권태를 벗어나기 위한 행동**] 아아 이것도 역시 그들의 유희였다. 속수무책의 그들 최후의 창작 유희였다. 그런 그중 한 아이가 영 일어나지를 않는다. 그는 대변이 나오지 않는다. 그럼 그는 이번 유희의 못난 낙오자임에 틀림없다. 분명히 다른 아이들 눈에 조소[**비웃음**]의 빛이 보인다. 아아 조물주여, 이들을 위하여 풍경과 완구를 주소서. [**아이들이나 상황 자체가 권태롭기보가는 화자의 심리가 반영되어 권태롭게 보이는 것이다.**]

▣ 작품해설 1

■ 갈래 : 경수필

■ 성격 : 지적(知的), 초현실주의적

■ 제재 : 여름날 벽촌에서의 생활

■ 주제 : 권태(환경의 단조로움과 일상적인 생활의 연속 속에 느끼는 권태로움)

■ 특징 : ① 자의식으로 뭉쳐진 내면 세계를 드러냄.

② 주관적이고 개성적으로 대상들을 바라봄.

③ 일상적인 생활과 변화 없는 주변 환경 속에서 느끼는 심리 묘사가 뛰어나다.

④ 자연이나 대상이 드러내는 상태를 작자의 심리적·정신적 정서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비교하여 작자의 세계를 적절히 형상화하고 있다.

⑤ '권태'라는 제목처럼 일견 무의미한 현대인의 생활을 하루의 생활 반경과 시간 속에서 다각도로 표현하고 있다.

⑥ 다양한 대상들을 바라보는 작자의 심리가 만연체의 문장으로 나열되고 있다.

■ 출전 : 「조선일보」(1937)

여름날 벽촌의 권태로운 풍경과 일상에 대한 사실적인 관찰이 주를 이루고 있는 글로,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상적인 생활과 변화 없는 주변 환경에서는 느끼는 심리 묘사가 뛰어난 작품으로, 자연이나 대상이 드러내는 상태를 통하여 작자의 내면을 보여 주고 있다. 작자는 시골 마을의 풍경에 한없는 권태를 느끼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이라도 해 보려 하지만 그것에서마저 권태를 느끼고 있다. 작자는 현대인의 삶을 태우고 있는 무의미성(無意味性)에 대한 성찰에서 권태라는 사소한 감정을 포착해 내고 있는데, 여기에는 반복되는 일상사를 극복하고 보다 진정한 삶을 살기에는 정열이 부족하다는 작자의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

■ 작자가 느끼는 권태의 원인

① 환경의 단조로움	...	·굴곡이 없는 산과 어디에나 있는 같은 색의 벌판 ·비슷비슷한 모습의 농가
② 만나는 사람들과 생활의 단조로움	...	·오늘도 보는 김 서방, 내일도 보아야 할 흰둥이, 검둥이 ·언제나 같은 상황으로 진행되는 최 서방 조카와의 장기 두기
③ 삶의 목표와 적극적 가치 의식이 없는 생활	...	이와 같은 생활은 권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자의 방황과 고민의 이유가 된다.

이 글은 여름날의 한가로운 시골 풍경(평남 성천의 한 마을)의 관찰을 통해 현대인의 자의식 과잉 현상이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인가를 탐색하고 있는 수필이다. 벽촌 생활에서 느껴지는 권태감을 주변의 풍경에 대한 관찰 및 일상 생활에 대한 토로를 통해 정리한 것이다. 작자가 보는 여름날의 벽촌은 지리하고 단조롭다. 한없이 펼쳐진 벌판이나 그 벌판을 덮고 있는 초록의 물결조차 신선하기보다는 지루함을 더해 준다. 작자는 잠시라도 권태를 물리치기 위해 이웃에 사는 최서방 조카를 찾아 그와 장기를 둔다. 그러나 장기를 두는 일도 여차피 일상의 반복이고 그 승부도 언제나 같은 것이므로 전혀 새로운 느낌을 주지 못한다. 작자는 생각한다. 나는 왜 영영 방심의 상태로 가지 못하는 것일까. 그는 다시 권태를 느낄 수밖에 없다.

시나 소설의 껍질을 쓰고 있는 이상이 아니라 인간 이상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작품이다. 글의 구성은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동안의 일과로, 그가 보고 느낀 것이 7장으로 나뉘어 기술되어 있다. 이상이 보는 세상은 여느 사람이 보는 것과는 확실히 다르다. 녹음 속에서, 모깃불을 피워놓은 농부들의 한가함 속에서, 고요한 물웅덩이를

들여다보며, 소를 보며, 옷벗은 시골아이를 보며, 멍석 위에서, 이상이 느끼는 감회는 도대체 보통의 도회지 사람이 느낄 만한 정서와는 썩 다르다. 평화도 아니고 한가도 아니고 그에게는 모든 것이 오직 권태로만 보인다. 노동에 지쳐 눕자마자 잠이 든 농부들에게서 느끼는 감정도 시체와도 같은 권태다. 햇볕 아래 건강한 개들의 교미도 권태이고, 아이들의 놀이도 권태이고, 세수조차도 권태다. 자동차가 질주하고 상인들의 외침이 드높은 곳에 이상을 옮겨놓았다 하더라도 그는 견디기 어려운 권태를 느꼈으리라.

이 작품의 기본적인 문제는 상황과 의식의 갈등에 있다. 모든 것이 일상적인 관습으로 둘러싸인 세계 안에서 작가는 자신을 둘러싼 여러 사물과 행위의 의미를 묻는다. 그러나 그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상황의 변화를 위한 어떤 시도에도 불구하고 삶은 여전히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무의미한 일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이 무의미한 일상의 반복이 '권태'라는 자의식을 초래하고 있다. 즉 자신을 바칠 만한 가치와 행동 목표를 원하면서도 내면의 방향만 거둬하는 스스로의 현상태-권태에 이르게 됨-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30년대 모더니즘 문학은 대체로 이런 자의식 과잉의 경향이 있었다. 짧은 문장, 살아있는 것 자체를 대수롭잖게 여기는 듯 내팽개치는 듯한 어조, 날카로운 통찰, 이 짧은 수필 한편만으로도 이상이 천재라는 것을 인정치 않을 수 없는 섬광이 들어있는 글이다.

인간 이상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그의 수필이다. 글의 구성은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동안의 일과로 그가 보고 느낀 것이 7장으로 나뉘어 기술되고 있다. 지금 이상이 가 있는 곳은 평남 성천의 한 벽촌이다. 이상이 보는 세상은 여느 사람이 보는 것과는 확실히 다르다. 녹음 속에서, 모깃불을 피워 놓은 농부들의 한가 속에서, 고요한 물 웅덩이를 들여다보며, 소를 보며, 옷 벗은 시골아이를 보며, 멍석 위에서 이상이 느끼는 감회는 도대체 보통의 도회지 사람들이 느낄 만한 정서와는 썩 다르다. 평화도 아니고 한가도 아니고 그에게는 모든 것이 오직 권태로만 보인다. 노동에 지쳐 눕자마자 잠이 든 농부들에게서 느끼는 감정도 시체와도 같은 권태이다. 햇볕 아래 건강한 개들의 교미도 권태이고, 아이들의 놀이도 권태이고 세수조차도 권태이다. 자동차가 질주하고 상인들의 외침이 드높은 곳에 이상을 옮겨놓았다 하더라도 그는 견디기 어려운 권태를 느꼈으리라.

이렇게나 주관적으로 사물을 인식하고 자의적으로 뭉쳐진 내면세계를 가졌던 이상이 요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독자는 이 글을 읽으면서 필자의 눈결에 자신의 눈을 두어 둘의 시각이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보면 흥미로울 것이다. 30년대 모더니즘 문학은 대체로 이런 자의식 과잉의 경향이 있었다. 짧은 문장, 살아 있는 것 자체를 대수롭잖게 여기는 듯 내팽개치듯 한 어조, 날카로운 통찰, 이 짧은 수필 한 편만으로도 이상이 천재라는 것을 인정치 않을 수 없는 섬광이 들어 있는 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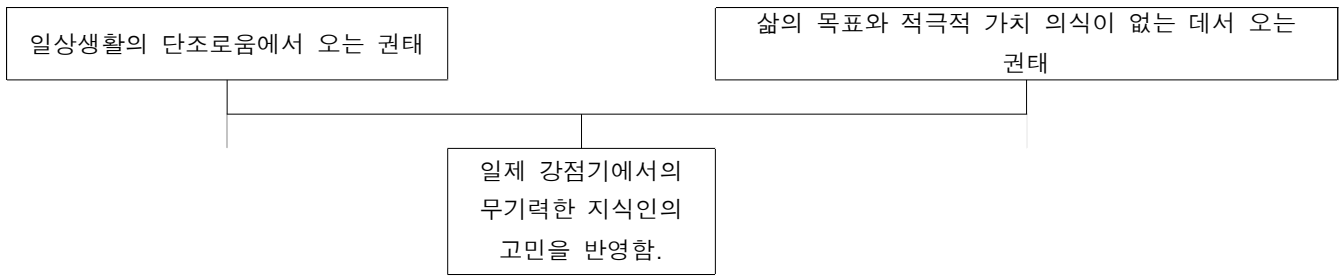
이 작품의 핵심은 상황과 의식의 갈등에 있다. 모든 것이 일상적인 관습으로 가라앉아 있는 세계 안에 홀로 서서 작자는 자신이 접하는 하나하나의 사물과 행위의 의미를 묻는다. 그러나 그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참다운 의미의 확인 없이 되풀이되는 관습의 반복일 뿐이다.

여기에서 그는 참을 수 없는 권태는 자각적 선택과 행동에 의한 삶을 희구하면서 그러한 이상과는 동떨어진 상황 속에 무기력하게 머물러 있는 한 지식인의 심리적 자화상에 해당된다.

■ '권태'의 전체 구성

제1장	변함없는 자연, 의미 없는 장기 두기	여름의 늘 똑같은 녹음을 보고 지루해하며 최 서방의 조카와 내기 장기를 둔다. 그러나 이 자체가 권태로운 일이다.
제2장	한없는 초록색 자연, 흥분이 없는 농민	한량없이 넓은 초록색 벌판과 밋밋한 그 벌판에서 늘 단순한 노동을 일삼는 농민들을 보면서 그래도 권태를 지각할 수 있는 자신이 농민들보다는 훨씬 낫다고 안도한다.
제3장	짓지 않는 개들	마을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늘 보던 사람들만 보아 짓을 필요가 없는 개들을 보며 권태를 느낀다. 복날조차 모르는 개들을 불쌍하게 생각한다.
제4장	교미하는 개의 모습, 세수하는 행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개들의 교미에 대해 권태를 느낀다. 내가 세수하는 것을 보고 따라하는 주인집 아이들의 행위 또한 권태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제5장	소의 되새김질	식욕의 즐거움을 모르고 되새김질을 하는 소를 지상 최대의 권태자라고 생각한다.
제6장	돌과 풀을 가지고 노는 아이들	흔한 재료를 가지고 노는 아이들의 권태감과 그것을 이기기 위해 '똥누기 놀이'를 하는 모습을 지켜본다. [EBS 교재수록부분]
제7장	명석 위에서 잠자는 사람들	명석 위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을 보며 '먹고 잘 줄 아는 시체'라고 생각한다. 같이 가서 자야겠다고 생각하는 자신을 '권태의 극권태'라고 여긴다.

1. '권태'의 의미



2. '권태'의 수필적 특성

작가는 더운 여름철의 변화 없는 농촌의 풍경과 그곳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서 권태를 느낀다. 이러한 권태를 그리는 한편으로 그 속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내용도 표현하고 있다. 이 작품은 한가한 농촌 마을에서 느끼는 권태라고 하는 일상적이고 사소한 느낌으로부터 현대인의 삶이 나타내는 무의미성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 냄으로써, 수필이라는 장르가 어떻게 일상적이고 사소한 체험으로부터 작가 자신만의 독특한 성찰과 관념을 이끌어 낼 수 있는지를 잘 보여 주고 있다.

▣ 참고 | '권태'의 현상학에서 모더니즘의 계보학으로 _ 농민의 불행에 대비된 이상의 행복

이 글은 은연중 이상의 역사의를 드러내고 있다. 이상이 농민에 대해서 갖는 우월감과 연민은 그 역사의를 근거로 한다. 이 글에서 농민은 완전히 자연화된 인간, 그래서 자연처럼 물화되어 가고 자동화되어 가는 "(희망은 아니다. 본능이다.) 존재자로 묘사된다. 농민은 흥분의 능력, 생각과 의심의 능력을 결여하고 있고 나아가서 내일에 대한 희망까지 그들의 시간 의식에서 소멸되어 있다. 농민은 내면성이 없는 것이다. 이상은 농민을 지배하는 권태를 '흉악한 권태'라고 했다. 이 말은 이상이 전원의 단조로운 녹색을 '공포의 초록색'이라 했던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 두 표현 속에서 권태는 단순히 흥분과 경탄의 부재라는 소극적 사태로서가 아니라 어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사태로서 파악되고 있다. 권태는 아가리가 있고 위장이 있다. 공포가 공포스럽고 흉악한 것은 집어삼키고 동화 작용하는 힘이 크기 때문이다. 권태는 물화하고 자동화하는 힘의 드러남이다. 그런 권태의 아가리에 물려 있는 농민은 그 자연의 독성에 마비되어 있고, 그것이 농민의 불행이다.

농민의 불행에 대비된 이상의 행복은 “이 흉악한 권태를 자각할 줄 아는” 데 있다. 그 자각은 진보적 역사의식의 자기 확인이다. 농민에게는 내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없다. 시간은 기계적이며, 또 그것이 자연의 시간성 자체이다. 역사의식은 그런 자동화된 자연의 시간, 그 시간의 마비적인 힘에 대한 저항에서 나온다. 역사의 진보는 그 마비적 자연성의 극복을 말한다. 자연성의 극복이 악과 불행의 극복이며, 그런 의미에서 역사의 진보이다. 이상의 행복은 그런 역사의 진보 가능성에 눈뜨고 있는 계몽적 인간의 자기의식에서 온다.

- 권영민, “이상 문학 연구 60년”(문학사상사, 1998)

▣ ‘권태’에 나타난 ‘권태의 극’, ‘극권태’

‘권태’는 이상 문학에 있어 매우 근본적인 개념 가운데 하나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권태’는 철학적 사유를 가능케 하는 근본적인 감정이다. 즉 이상의 문학은 ‘권태’의 감정 위에 축조된 철학적 사유의 세계다. 또한 보들레르는 ‘권태’속에서 근대를 하나의 거대한 파국으로 보는 미학적 허무주의를 구축하면서, ‘만보’를 통해 ‘권태’와 ‘우울’을 견디고 동시에 그것들에 의해 조성되는 세계를 인식해 나갔다. 이상의 문학 역시 이러한 보들레르적 기획에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다. 그는 보들레르의 기획을 수용하되 이를 더욱 극단적으로 발전시켜 독창적인 세계를 창조해 나갔다. 이상의 수필 ‘권태’는 이상 문학 전반의 권태 사상의 전개 위에서 수필 ‘권태’에 더해진 ‘권태’ 사상이 무엇인지 헤아리는 방향에서 분석되어야 한다. ‘권태’는 단순히 여름 성천 하루의 권태로운 풍경을 그린 작품이 아니라 도쿄에 건너간 이상 자신의 총체적이면서도 처절한 내면적 사투를 기록한 것이다. 암흑은 암흑인 이상 이 좁은 방 것이나 우주에 짝찬 것이나 분량상 차이가 없으리라. 나는 이 대소 없는 암흑 가운데 누워서 숨 쉴 것도 어루만질 것도 또 욕심나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 다만 어디까지 가야 끝이 날지 모르는 내일 그것이 또 창밖에 등대하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오들오들 떨고 있을 뿐이다. 여기서 ‘나’는 생각한다. “암흑은 암흑인 이상 이 좁은 방 것이나 우주에 짝찬 것이나 분량상 차이가 없으리라”라고. 이 “대소 없는 암흑”은 비상구를 보여 주지 않는다. “숨 쉴 것도 어루만질 것도 또 욕심나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 ‘나’는 모든 탈출의 희망이 소거되어 버린 “암흑”속에 누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이 “등대”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오들오들 떨고 있을 뿐이다.” 여기 이 암흑의 방에서 떨고 있는 이상은 확실히 여름에 ‘어리석은 석반’을 마치고 성천의 구석진 방에 돌아와 있는 이상이라기보다는 한겨울의 도쿄 “구단 아래 꼬부라진 뒷골목 이층 골방”, “완전히 햇볕이 들지 않는 방”아래서 추위에 떨고 있는 한겨울 도쿄의 이상이라고 해야 옳을 정도로 지독하게 추워 보인다. 그러나 ‘권태’의 주인공이 추위와 공포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위의 인용문이 보여 주듯이 그는 세속적인 시·공간 의식과 완전히 절연해 버린 인간으로 나타난다. 그의 ‘암흑’에는 ‘대소’가 없다. 그의 ‘암흑’에는 오늘과 내일과 어제의 차이도 없다. 그에게는 성천과 경성과 도쿄의 차이도 없다. 성천의 숨 막히는 더위와 도쿄의 살갓을 파고드는 한기의 차이도 없다. ‘권태’는 세속적인 삶을 구성하는 이 모든 차별적 인식과 경계의 바깥에 서서 삶 자체를 ‘권태’그것으로, ‘암흑’으로 파지하는 의식적인 인간의 형상을 보여 준다. 즉, 표면상으로 보면 ‘권태’는 성천 여름의 하루를 권태롭게 그려 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최후의’ 의식에 도달하기 위한 내면적인 성찰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 방민호, ‘돌아갈 수 없는 방랑의 근거와 논리 - 이상의 수필 ‘권태’, “이상 수필 작품론”(역락, 2010)

▣ 작품해설 2

■ 이해와 감상

시나, 소설의 껍질을 쓰고 있는 이상이 아니라 인간 이상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그의 수필이다. 글의 구성은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동안의 일과로 그가 보고 느낀 것이 7장으로 나뉘어 기술되고 있다. 지금 이상이 가 있는 곳은 평남 성천의 한 벽촌이다. 이상이 보는 세상은 여느 사람이 보는 것과는 확실히 다르다. 녹음 속에서, 모깃불을 피워 놓은 농부들의 한가 속에서, 고요한 물웅덩이를 들여다보며, 소를 보며, 옷 벗은 시골아이를 보며, 명석 위에서 이상이 느끼는 감회는 도대체 보통의 도회지 사람들이 느낄만한 정서와는 썩 다르다. 평화도 아니고 한가도 아니고 그에게는 모든 것이 오직 권태로만 보인다. 노동에 지쳐 눅자마자 잠이 든 농부들에게서 느끼는 감정도 시체와도 같은 권태이다. 햇볕 아래 건강한 개들의 교미도 권태이고, 아이들의 놀이도 권태이고 세수조차도 권태이다. 자동차가 질주하고 상인들의 외침이 드높은 곳에 이상을 옮겨놓았다 하더라도 그는 견디기 어려운 권태를 느꼈으리라. 이렇게나 주관적으로 사물을 인식하고 자의식으로 몽쳐진 내면세계를 가졌던 이상이 요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독자는 이 글을 읽으면서 필자의 눈결에 자신의 눈을 두어 둘의 시각이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보면 흥미로울 것이다. 30년대 모더니즘 문학은 대체로 이런 자의식 과잉의 경향이 있었다. 짧은 문장, 살아있는 것 자체를 대수롭잖게 여기는 듯 내팽개치듯한 어조, 날카로운 통찰, 이 짧은 수필 한편 만으로도 이상이 천재라는 것을 인정치 않을 수 없는 섬광이 들어 있는 글이다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작가의 "산촌 여정(山村餘情)"과 함께 평남 성천(成川)에서의 생활을 바탕으로 쓴 수필이다. 작자 이상은 복잡하고 바쁜 도시 생활을 청산하고, 요양차 시골로 내려온 것이다. 그러나 그의 심리 상태가 곧바로 평정될 것은 아니다.

여름날 한 벽촌(僻村)의 권태로운 풍경과 일상에 대한 사실적인 관찰이 이 작품의 중심을 이루고 있고, 이 작품을 통해 우리는 작가의 자의식(自意識)과 내면 심리를 엿볼 수 있다.

이 작품은 원래 한낮에서 밤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한 것으로, 일곱 단락으로 짜여 있다. 제목 '권태'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작품은 생활 속에서 느끼는 권태가 핵심적 주제를 이룬다. 그러므로 작가가 마주치는 권태가 무엇무엇이고, 또 무엇 때문에 그것이 일어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이 작품을 올바르게 감상하는 지름길이다.

작품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정리해 본다.

앞 부분(어서 - 염서가 계속이다.)은 작품 전체 가운데 맨 처음에 실린 것으로, '권태의 시작'을 알려 주는 부분이다. 이 장면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같은 풍경, 밋밋한 굴곡과 초록색으로 이어져 있는 산과 들, 비슷하게 생긴 초가집, 계속되는 불별 더위'를 나열식 구성으로 배치하여 농가의 단조로운 풍경을 통한 권태감을 드러내 주고 있다. 이러한 권태감은 자신이 대하는 모든 사물과 행위에 대한 의미를 묻지만 그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일상적인 관습의 반복일 뿐으로, 자기 자신 또한 뚜렷한 행동 목표와 가치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한 데서 오는 무력감(無力感)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 장면에서는 권태로운 일상을 바라보는 작자의 시선을 통해 암울한 시대와 대면한 작자의 내면 의식이 형상화된 일 단면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준다. 날카로운 관찰력이 개성적 문체를 통해 어떻게 형상화되었는가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어 끝까지의 부분에서, 작자는 권태를 물리치기 위해 이웃에 사는 최 서방 조카를 찾아 그와 장기를 둔다. 그러나 장기를 두는 일도 어차피 일상의 반복이고 그 승부도 언제나 같은 것이므로 전혀 새로운 느낌을 주지 못한다. 작자는 '나는 왜 영영 방심의 상태로 가지 못하는 것일까?'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는 다시 권태를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러한 '권태'의 참된 의미를 찾는 것이 이 작품의 주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건이다. 이러한 일상적 생활의 단조로움에서 오는 권태라는 것은 결국 삶의 목표와 적극적 가치 의식이 없는 데서 오는 권태이며 이는 일제 강점하의 흑독한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대면한 지식인의 고민을 반영하고 있는 권태라 할 수 있다.

일상적인 생활과 변화 없는 주변 환경 속에서 느끼는 심리 묘사가 뛰어난 작품으로 자연이나 대상이 드러내는 상태를 작자의 심리적·정신적 정서를 통하여 보여 주고 있으며 이를 비교하면서 작자의 세계를 적절히 형상화하고 있고, '권태'라는 제목처럼 일견 무의미한 현대인의 생활을 하루의 생활 반경과 시간 속에서 다각도로 역설적 표현 방식을 쓰고 있다.

■ 핵심 정리

- 형식 : 경수필
- 제재 : 여름날 벽촌에서의 생활
- 성격 : 지적, 사념적, 심리적,
- 문체 : 만연체
- 표현 : 역설적, 심리적, 묘사적,
- 주제 : 권태(환경의 단조로움과 일상적인 생활의 연속 속에 느끼는 권태로움)
- 출전 : <조선일보>(1937)
- 구성

환경의 단조로움으로 인한 권태(처음 - 견딜 수가 없는 염서가 계속이다.)

권태를 이기기 위해 최 서방 조카를 찾아감(나는 아침을 - 시간에 틀림없다.)

최 서방 조카와 장기를 둠(나는 최 서방의 조카를 - 싱거워서 견딜 수 없다.)

승부에 집착하지 않는 최 서방 조카에게서 느끼는 권태(한번쯤 저 주리라. - 끝)

- 전반부에서는 '권태로운' 시골에서의 일상적인 하루 생활이 다분히 희화적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후반부에서는 '권태'의 시간적 배경이 낮에서 밤으로 바뀌고, 밤의 분위기에 맞게 심각하고 절망적인 것으로 묘사된다.

★ '권태'에 드러난 작가 의식 및 구성

평남 성천의 어느 한 벽촌을 배경으로 여름날의 권태로운 시골 풍경의 관찰로 일관되어 있는 이 작품은 전위적 문학 활동을 통한 작자의 정신적 궤적의 한 단면을 드러내 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 여름 온통 초록색으로 덮인 단조로운 벌판의 풍경으로부터 작자의 절망은 시작되어, 낮잠 자기, 짓지 않는 개와 되새김질하는 소의 모습과 행위 자체를 귀찮은 것으로 거부하는 듯한 모든 사물에게서 느끼는 권태는 마침내 마을 아이들의 놀이를 보며 그 탈출구를 찾으려고 하고 있다. 모든 것이 다 싱거워졌을 때 '똥누기 놀이'라도 해서 권태를 벗어나려는 모습은 문화적인 불모성 속에서 온갖 기교 실험으로 근대적인 것을 찾고자 한 작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작자의 정신 상황은 작품의 표현에 있어서 심리적 내면의 표백과 그에 따른 주관적 사물 인식으로 나타난다. 한편 작품의 전개는 관찰된 내용의 무의식적 단편적 기술과도 같이 보이지만 치밀한 구성이 작자의 의도를 명확히 하기 위한 효과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하루 동안의 여정이 순서적으로 나열되면서 출발과 휴식, 완결이 정확한 구도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이러한 구성의 전개는 작자의 심리적 분위기와 연결되어 그의 추구와 절망의 과정을 그래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 '권태'의 표현상 특징

1. 일상적인 생활과 변화 없는 주변 환경 속에서 느끼는 심리 묘사가 뛰어나다.
2. 자연이나 대상이 드러내는 상태를 작자의 심리적·정신적 정서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비교하면서 작자의 세계를 형상화하고 있다.
3. '권태'라는 제목처럼 일견 무의미한 현대인의 생활을 하루의 생활 반경과 시간 속에서 다각도로 표현하고 있다.
4. 다양한 대상들을 바라보는 작가의 심리가 만연체의 문체로 나열되고 있다.
5. 역설적인 표현 방식을 쓰고 있다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본문해설 1

방 안 생김새는, 통로보다 조금 높게 설득 자들이 앉아 있고(장내 구조는 양측 설득자들이 마주 보고 책상을 놓은 사이로), 포로는 왼편에서 들어와서 바른편으로 빠지게 돼 있다(퇴장하게 돼 있다). (순서는 공산측이 먼저였다)네 사람의 공산군 장교와, 국민복을 입은 중공 대표가 한 사람, 합쳐서(도합) 다섯 명. 그들 앞에 가서, 걸음을 멈춘다(멈췄다). 앞에 앉은 장교가, 부드럽게 웃으면서 말한다.(말했다)

"동무, 앉으시오."

명준은 움직이지 않았다. (명준은 들리지 않는 양 그대로 버틴 채 움직이지 않았다는 말로 명준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음)

"동무는 어느 쪽으로 가겠소?"

"중립국."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회의를 대한 명준의 생각이 드러나 있다. 그리고 중립국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외치는 것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고함, 이념이라는 것을 현실 속에서 경험했고, 그것이 허망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며, 남북한 모두 진정한 인간의 삶을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쳐다본다(쳐다 보았다). 앉으라고 하던 장교가, 뒷몸(상반신)을 테이블 위로 바싹 내밀면서, 말한다.(말했다)

"동무, 중립국도, 마찬가지로(역시) 자본주의 나라(국가)요. 굶주림과 범죄가 우글대는 낯선 곳에 가서 어찌자는 거요?" (자본주의 사회의 실상을 제시함으로써 명준의 마음을 돌리려는 설득자의 말이다. 그러나 명준은 남한에서 자본주의 사회를 경험한 바 있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 이러한 설득은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설득자들의 입장에서 이 명준의 태도는 마이동풍(馬耳東風) : 말의 귀에 동풍이 불어도 아랑곳하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남의 말을 귀담아듣지 아니하고 지나쳐 흘러 버림을 이르는 말. 이백의 시에서 유래한 말이다. 그 예로 마이동풍으로 흘러든다/그에게는 나의 충고가 마이동풍이었다./아닌 게 아니라 수차 그런 권고를 했는데 마이동풍이니 딱하지요. 유사어로는 우이독경(牛耳讀經) : 쇠 귀에 경 읽기, 소 코에 경 읽기, 우이송경(牛耳誦經), 마이동풍(馬耳東風)]

"중립국." [이 부분의 서사적 전개는 주인공 '이명준'의 남한과 북한에 대한 비판과 이에 따른 중립국 선택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 전개를 가져오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이데올로기적 대립의 허구성에 있다. 다시 말해서 남북한의 이념적 한계로 인해 중립국을 선택하는 것이다.]

"다시 한 번 생각하시오.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정이란 말요. 자랑스러운 권리를 왜 포기하는 거요. [개정판에는 '동무의 부모는 어디에 살고 있소'라는 말로 적혀 있고, 이는 명준의 부모가 북에 살고 있음을 미끼로 협박하는 대목이다. 그런데 이명준은 동문서답(東問西答 : 물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대답)으로 대꾸하고 있다?]"

"중립국."

이번에는, 그 옆에 앉은 장교가 나앉는다.

"동무, 지금 인민공화국에서는, 참전 용사들을 위한 연금 법령을 냈소. 동무는 누구보다도 먼저 일터를 가지게 될 것이며, 인민의 영웅으로 존경받을 것이요. 전체 인민은 동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소. 고향의 초목도 동무의 개선을 반길 거요."

"중립국." [이 장면을 드라마로 만들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중립국'이라고 말하는 부분을 음량이나 화면 클로즈업으로 부각시키고, 주인공의 내면을 독백으로 처리하여 내부적, 관념적 심리를 소개하거나, 현재의 장면과 주인공이 회상하는 과거 장면을 이중 노출 기법으로 처리하거나 남북한의 사회적 모순을 반영하는 영상을 배경 화면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들은 머리를 모으고 소곤소곤 상의를 한다.

처음에 말하던 장교가, 다시 입을 연다.

"동무의 심정도 잘 알겠소. 오랜 포로 생활에서, 제국주의자들의 간사한 꼬임수에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도 용서할 수 있소. 그런 염려는 하지 마시오. 공화국은 동무의 하찮은 잘못을 탓하기보다도, 동무가 조국과 인민에

게 바친 충성을 더 높이 평가하오(명준이 조국을 배신하고 중립국을 선택한 것을 책하기보다는 그가 조국과 인민을 위해 전쟁에 나가 싸운 것을 더 높이 평가한다는 것으로 명준을 회유하기 위한 말). 일체의 보복 행위는 없을 것을 약속하오. 동무는....."

"중립국." [조태일의 시 '국토서시'는 조국 강산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보여주는데 이명준은 현실도피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중공 대표가, 날카롭게 무어라 외쳤다. 설득하던 장교는, 증오에 찬 눈초리로 명준을 노려보면서, 내뱉었다.(명준을 설득하는 것을 포기한 공산측 대표의 행동을 묘사한 것)

"좋아."

눈길을, 방금 도어를 열고 들어서서 다음 포로에게 옮겨 버렸다.

아까부터 그는 설득 자들에게 간단한 한마디만을 되풀이 대꾸하면서, 지금 다른 천막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을 광경을 그려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도 자기를 세워 보고 있었다.

"자넨 어디 출신인가?"

"....."

"음, 서울이군."

설득 자는, 앞에 놓인 서류를 뒤적이면서,

"중립국이라 지만 막연한 얘지요. 제 나라보다 나은 데가 어디 있겠어요. 외국에 가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지만, 밖에 나가 봐야 조국이 소중하다는 걸 안다구 하잖아요? 당신이 지금 가슴에 품은 울분은 나도 압니다. 대한민국이 과도기적인 여러 가지 모순을 가지고 있는 걸 누가 부인합니까? (일제 식민지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본주의 사회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사회적 모순을 안고 있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말) 그러나 대한민국엔 자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무엇보다도 자유가 소중한 것입니다. 당신은 북한 생활과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중으로 그걸 느꼈을 겁니다. 인간은....."

"중립국."

"허허허,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 나라 내 민족의 한사람이, 타향 만리 이국 땅에 가겠다고 나서서, 동쪽으로서 어찌 한마디 참고되는 이야길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곳에 남한 2천만 동포의 부탁을 받고 온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서, 조국의 품으로 데려오라는....."

"중립국."

"당신은 고등교육까지 받은 지식인입니다. 조국은 지금 당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조국은 과도기적 상황이기에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신과 같은 지식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말). 당신은 위기에 처한 조국을 버리고 떠나 버리겠습니까?" [조국애에 호소함]

"중립국."

"지식인일수록 불만이 많은 법입니다(사회의 모순을 직시하고 이상적인 사회에 대한 동경이 큰 지식인일수록 현재의 사회 현실에 불만이 많다는 점을 이해한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현실 자체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은, 마치 종기가 났다고 제 몸을 없애 버리려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라고 설득하는 부분이다. 이 단언은 지식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불만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명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 그러나 그러한 불만은 지식인이기 때문에 부여되는 속성이지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 또한 함께 드러내고 있다. 이해와 한계 제시가 함께 이루어지면서, 이명준의 입장이 인간 본연으로서 이명준의 견해가 아니라 지식인이기 때문에 확대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불만을 확대시켰다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제 몸을 없애 버리겠습니까? 종기가 났다고 말이지요[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 당신 한 사람을 잃는 건, 무식한 사람 열을 잃은 것보다 더 큰 민족의 손실입니다(명준의 지성에 호소함으로써 마음이 움직이도록 하려는 것). 당신은 아직 젊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나이를 약간 더 먹었다는 의미에서, 친구로서 충고하고 싶습니다. 조국의 품으로 돌아와서, 조국을 재건하는 일꾼이 돼주십시오[모순들을 해결하여 좋은 사회를 만드는 일에 당신의 젊음과 능력을 써달라고 함]. 낯선 땅에 가서 고생하느니, 그쪽이 당신 개인으로서도 행복이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처음 보았을 때, 대단히 인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뭐 어떻게 생각지 마십시오. 나는 동생처럼 여겨졌다는 말입니다. 만일 남한에 오는 경우에, 개인적인 조력[힘을 써서 도와줌]을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명준은 고개를 쳐들고, 반듯하게 된 천막 천장을 올려다보다[남한측의 설득에 대한 거절을 암시]. 한층 가락을 낮춘 목소리로 혼잣말 외듯 나직이 말할 것이다.

"중립국." [명준은 남한과 북한이 모두 진정한 의미의 광장을 소실한 공간이라 판단했으므로 제3국에서 광장과 밀실이 공존하며 조화를 이루는 공간을 찾으려함]

설득 자는, 손에 들었던 연필 꼭지로, 테이블을 툭 치면서, 곁에 앉은 미군을 돌아볼 것이다. (명준을 말로써는 도저히 설득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남한측 설득자의 행동 묘사.) 미군은, 어깨를 추스르며, 눈을 찡긐 하고 웃겠지.

나오는 문 앞에서, 서기의 책상 위에 놓인 명부 [이름이 적힌 장부]에 이름을 적고 천막을 나서자, 그는 마치 재채기를 참았던 사람처럼 몸을 벌떡 뒤로 젖히면서, 마음껏 웃음을 터뜨렸다. 눈물이 찢끔찢끔 번지고, 침이 걸려서 객객 거리면서도 그의 웃음은 멎지 않았다. (회유를 물리치고 중립국을 선택한 데 대한 통쾌감과 승리감에서 비롯된 행동 / 기쁨도 슬픔도 아닌 허탈함과 비애에 따른 헛웃음으로도 해석 가능)

▣ 작품해설 1

■ 해제 : 1960년 <새벽> 10월호에 발표. 이후 여러 차례 손질을 거쳐 장편으로 개작(改作)했기 때문에 판본(板本)에 따라 내용과 문체상의 차이가 많다. 남북 분단의 비극을 이데올로기적(的) 측면에서 본격적으로 다룬 작품으로, 남과 북에 대한 객관적 반성이 나타나 있고 그 초월의 갈등과 상황의 비극성이 밀도 있게 표현되어 있다.

■ 갈래 : 장편 소설, 관념 소설

■ 성격 : 회고적, 독백적, 관념적

■ 배경 : ① 시간 - 해방 직후부터 6·25전쟁 종전까지

② 공간 - 남한과 북한, 인도양

회상 속의 배경 : 6·25 당시의 남한과 북한.

■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 주제 : 분단 이데올로기의 갈등 속에서 바람직한 삶과 사회에 대한 추구

■ 출전 : 「새벽」 (1960)

<광장, 동굴, 밀실의 상징적 의미>

▶ 상징적 의미

. 광장 : 사회 중심적인 세계. 개인적 존재 가치가 침해되기도 함

. 동굴 : 자기 중심적인 세계. 타인의 간섭을 안 받는 개인적 세계

▶ '밀실'과 '광장'의 의미

'밀실'이란 자신만의 내밀한 삶의 공간이며, '광장'이란 사회적 삶의 공간을 의미한다. 바람직한 인간의 삶이란 이 두 가지 삶의 방식의 상호 관계와 작용 속에 균형을 이루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한 사회의 역사적 조건과 상황을 주체적으로 수용해 나가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 작품에서 명준은 철학도로서의 밀실에서 현실적인 이유로 광장을 찾아 월북하고 광장에서 절망을 한 후 은혜와의 밀실을 기도한다.

<'광장'의 개작(改作) 내용>

중요 모티브	전집판('문학과 지성사' , 1989)	이전(以前) 판
갈매기	'은혜'와 그녀의 딸의 표상	'윤애'와 '은혜'의 표상
바다	은혜의 '배(腹)'가 '바다' 이미지로 그려지고, 이명준은 그녀에게서 바다를 연상함.	은혜와 바다의 연관성이 두드러지지 않음.
죽음	이명준은 은혜와 딸의 표상인 갈매기가 있는 바다로 투신함. 따라서 사랑의 선택으로 인식됨.	이데올로기적 갈등이 주요 원인.

■ 구성

■ 발단 : 대학에 재학 중인 이명준은 월북한 아버지 때문에 기관에 끌려가 고초를 겪은 후 월북을 결행한다.

■ 전제 : 북한에 도착한 이명준은 막상 북쪽 사회를 체험하자 그들이 내세우는 이상과는 달리 왜곡된 이념과 부자유만 있음을 알게 된다.

■ 위기 : 6·25 전쟁이 발발하자 인민군으로 종군하게 된 이명준은 사랑하는 여인 '은혜'와 극적으로 헤어지거나 그녀는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결국 포로가 된다.

■ 절정 : 포로 수용소에서 석방될 때 이명준은 제3국을 선택한다.

■ 결말 : 제3국인 인도로 향하는 타고르 호에서 이명준은 바다에 투신하여 자살하고 만다.

■ 등장인물

- 이명준 : 주인공. 철학도. 전쟁 포로. 남한과 북한을 오가면서 남한의 나태와 방종·북한의 부자연스러운 이념적 구속에 환멸을 느끼고 진정한 '광장'을 찾아 중립국으로 가기로 하지만, 결국 삶의 참된 가치의 실현에 의문을 느끼고 배 위에서 바다로 투신 자살함.
- 이형도 : 명준의 부친. 월북한 혁명가. 이상적인 혁명가가 아닌 부정적 이미지를 보임. 남로당원으로 월북하여 북한에서 고위 관리를 하고 있지만, 명준에게 이상적 혁명가의 모습을 보이지 못함으로써 역시 회의의 대상이 됨.
- 윤애 : 명준의 남쪽 애인. 명준의 월북 후 명준의 친구 태식과 결혼하여 평범하게 사는 여인.
- 은혜 : 명준의 북쪽 애인. 발레리나. 북한군 간호 장교로 종군하다가 명준의 아이를 가진 채 전사(戰死). 명준의 삶에 어떤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었던 여인.
- 갈매기 : 중요한 소재. 배 위에서 은혜와 그의 딸로 상징됨. 명준 자살의 동기가 됨.

■ 줄거리

주인공 이명준은 대학 철학과 학생으로 아버지의 친구 집에 얹혀살고 있다. 그는 자기만의 밀실에 들어앉아 현실을 편협하게만 인식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의 아버지는 북한에 살면서 대남 방송(對南放送)에 등장하기도 한다. 이를 빌미로 이명준은 경찰서에 불려가서 구타를 당하면서 아버지와 현재 어떤 연락이 있는가 조사를 당한다. 형사들은 그를 빨갱이로 몰아붙인다. 이를 계기로 그는 남한의 현실에 환멸을 느끼고 월북한다. 그러나 이명준의 비판적 눈에 북한 사회는 사회주의 제도의 굳어진 공식인 명령과 복종만이 보일 뿐이며, 활기차고 정의로운 삶은 찾을 수가 없었다. 즉, 진정한 삶의 광장은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이명준은 남과 북에서 이념의 선택을 시도했으나, 어느 곳에서도 진실을 발견하지 못하는, 일종의 허무주의적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명준은 '은혜'와의 사랑에서 이념의 무의미함을 다소나마 보상받지만, 그것은 개인적 삶의 한정된 행복일 뿐이고 진정한 의미의 광장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는 전쟁에 뛰어들었다. 그렇지만 전쟁에서도 새로운 삶을 발견하지 못한다. 그는 포로가 된다. 포로 송환 과정에서 남이나 북이냐의 선택의 갈림길을 맞게 된 그는 중립국을 택한다. 이제 그가 나설 광장은 남쪽과 북쪽 어느 곳에도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중립국을 선택한 포로들을 싣고 가는 인도의 상선(商船) 타고르호(號)가 남지나해를 지나 항해하는 어느 날 밤, 그는 바다에 투신 자살하고 만다.

■ 이해와 감상(1)

이 작품은 전쟁 전후의 혼란 속에서 남과 북을 오가면서 진실한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역사와 민족의 문제, 그리고 진정한 삶의 방향 등에 대한 모색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분단과 이념 갈등, 개인과 사회의 이상적 관계, 사랑을 통한 인간 구원의 문제 등 묵직하고 심오한 주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 보니 전체적으로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독백, 철학적인 논쟁, 추상적인 사색 등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주인공은 남과 북 어디에도 진정한 인간의 삶을 충족시켜줄 수 없다는 인식하에 제3국을 선택하지만, 끝내 바다에서 자살하고 만다. 그의 죽음은 이념 갈등 속에서 결국 좌절하고 마는 한 지식인의 비극으로, 이를 통해 작가는 이념 선택의 한계와 분단 상황의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 이해와 감상(2)

본격적으로 분단 문제에 접근한 대표적인 예로 손꼽히는 이 작품은 민족의 분단을 이데올로기적인 갈등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그 선택의 기로(岐路)에서 방황하는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다. 작가는 북쪽의 사회 구조가 갖고 있는 폐쇄성과 집단 의식의 강제성을 고발하면서 동시에 남쪽의 사회적 불균형과 방만한 개인주의를 비판한다. 제3자적인 입장에서 볼 때 남과 북 어느 쪽도 진정한 인간의 삶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작가는 주인공의 자살을 통해 이념 선택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음을 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완강하게 고정되고 있는 분단 상황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읽을 수 있다.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 또는 관념은 '밀실'과 '광장'이다. '밀실'이란 자신만의 내밀한 삶의 공간이며, '광장'이란 사회적 삶의 공간이다. 바람직한 인간의 삶이란 이 두 가지 삶의 방식의 상호 관계와 작용 속에 균형을 이루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한 사회의 역사적 조건을 주체적으로 수용해 나갈 수 있다. 그런데 이명준은 철학도로서의 밀실에서 벗어나 새로운 '광장'을 찾아 월북하고, 그 '광장'에서 절망을 한 후 은혜와의 '밀실'을 기도한다. 다시 전쟁이란 '광장'을 거쳐서 아무도 자신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밀실'인 중립국을 택하는 것이

다. 그리고 그가 최후에 선택한 바다는 이념이 배제된 밀실이며, 사랑만이 참다운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광장이다. 따라서, 이명준의 바다는 그만의 광장이요, 동시에 밀실인 것이다. 또 하나, 이 소설의 결미(結尾)는 '갈매기'와 '바다'의 서사시이다. 선상(船上)에서 맨처음 갈매기를 보는 순간, 그 새는 감시자의 눈길로 불안감을 주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갈매기는 이명준의 아픈 사랑의 과거를 떠오르게 하는 매개체가 된다. 특히, 죽은 은혜와 그의 딸(낙동강 전투에서 은혜는 명준의 딸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음)을 상징한다. 바다는 생명 본향(本鄉)이라는 원형적 심상과 죽음 뒤에 오는 새로운 탄생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더욱이 그 바다 위에 갈매기('사랑'의 징표)가 날고 있다는 것은 이 바다가 진정한 사랑이 가능한, 이명준만의 밀실이요 광장임을 다시 확인케 한다. 다만, 그것이 시민적 광장이 아닌 점에 이 소설의 현실적 한계가 있다.

▣ 작품해설 2

■ 갈래: 장편 소설, 실존주의 소설

■ 성격 : 관념적, 철학적

■ 배경 : •현실 부분- 타고르 호 위에서의 이틀

■ 회상 부분- 8.15 광복으로부터 6.25 종전에 이르는 시기의 남한과 북한

■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 구성 : 복합 구성

■ 주제 : ①분단의 과정과 비극 속에서 고뇌하는 지식인의 모습 ② 이념의 갈등 속에서 이상적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인간의 모습

■ 개관 : 남북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객관적 반성과 함께, 두 체제의 한계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명준'이라는 인물을 등장시켜 분단과 이데올로기의 대립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작품.

■ 작가소개 : 최인훈(1936~) 소설가. 극작가

■ 활동: 함북 회령 출생. 1959년 <자유 문학>에 '그레이 부락부 전말기', '라울전' 등으로 추천을 받아 등단. 1960년 '가면고'와 '광장'을 발표하면서 각광을 받기 시작.

■ 경향: 그는 현대인의 고뇌와 불안을 묘사하기 위해 꿈·일기·회상·내적 독백 등의 기교를 다채롭게 사용하면서도 플롯을 중시하며, 소설 미학을 견지하는 작품들을 발표.

■ 작품: 작품집으로 <광장>, <총독의 소리>, <문학을 찾아서>, <서유기>,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등이 있다.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앞부분의 줄거리] 음산한 토막에서 가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명서 가족은 돈을 벌기 위해 일본에 간 아들 명수에게 큰 기대를 건다. 하지만 명수가 해방 운동에 가담하여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이웃 여자 : 왜 이렇게 사진이 희미해?

이웃 여자 : 왜 이렇게 사진이 희미해?

명서 처 : 내가 늘 지니고 다녀서 손때가 묻어 그럴 거야.

이웃 여자 : 내 눈으로두 어찌 보문 같은 피색 * 이 있기도 현대, 어찌 보문 아주 다르기도 허구…… 대체 이걸루는 이렇다 저렇단 말은…….

명서 처 : 암, 그렇구말구! 나 역시 믿을 수 없어. 하늘이 무너진다는 소릴 믿은 믿었지, 어떻게 믿는담. 머리끝이 바로 서는 이 무서운 사연[구장-이장이 가져온 신문에 일본으로 돈을 벌기 위해 간 명수가 체포되었다는 기사난 것]을…….

이웃 여자 : 무서운 사연이라니?

명서 처 : 맙시사! 당치도 않은! 이 조선 천지에 그런 일이 있어서 어쩔려구.

이웃 여자 : 어찌 됐어? 내게 좀 들려주구랴.

명서 처 : ……뭘라던가? 에그 정신 봐! 애 금녀야, 그 뭘라더라, 네 오빠 했다는 것[독립운동] 말야.

금녀 : 또 그런 얘길…….

이웃 여자 : 한 이웃에 살면서, 피차에 기울 게 뭐냐?

명서 처 : 애, 갑갑하다. 이 에이한테 한 번만 더 들려주렴. 그 구장이 허구 간 소리 말야.

금녀 : 그건 맹탕 거짓말이래두.

명서 처 : 뭐?

금녀 : 웃마을 오빠의 친구에게 알아봤더니, 오빠 한 일은 정말 훌륭한 일이에요. 우리두 이런 토막살이에서 죽지 말구, 좀 더 잘살아 보자는…….[긍정적 인물의 모습]

명서 처 : 그럼 그렇지. 그래 종신 징역을 산다는 건 정말이라디?

이웃 여자 : 종신 징역?

명서 처 : 거짓말야! 거짓말야! (미친 듯이 부르짖는다.)

금녀 : 암, 거짓말이죠!

명서 처 : 종신 징역이란 감옥에서 죽어 나온단 말 아냐? 젊어서 새파란 개개! 금지옥엽 내 자식이! 내 아무래도 믿을 수 없는 일야! 그런 청천에 벼락 같은 일이 우리 명수의 신상에 있어 어쩔려구! 신문에만 난 걸 보구 그걸 우리 명수라지만 그런 멀쩡한 소리가 어딴어? 이 넓은 팔도강산에 얼굴 같은 사람이 없구 최명수란 이름 석 자 가진 사람이, 어디 우리 자식 하나뿐일 거라구? 이건 누가 뭐래두 난 안 믿어.

금녀 : 어머니, 이러시다가 병이나 나시문 어떻게 해유? 설사 오빠가 죽어 나온대두 조금도 서러울 건 없어유.[현실 극복의 의지, 복선] 외려 우리의 자랑이예유. 오빠는 우릴 위해서 싸웠어유. 이런 번듯한 일이 또 있겠수? 더구나 이런 토막에서 자란 오빠는, 결단코 이 토막을 잊지 않을 거유. 병드신 아버질 구하시려구 늙으신 아버질 섬기시려구, 그리구 이 철부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빠는 장차 큰 성공을 해 가지고 꼭 한번 이 토막에 찾아오셔요. 전보다 몇 배나 더 튼튼한 장부가 되어 오실 거야. 여기를 떠날 때만 해두 오빠는 나무를 하거나 꿀밭을 매거나 남의 두 뭇은 했었는데, 지금쯤은 어머니, 오빠 얼마나 대장부가 됐겠수?

명서 처 : 옳야! 그놈은 몸도 크구 기상도 좋았겠다! 그놈이 지금은 얼마나 훌륭한 장골이 됐겠니? 제 어미도 몰라보게 됐을 거야 …… 아야, 명수야! 이제 명수가 저 사립문에 나타나서 장부다운 우렁찬 목소리로 이 어미를 부르고 떠벌떠벌 내 앞으로 걸어서 그 억센 손으로 이 여윈 팔목을 덜컥 붙잡을 것이다 …… 그러면 이 토막에도 서기 * [조국의 광복]가 날 거야.

금녀 : 아무렴, 서기가 나구말구! 이 어두운 땅도 환해질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는 따리 파시노라구 거리거리로 떨고 다니실 필요두 없을 거구…….

이웃 여자 : 나는 암탉 궁둥이만 들여다보구 맘을 조리잖아도 좋구…….[이웃 여자는 닭이 낳는 알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명서 처 : 아이구 금녀야, 우린 이런 형상으로 어떻게 우리 명수를 만나니? 이렇게 찌들어진 형상으로! 너의 오빠를 맞이하기엔 이 집은 너무 누추하구나. 금녀야, 우리는 집 안을 치우구 몸을 단속하자[몸을 단정하게 하자]. 이런 꼬락서니로 우리 명수를 만나서는 안 된다. 얘야, 이리 와서 머리를 빗어라. 기름두 남았지? 싸리문에는 불을 켜구…… 귀한 사람이 들어올 때 집 안이 컴컴해선 못쓰느니라.[불행한 사건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말로 금녀의 공포를 유발함]

금녀 : (어머니의 미친 듯이 서두는 양[어머니의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알 수 있음 / 아들 생각에 광기를 보이는 명서 처]을 바라보고 있는 금녀의 눈에는 일종의 공포의 빛이 감돈다.)

(바람 소리)[긴장감을 유발하는 기능을 한다]

명서 처 :금녀야, 뭘 하니? 빨리 머리를 풀어라[명수가 죽어서 돌아올 것임을 암시하는 부분]. 예미는 불을 켜 테니까.[사람이 죽으면 상제가 머리를 푼다는 점과 연결시켜 생각해 보면, 명수가 죽어서 돌아오리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금녀 : (불안한 듯이 어머니만 꼭 바라보고 섰다.)

이웃 여자 : 좀 답답해서 저러겠니? 보고 있는 나까지 속이 졸이는구나.

금녀 : 오빠 생각만 나문 저러신대유. 그러신 중에두 오늘은 유달리 심허신 걸유. 난 어찌지…….[금녀의 불안감이 드러남]

이웃 여자 : 당찮어! 무슨 그런 엉뚱한 생각을! 그러지 말구 네가 어머니 위로를 잘 해 드려라. 위로해 드릴 사람이라면 너밖에 더 있냐?

금녀 : 아무리 위로한댔자 소용 없어유. 그리구 내게는 뭐라고 위로해 드릴 말두 없구. 다만, 이 증세가 속히 지내가기만 바랄 뿐이지.

이웃 여자 : 하기가 그럴겠지. 무슨 말이 저 거칠언 마음에 위안이 되겠니. 마치 게 등에 소금 칠이지.[아무 쓸모없는 일이라는 뜻 / 시루에 물 퍼붓기 / 밀 빠진 독에 물 붓기 / 노력해 봐야 소용이 없다] (사립문 등불을 다는 명서 처에게) 금녀네, 과히 상심치 말게나. 아들 생각하다가 지레 죽겠네. (퇴장)

▣ 작품 해설 1

▣ 이해와 감상

상업주의적 대중적인 신파극에 맞서 리얼리즘을 시도한 창작 희곡이다. 따라서 사실주의 희곡의 한 전형(典型)으로서 한국 근대극의 본격적 출발이며, 식민지 시대의 현실을 강렬하게 고발한 작품이라는 문학사적 의의를 지닌다.

희곡 '토막'은 두 농가, 즉 명서네와 경선네의 몰락 과정을 비극적으로 그린 것이다.

경선네는 소작농으로 근근히 지내다가 땅마저 빼앗기고 장리 쌀 몇 가마 얻어먹은 것을 못갚아 토막마저 차압당해 유랑 걸식과 행상으로 끼니를 잇다가 견디지 못하고 결국 고향을 떠난다.

'토막'에서의 중심 인물은 경선이 아니라 명서이고, 명서 일가의 비극에 포커스(focus)가 있다. 명서네 삶 역시 경선 일가보다 별로 나을 것이 없다. 그런데 명서네는 장남이 일본으로 돈벌이를 간 것과 그를 기다린다는 희망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유일한 희망마저 무산된다. 아들은 일본에서 해방 운동을 하다가 옥사하고 유골만 돌아온다. 그리하여 명서 일가의 비극은 절정에 달한다.

이 작품의 특징은 배경의 암시성이다. 그 퇴락하고 음습하고 어두운 분위기와 철저히 가난하고 병들어 있는 삶, 그것은 단순히 한 특정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다. 일제의 통치하에 있는 1920년대와 30년대의 식민지 조선의 생생한 모습이다. 이렇듯 가난한 농촌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부터가 식민지 정책의 구조적인 모순에 대한 작가의 비판 의식을 드러내 준다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의 주제는 식민지 시대 삶의 질곡(桎梏)이고, 일제에 대한 저항과 패배의 기록이다. 그리고, 수탈과 상실이고, 상실 뒤에 오는 허망함이다. 그리고, 식민지 시대의 압박 속에서 삶의 뿌리를 잃어 가는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주인공들은 처음부터 빼앗김으로부터 출발하여 빼앗김으로 끝난다. 농토·집·가재·도구·아들 같은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낱 같은 생의 희망마저 빼앗긴다. 결국 벗어날 길 없는 가난 때문에 집을 버리고 유랑의 길로 떠나거나 농토를 뺏긴 채 행상으로 연명을 하게 되며 가족 공동체는 완전히 붕괴되어 버린다. 이 작품에서 '토막'은 일제하의 질곡 속에서도 이어지는 삶의 터전을 상징하며, '유골'은 삶의 기본적인 터전마저 유린되어 버린 식민지의 극악한 상황을 상징한다.

▣ 핵심정리

■ 갈래 : 희곡(비극), 장막극(2막극), 사실극, 사회적 상황극(사회 문제극)

■ 배경 : 1920년대 어느 빈한한 농촌 마을

■ 경향 : 사실주의적

■ 성격 : 현실 고발적, 비판적, 사실적

■ 상황 : 아들의 소식 기다림 → 백골(명수) 도착 → 슬픔

■ 특징

▪ 1920년대 농민의 궁핍한 생활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함.

▪ 비유와 상징을 통해 식민지 치하의 현실을 고발함.

▪ 희극적 인물(경선)을 설정하여 비극의 효과를 높임.

■ 주제 : 일제의 악랄한 수탈 속에서 황폐해 가는 한국의 참담한 현실

■ 의의 : 리얼리즘을 표방한 본격적인 근대극. 1920년대 궁핍한 한국 농촌의 현실을 묘사 한 사실주의적 희곡의 전형으로 꼽힘

■ 인물

▪ 최명서 : 생활 능력이 없는 병들고 가난한 늙은이. 가장으로서의 체통과 위엄만 잃지 않고 있다. 억압과 수탈을 당하면서도 농민 특유의 무지와 순종심으로 인해 역사 의식도 민족적 저항감도 없이 살아가는 인물형이다. 아들의 죽음을 확인한 후 울분과 저항 의식을 밖으로 드러내기도 하지만 현실의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

인물이다. 전형적인 농민의 모습을 보여 준다.

- 명서 처 : 아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기대를 걸고 있는 여인. 이들의 불행을 감지하게 되자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인다.
- 금녀 : 오빠의 죽음에 대해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나이가 어리면서도 부모와 달리 흔들리지 않는 강한 인내와 현실 극복의 의지를 지니고 있다. 가장 예지적이고 긍정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금녀는 오빠의 행동의 정당성을 점차 깨닫게 된다는 면에서 볼 때 '발전적인 유형'의 인물이다. 또한 유치진의 '동반자적 경향'을 대변 하는 인물이기도 하다.<명서의 딸 주제의식 구현>
- 경선 : 희극적인 인물이지만, 내면으로는 가난의 고통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경험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의 아내인 '경선네'와의 대화를 통해 당대의 궁핍과 절망이 적절하게 관객에게 전달된다.<별명 뽕보 낙천적인 희극적 인물>

■ 구성 : 전 2막. 4단 구성

- 발단 : 삼조가 명서에게 소식 전할 것을 약속함
- 전개 : 재산을 빼앗기에 된 경선. 명수가 구속된 소식을 들음
- 절정 : 경선이 솔가(率家)하여 떠나고 명수 때문에 온 가족은 비탄에 빠짐
- 대단원 : 명수가 백골로 돌아오자 명수네 가족은 절규함

★ 명수의 '백골'을 대하는 가족들의 태도

→ 일제 치하 사람들의 모습을 3가지 인물 유형으로 제시함.

- 명서(父) : 죽인 자에 대한 분노. 좌절. 명수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음. 감정적 태도.
- 명서 처(母) : 아들의 죽음을 순응하고 체념함.
- 금녀(여동생) :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견뎌 내려는 희망적 태도와 의지를 나타냄. 이성적 태도.

★ 상징성

- '토막'
 - 일제 강점기의 궁핍한 농촌 현실과 등장인물들이 처한 비참한 상황을 상징.
 - 음습하고 퇴락하여 찌든 가난을 상징.
- 최명수의 백골 : 비극적 결말을 암시
- 다 기울어진 이 집 : 우리 민족의 모습 우회적인 고발
- 가난한 농민 : 우리 민족

▣ 줄거리

가난한 농부인 명서네 가족은 일본에 간 아들 명수만을 믿고 의지하며 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린다. 그러던 중, 구장은 명수가 사상 관계로 경찰에 붙잡혔으며, 해방 운동을 하다가 종신 징역살이를 하게 되었다는 기사와 함께 명수의 사진이 실린 신문을 가지고 찾아온다. 구장은 명수가 하는 해방 운동이 '흠치기교'와 같은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명수의 여동생 금녀는 오빠가 하는 일이 우리 민족을 절망에서 벗어나게 하는 길임을 깨닫는다.

한편 장리 쌀 몇 가마니를 꾸어다 먹은 것 때문에 집행이 나와 집을 빼앗긴 경선은 집을 떠났다가 등짐 장수가 되어 돌아온다.

명서의 처는 아들 명수가 종신 징역을 살지도 모른다는 말에 거의 실성 상태에 이르고, 그 때 우편 배달부가 와서 명수의 유골을 전해 준다. 명서네 가족은 오열하며 금녀의 비장한 대사를 끝으로 막이 내린다.

▣ 작품 해설 2

1. 핵심 정리

- ① 지은이 : 유치진(柳致眞 1905-1974) 극작가. 연출가. 호는 동랑(東郎). 1931년 ‘극예술연구회’ 창립에 참여하면서 희곡 창작과 연출 활동을 시작함. 해방 후 국립 극장장 역임. 1931년 “토막”으로 시작하여 초기에는 빈곤한 사람들의 생활상을 사실주의적 수법으로 그렸고, 후에는 리얼리즘을 토대로 한 로맨티시즘이라는 기조 아래 쓴 작품들을 발표하였다. 대표작으로 “토막”, “소”, “버드나무 선 동네 풍경”, “빈민가”, “원술량”, “흔들리는 지축” 등이 있다.
- ② 갈래 : 사회 문제극. 비극. 장막극
- ③ 배경 : 1920년대 어느 빈한한 농촌 마을
- ④ 성격 : 현실 고발적. 비판적. 사실적
- ⑤ 경향 : 사실주의적
- ⑥ 구성 : 전 2막. 4단 구성
- ⑦ 주제 : 일제의 악랄한 수탈 속에서 황폐해 가는 한국의 참담한 현실
- ⑧ 의의 : 한국 현대 희곡의 대표작으로 평가됨. 1920년대 궁핍한 한국 농촌의 현실을 묘사한 사실주의적 희곡의 전형으로 꼽힘

2.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1920년대 일제 강점기하의 궁핍한 농촌을 배경으로 하여 시대상을 사실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 ‘토막’이라는 어두운 공간을 중심으로 삶의 기반을 상실한 채 파멸해 가는 한 가정의 비극을 통하여 일제의 악랄한 식민 통치를 비판하고 있다. 농민들의 비극적인 삶의 실상과 일제의 억압과 수탈 속에서 모든 기대를 걸었던 아들마저 잃게 되는 명서 집안의 몰락 과정은 고통과 상실의 시대를 살아 온 우리 민족 현실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우리 현대 희곡사에서 구체적인 사회 현실을 다룬 본격적인 희곡으로는 첫 작품이자 사실주의 희곡의 첫 작품이다. 유치진의 처녀작인 동시에 대표작인 이 작품은 상연되자마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상업주의 연극에 식상한 사람들이 갈망해 온 정통적 연극의 출발을 알리는 작품이었다. 또한 “토막”은 리얼리즘 희곡의 한 전형(典型)으로서 식민지 시대의 현실을 강렬하게 고발한 작품이라는 문학사적 의의를 지닌다.

이 작품의 주제는 식민지 시대 삶의 질곡(桎梏)이고, 일제에 대한 저항과 패배의 기록이다. 그리고, 수탈과 상실이고, 상실 뒤에 오는 허망함이다. 그리고, 식민지 시대의 압박 속에서 삶의 뿌리를 잃어 가는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주인공들은 처음부터 빼앗김으로부터 출발하여 빼앗김으로 끝난다. 농토·잡·가재 도구·아들 같은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낱 같은 생의 희망마저 빼앗긴다. 결국 벗어날 길 없는 가난 때문에 집을 버리고 유랑의 길로 떠나거나 농토를 뺏긴 채 행상으로 연명을 하게 되며 가족 공동체는 완전히 붕괴되어 버린다. 이 작품에서 ‘토막’은 일제하의 질곡 속에서도 이어지는 삶의 터전을 상징하며, ‘유골’은 삶의 기본적인 터전마저 유린되어 버린 식민지의 극악한 상황을 상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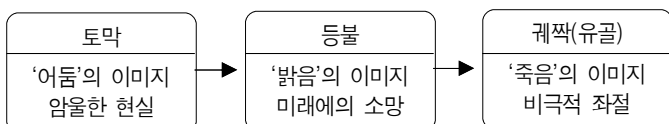
우리는 이 작품에서 인물의 대화를 통해 갈등이 전개되고 시대상이 표출되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그것은 희곡이 대화의 문학이기 때문이다. 또한 인물의 대화를 통해 그 인물의 성격이 드러나기 때문에 명서와 명서 처를 위시한 등장 인물 하나하나의 대화를 세심하게 읽으면서 그 속에 내포된 작가의 정신과 목소리를 찾아 내야 한다.

3. <토막>의 갈등 관계

이 작품에는 뚜렷한 반동 인물이 없다. 명서네 가족은 모두 한마음으로 아들 명수가 돌아와 이 비참한 현실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기만을 바라고 있을 뿐이고, 그것을 가로막거나 방해하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가족들의 욕망(또는 소망)을 좌절시킨 존재는 과연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당대 현실이다. 명서네 가족을 구해아 할 명수가 일본에서 노동자 해방 운동에 참여했다가 목숨을 잃게 되면서, 명서네 가족의 소박한 꿈은 무참하게 짓밟히게 된다. 결국 이 작품은 우리 농촌 사회를 황폐화시킨 일본 제국주의의 횡포를 암묵적으로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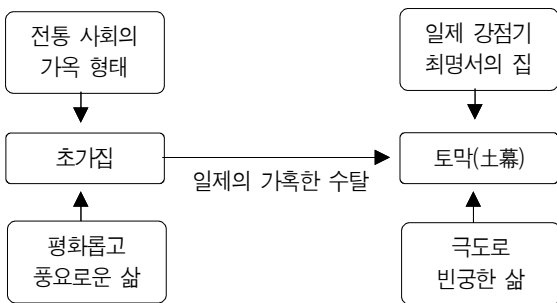
4. 상징적 소재들의 의미



5. 인물의 성격

인물	성격
최명서	극도의 가난과 병고에 시달려 울분과 실의에 찬 늙은 농민. 특별한 민족적 저항감 없이 살아가지만, 아들의 죽음을 확인하고 울분과 저항 의식의 절규를 터뜨린다.
명서의 처	강한 모성애의 소유자. 생활력이 강한 아낙네였지만, 아들의 죽음이 점차 확실해지자 정신 이상을 일으킨다.
명수	실제 무대에 등장하지는 않는 인물. 사건 진행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금녀	명수의 누이동생. 몸이 약하고 어리지만 오빠의 행위에 역사적·민족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인물이다.

6. 제목으로 미루어 본 작가의 현실 인식



★ 작품 독해 팁

1. 토막이란 움막같이 가난한 이들이 사는 허름한 집을 말한다. 당시 많은 자작농들이 땅을 잃고 토막에 살아야 했던 현실을 나타낸다. (이마저도 빼앗기고 유랑의 삶을 사는 이들이 많았다.) 따라서 토막은 일제 강점기, 암울한 우리 민족의 현실을 상징한다.

2. 교재 수록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알아야 한다.

첫째, 명서네 가족(명서-아버지, 명서 처-어머니, 명수-오빠, 금녀-여동생) 중에 명수는 일본으로 돈을 벌러 가 있다. 구장(마을 이장)이 명수 소식을 명서네 가족에게 전해준다. (명수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본에서 감옥에 가게 되었다는 소식) 이 소식을 듣고 명서 처는 크게 놀란다. 이때, 교재 수록 부분에서처럼 이웃 여자가 찾아와 명수 이야기를 전해 듣는다.

둘째, 암탉 궁둥이 - 닭이 언제 알을 낳나 기다리는 것이다. 계란을 팔아 생계를 잇기 때문이다.

사립문의 불 - 예전에는 가로등이 없어 밤에 집을 찾기 힘들었다. 따라서 누가 올 사람(명수)이 있는 집은 문에 불을 켜 놓았다.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본문해설 1

새터 관전이네 머슴 대길이는

→ 구체적 지명 제시를 통해 사실감 부여

★(머슴 대길이가)→ 역사에서 소외당한 하층민이지만 작가가 생각하는 실질적인 역사의 주체 상머슴으로

<누룩도야지 한 마리 번쩍 들어

도야지 우리에게 넘겼지요.

그야말로 도야지 먹 따는 소리까지도 후딱 넘겼지요.>

→ 머슴 대길이의 건강성

밥 때 늦어도 투덜덜 줄 통 모르고

→ 너그러운 대길이가

이른 아침 동네 길 이슬도 털고 잘도 치워 흰히 가리마 났지요

→ 성실성을 갖춘 대길이가

그러나 낮보다 어둠에 빛나는 먹눈이었지요.

→ 총명하고 의기로운 대길이를 시각화

<머슴 방 등잔불 아래

나는 대길이가 아저씨한테 가가거겨 배웠지요.>

→ 일제 강점하의 어려운 상황속에서 한글을 가르친 민족 의식이 강한 대길이가

그리하여 장화홍련전을 주룩주룩 비 오듯 읽었지요.

어린 아이 세상에 눈 뚫지요.

<일제 36년 지나간 뒤 가가거겨 아는 놈은 나밖에 없었지요.>

→ 일제의 탄압으로 인해 한글을 가르치지 못했던 현실 암시

⇒ 힘세고 근면한 대길이가 나에게 한글을 가르쳐 준 일

대길이가 아저씨더러는

주인도 동네 어른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지요.

살구꽃 핀 마을 뒷산에 올라가서

<홀적삼 큰아기 따위에는 눈요기도 안 하고

지게 작대기 뉘어 놓고 먼데 바다를 바라보았지요.>

→ 넓고 깊은 생각을 가진 대길이가

★(먼 데 바다)→크고 넓은 세상

나도 따라보았지요.

우르르 달려가는 바다 울음소리 들었지요.

→ 크고 넓은 세상에 대한 꿈

⇒ 인격적이고 생각이 깊은 대길

찬 겨울 눈더미 가운데서도

덜렁 거드랑이에 바람 잘도 드나들었지요.

→ 추운 겨울 허술한 옷차림으로 지내는 대길이

그가 말했지요.

<사람이 너무 호강하면 저밖에 모른다.

남하고 사는 세상인데>

→ 작가의 주제의식이 표현

→ 대길이의 인생관(함께 살아가는 세상과 삶)

→ 이기적이 아닌 이타적인 사람이 되라는 충고

⇒ 가난하지만 남과 함께 사는 대길

대길이 아버지

그는 나에게 불빛이었지요.

→ 서적화자의 대상에 대한 태도가 응결된 시어(시적화자에게 머슴 대길이는 꼭 필요하고 주변의 어두운 존재를 밝혀주는 등불 같은 존재)

자다 깨어도 그대로 커져서 밤 새우는 불빛이었지요.

→ 대길이 아버지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표현

⇒ 나의 영원한 스승 대길

▣ 작품해설 1

★ 만인보(萬人譜)의 의미

고은은 연작시 <만인보(萬人譜)>를 손바닥만한 창 하나 없이 사방이 벽으로 막혀 있는 무덤과 같은 감방에서 구상했다. <만인보>는 1986-1989년에 걸쳐 쓰여진 총 9권 3천여 편의 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시를 두고 고은은 '이 세상에 와서 알게 된 사람들에 대한 노래의 집결' 이라고 밝혔다. 제목 <만인보>의 '만인' 은 숫자상 '만' 의 뜻이 아닌, 다양한 삶의 초상이 내재하고 있는 모든 존재를 의미한다. <만인보>는 특정 인물을 시적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 사는 이야기' 로서의 실명시(實名詩)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만인보>가 가장 큰 비중을 두고 다루는 대상은 땅꾼. 머슴, 대길이, 따옥이, 화양댁, 도선이 등과 같이 근세사 태동 이후 이 땅에서 흔적없이 살다간 민중들의 삶과 그 애환이다. 작자는 이 작품에서 하나의 사회전기(社會傳記)를 기록코자 시도했으며, 역사상 크나큰 자취를 남긴 사람들과 미약한 서민들의 삶을 공생관계로 해석한다. 따라서, 만인보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바로 우리 주변의 일반 사람들이며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 민족 개개인의 초상이라고 하겠다.

만인보를 통해 시인은 모든 우리 민족 구성원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표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이채를 띠는 것은, 시인에게 삶의 올바른 지향을 감동적으로 일깨워 준 사람들에 관한 몇 편의 '성장시' 다. 가장 강렬하게 각인된 인물은 '꿈' 과 '모험' 의 이미지로 각각 대표되는 아버지와 외삼촌이며, '세상에 대한 전율적 개안(開眼)을 가능케 한 또 하나의 인물로 이 '머슴 대길이' 를 들 수 있다.

■ 성격: 민중적, 회상적, 토속적

■ 어조: 소박하고 친근한 이야기투

■ 특징

- 이야기체의 어조로 소박하고 일상적인 표현을 구사
- 향토적 시어를 통해 토속적인 정감과 민중적 정서를 전달
- 인물의 대사를 직접 인용함으로써 사실감을 강화

■ 제재 : 머슴 대길이가 진술한 민중의 삶

■ 주제 : 함께 사는 삶의 아름다움

■ 출전 : '만인보(萬人譜)' 제1권

■ 구성

- 1연 : 힘세고 근면한 대길이가 나에게 한글을 가르쳐 준 일
- 2연 : 인격적이고 생각이 깊은 대길
- 3연 : 가난하지만 남과 함께 사는 대길
- 4연 : 나의 영원한 스승 대길

★ '머슴 대길이'의 전형성

⇒ 역사 속에 소외받고 천대받는 민중의 상징

⇒ 자기희생적인 인물의 전형(비록 현실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고달픈 삶을 살아가지만 열심히 일하면서 남을 위해 넉넉한 마음을 베풀며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

⇒ 수난의 역사를 극복하는 민중의 원초적인 힘

★ 머슴 대길이의 예찬 태도

하층민으로 천대받으면서도 깨끗하고 근면하게 일하며 항상 넉넉한 마음으로 이웃과 더불어 사는 머슴 대길이가 저씨의 모습을 소박하면서도 친근한 이야기투의 목소리로 시선이 대상의 외면에서 내면으로 이동하면서, 화자에게 어떻게 내면화되었는지를 표현하고 있다

★ 머슴 대길이의 인물됨과 나

머슴 대길이가(힘이 셈, 성실함, 고매한 인격, 한글을 가르쳐 줌 = 민족의식이 깊은 사람, 공동체 의식이 강한 사람)→나(삶의 스승, 삶의 지표, 인생의 등대)

★ 머슴 대길이가 경계한 세대

⇒ 풍족한 삶을 누리면서도 고마워할 줄 모르고 오만을 떨며 감사할 줄 모르며 더불어 살지 않는 사람들의 이기심을 꼬집고 있다

▣ 이해와 감상

'만인보'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분류해 보면 삶의 세 가지 층위가 있다. 시인이 개인적으로 만난 실존적 인물층, 사회 속으로 뛰어들어 만난 사회적, 역사적 인물군으로서의 사회적, 역사적 층과 불교적 체험에서 만난 초월적 층이 그것이다. 이 시의 주인공은 실존적 인물층에 해당한다.

'만인보'는 시인의 말대로 자신이 '이 세상에 와서 알게 된 사람들에 대한 노래의 집결'이면서 '사람에 대한 끝없는 시적 탐구이자 이름없는 역사 행위'라 할 수 있다. '만인보'는 특정 인물을 시적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 사는 이야기'로 실명시(實名詩)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시 가운데 이채를 띠는 것은, 시인에게 삶의 올바른 지향을 감동적으로 일깨워 준 사람들에 관한 몇 편의 '성장시'다. 가장 강렬하게 각인된 인물은 '꿈'과 '모험'의 이미지로 각각 대표되는 아버지와 외삼촌이며, '세상에 대한 전율적 개안(開眼)'을 가능케 한 또 하나의 인물로 '이 머슴 대길이'를 들 수 있다.

그는 단순히 한글을 깨우쳐 주어 '장화홍련전 비오듯' 읽게 해 준 인물에 머물지 않고, '자다 깨어도 그대로 켜져서 밤 새우는 불빛'과도 같은 존재이며 '어둠에 빛나는 먹눈'으로 시각적인 이미지로 형상화 되어 있다. 또한 화자의 직접적인 상대자는 '가지고 있으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며 '사람이 너무 호강하면 저밖에 모른다'라는 인용은 시적 현실의 실감과 진실성을 강화한다. 여기서 대길이는 '함께 사는 삶'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몸소 가르쳐 준 인생의 큰 스승으로 아로 새겨져 있다. 그러나 이 '함께 사는 삶'은 단지 인간 사이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인 대지에 모여 사는 모든 사물에까지 속속들이 적용되는 매우 폭 넓은 개념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온전한 의미의 이 같은 인간주의야말로 '만인보'를 힘차게 관통하는 시인 정신의 저류이다.

'대길이'와 같은 머슴은 소외받고 박해받는 인물군에 속한다. 이들은 크게 보아 역사 과정에서 고달픈 삶을 살아 가는 소외당한 인물들이지만, 삶을 긍정하고 이겨 나가려는 민족적인 삶, 민중적인 삶의 원초적인 모습으로서 전형성을 지닌다. 천대받는 머슴살이 속에서도 깨끗하게 일하며, 남을 위해 넉넉한 마음을 갖고 사람을 사랑하는 인간상이야말로 이 땅, 수난의 역사를 이겨온 원동력이 아닐 수 없다

▣ 본문해설 2

새터 관전이네 머슴 대길이는

상머슴으로

▶ 힘 세고 일 잘 하는 머슴

【누룩도야지 한 마리 번쩍 들어

도야지 우리에 넘겼지요.

*역 : '목'의 사투리

그야말로 도야지 역따는 소리까지도 후 딱 넘겼지요.】

▶ 【】부분 → 대길이가 힘이 장사임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구절임.

밥 때 늦어도 투덜덜 줄 통 모르고

▶ 대길의 너그러운 성격

이른 아침 동네 길 이슬도 덜고 잘도 치워 흰히 가리마 났지요.

▶ 근면 성실한 대길의 모습 *먹눈 → 글을 읽은 줄임.

그러나 낮보다 어둠에 빛나는 먹눈이었지요.

▶ 현실의 어려움(일제)을 극복하고자 하는 희망과 의지가 굳은 사람임./ 4연의 '밤 새우는 불빛'과 연결됨/ 시각적인 묘사①

머슴방 등잔불 아래

*가가거겨 → 한글을 가리킴

나는 대길이 아저씨한테 가가거겨 배웠지요.

▶ 민족 의식이 강하고 배움이 있는 사람임.

그리하여 장화홍련전을 주룩주룩 비 오듯 읽었지요.

어린아이 세상에 눈 뚫지요.

일제 36년 지나간 뒤 가가거겨 아는 놈은 나밖에 없었지요.

▶ 일제로부터 '한글'이 탄압을 받을 때, '한글'을 가르켜줌. → 민족의식이 강함

▶ 힘세고 근면하며 나에게 한글을 가르쳐 준 대길이

대길이 아저씨더러는

주인도 동네 어른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지요.

▶ 인격적으로 곧고 바른 사람이었음을 알려줌.

살구꽃 핀 마을 뒷산에 올라가서

*큰아기 → 다 큰 처녀 *눈요기 → 보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일

홀적삼 큰아기 따위에는 눈요기도 안하고

지게 작대기 뉘어 놓고 먼데 바다를 바라보았지요.

▶ 세속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생각이 넓고 깊은 인물이었음.

나도 따라 바라보았지요.

*바다 울음 → 당시 고통스런 민중의 삶 상징

우르르르 달려가는 바다 울음 소리 들었지요.

▶ 암울한 시대 현실에 설움을 느끼는 대길이 아저씨의 내면 세계를 표현함.

▶ 인격적이고 생각이 깊은 대길이

찬 겨울 눈 더미 가운데서도

덜렁 거드랑이에 바람 잘도 드나들었지요.

▶ 대길의 가난한 삶

그가 말했지요.

사람이 너무 호강하면 저밖에 모른단다.

▶ 주제가 집약된 구절임./ 이기적인 삶의 태도를 경계하면서

남하고 사는 세상인데

▶ 남을 배려하는 더불어 사는 삶이 바로 참다운 삶을 강조함.

→ 대길의 말을 직접 인용 : 사실감과 진실성을 부여함.(=상부상조)

▶ 더불어 사는 삶의 의미를 깨우쳐 준 대길이

대길이 아저씨

*불빛 →희망과 깨달음의 존재

그는 나에게 불빛이었지요.

▶나에게 참된 삶을 일깨워 주었기 때문에

자다 깨어도 그대로 커져서 밤새우는 불빛이었지요.

▶1연과 연관지어, 대길은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희망과 의지가 굳은 인물이었기에.../ 대길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형상화②

▶나의 영원한 스승 대길이

▣ 본문해설 3

새터 관전이네 머슴 대길이는
구체적 지명 : 인물의 사실성 강조
상머슴으로

누룩 도야지 한 마리 번쩍 들어
힘이 센.
도야지 우리에게 넘겼지요

그야말로 도야지 먹 따는 소리까지도 후딱 넘겼지요

밥 때 늦어도 투덜덜 줄 통 모르고
사려 깊고 인내심이 강함

이른 아침 동네길 이슬도 털고 잘도 치워 흰히 가르마 났지요
부지런함
그러나 낮보다 어둠에 빛나는 먹눈이었지요
먹처럼 검은 눈 / 총명함

머슴방 등잔불 아래

나는 대길이 아저씨한테 가가거겨 배웠지요

그리하여 장화홍련전을 주룩주룩 비오듯 읽었지요

어린이 세상에 눈뿔었지요

한글을 깨우치고 세상을 이해함
일제 36년 지나간 뒤 가가거겨 아는 놈은 나밖에 없었지요

대길이 아저씨한테는

주인도 동네 어른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였지요

머슴 신분이지만 인격적인 성품을 갖추었기 때문에
살구꽃 핀 마을 뒷산 올라가서

홀적삼 처녀 따위에는 눈요기도 안 하고

젊은 이성에게 관심이 없음
지겟작대기 뉘어 놓고 먼 데 바다를 바라보았지요
더 크고 넓은 세상을 동경함

나도 따라 바라보았지요

우르르 달려가는 바다 울음소리 들리는 듯하였지요
깊고 넓은 대길이의 포부를 청각적 심상으로 나타냄

찬 겨울 눈더미 가운데서도

덜렁 거드랑이에 바람 잘도 드나들었지요

가난한 삶을 사는 대길이
그가 말하였지요

사람이 너무 호강하면 저밖에 모른단다

남하고 사는 세상이란다

공동체적(이타적) 삶을 강조함

대길이 아저씨

그는 나에게 불빛이었지요

스승, 희망
자다 깨어도 그대로 켜져서 밤새우는 긴 불빛이었지요
삶의 의미를 깨우쳐 준 영원한 스승인 대길이

▣ 작품해설 2

- ◆ 해제 : 이 시는 고은의 연작 시집 “만인보(萬人譜)”에 수록된 작품으로, 시인이 실제로 만났던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다. 머슴 대길이는 시적 화자가 어린 시절 만났던 인물로, 비록 신분은 머슴이었지만 화자에게 올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준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대길이는 머슴으로 소외받고 천대받는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부지런한 생활 태도를 지녔으며, 생각이 깊고 진지한 인물이었다. 또한 화자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어 ‘장화홍련전을 비 오듯’ 읽을 수 있게 해 줬을 뿐만 아니라, ‘함께 사는 삶’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몸소 가르쳐 준 인생의 큰 스승이자 선각자적인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 화자는 이런 대길이를 ‘자다 깨어도 그대로 커져서 밤새우는 불빛’과도 같은 영원한 스승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결국 이 시는 ‘대길이’라는 인물을 통해 민중에 대한 신뢰와 존경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 성격 : 민중적, 토속적, 회상적
- ◆ 제재 : 머슴 대길이
- ◆ 주제 : 민중의 건강성과 함께 사는 삶의 아름다움
- ◆ 특징 : ① 토속적 시어의 사용으로 향토적 정서 전달
 ② 이야기체를 사용하여 친근하고 소박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③ 비유(대유)와 상징적 표현을 통해 시적 대상을 효과적으로 표현함.
 ④ 구체적인 지명과 대사를 직접 인용하여 사실감을 부여하고 있다.
- ◆ 출전 : 「만인보(萬人譜)」(1986)
- ◆ 고은(高銀, 1933~) 본명은 고은태. 시인. 소설가. 수필가. 1952년 입산하여 10여 년 동안 수선(修繕)과 방랑 생활을 하다가 1962년 환속했다. 1970년대 이후 민주화 운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자유 실천 문인 협회 회장, 민족 문학 작가회의 회장 등을 역임했다. “피안감성”(1960), “해변의 운문집”(1964), “신 언어의 마을”(1967) 등의 초기 시집에서는 생의 절망과 허무의 정서를 주로 노래하여 지나치게 탐미적이고, 감상성을 벗어나지 못한 불안정한 정서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다가 1970년에 들어서 “문의 마을에 가서”(1974), “입산”(1977), “새벽길”(1978) 등 허무감을 극복하고 시대에 대한 비판적 안목과 민중 중심의 역사관을 담은 작품들을 발표하였다. 또한 1980년대 이후에는 ‘만인보’, ‘백두산’ 등의 장시를 통해 민중의 삶의 모습을 다채롭게 엮어 나가는 한편 역사에 대한 신념을 서사적으로 구성하기도 하였다. 시 외에 장편 소설 “피안앵(彼岸櫻)”과 수필집 “성(聖) 고은 에세이집”, “인간은 슬프려고 태어났다” 등이 있다.

▣ 시상의 흐름(짜임)

- ◆ 1연 : 성실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대길이가 ‘나’에게 한글을 가르쳐 줌.
- ◆ 2연 : 넓은 세상을 동경하던 대길이가 더불어 사는 삶의 중요성을 일깨워 줌.
- ◆ 3연 : 대길이는 ‘나’의 인생에 불빛과도 같은 존재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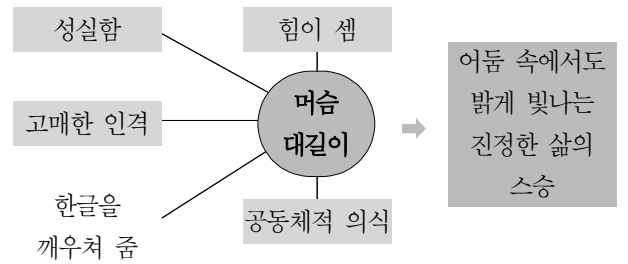
▣ 대길이의 면모와 그가 화자에게 끼친 영향

대길이의 면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제 강점기에 화자에게 한글을 가르쳐 줌. •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지니고 있음.
↓	
화자에게 끼친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글을 배우고 세상을 보는 눈을 갖게 됨. •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깨달음.

▣ 이 시의 어조를 알아보자

이 시의 어조는 마치 시골 사랑방에서 듣는 옛날이야기처럼 소박하고 친근한 느낌을 준다. 특히 '-지요'와 같은 종결형은 시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며, 시적 대상에 대해 화자가 높이 평가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

이 시는 시인에게 올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준 머슴 대길이를 회상하면서 그가 가르쳐 준 삶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하는 '성장시'이다. '대길이'는 단순히 한글을 깨우쳐 주어 '장화홍련전'을 비 오듯'읽게 해 준 인물에 머물지 않고, '자다 깨어도 그대로 켜져서 밤새우는 불빛'과도 같은 영원한 스승이자 선각자적 존재이다. '대길이'는 머슴으로 소외받고 박해받는 인물이다. 그러나 이 시에서 대길이는 '함께 사는 삶'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몸소 가르쳐 준 인생의 큰 스승으로 아로새겨져 있다. 그는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소외당한 인물이지만, 삶을 긍정하고 이겨 나가려는 민족적인 삶, 민중적인 삶의 원초적인 모습으로서 전형성을 지닌다. 즉, 천대받는 머슴살이 속에서 곳곳하게 일하며, 남을 위해 넉넉한 마음을 갖고 사람을 사랑하는 인간상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가치를 전해 주는 스승의 모습인 것이다.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작품해설 1

네는 양주(楊州) **소을히여**
 디위에 신도형승(新都形勝) 이샷다
 기국성왕(開國聖王)이 이 성덕(聖代)를 니르어샷다
 잣다운더 당금경(當今景) 잣다운더
 성수만년(聖壽萬年)하샤 만민(萬民)의 함락(咸樂)이샷다
 아으 다롱다리
 알폰 한강슈(漢江水)여 뒤흔 삼각산(三角山)이여
 덕둥(德重)하신 강산(江山) **즈으메** 만세(萬歲)를 누리쇼셔

<악장가사(樂章歌詞)>

시어 풀이

- * **소을히여**: 고을이여
- * **디위에**: 경계(境界)에, 지경에
- * **신도형승(新都形勝)이샷다**: 새 도읍이 좋은 경치구나
- * **기국성왕(開國聖王)**: 나라를 연 성스러운 대왕, 태조 이성계를 말함
- * **성덕(聖代)**: 태평성대, 평화로운 세상
- * **아으 다롱다리**: 아무 뜻이 없는 여흥구, 조흥구
- * **니르어샷다**: 이루어 놓으셨구나
- * **잣다운더**: 성(城), 도성(都城)답구나
- * **당금경(當今景)**: 지금의 경치
- * **함락(咸樂)**: 즐거움을 누리
- * **알폰**: 앞은, 앞에는
- * **덕둥(德重)하신**: 덕이 많으신, 지덕(地德)이 후한
- * **즈으메**: 즘음에, 사이에

■ 현대어 풀이

옛날에는 양주 고을이었다.
 이 자리에 새 도읍이 좋은 경치로구나. (1-2행 새 도읍의 아름다운 경치)
 나라를 여신 거룩한 임금께서 태평성대를 이룩하셨도다. (태조의 성덕)
 도성답구나. 지금의 경치, 도성답구나. (새 도읍의 아름다운 경치)
 임금께서 만 년을 누리시어 온 백성이 함께 누리는 즐거움이기도다. (태조의 성덕)
 아으 다롱다리 (여흥구)
 앞에는 한강물이여, 뒤에는 삼각산이여, (새 도읍의 지리적 조건)
 복덕이 많으신 강산 사이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소서. (임금의 만수무강 기원)

■ 시구 연구

- * 1행: 한양의 옛날 명칭을 소개하여, 오래 전부터 사람들이 살았던 유래 깊은 것임을 은연 중에 강조하고 있다.
- * 2행: '-이샷다'라는 감탄형 어미를 사용하여 조선 건국의 핵심 주체로서의 당당함과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다.
- * 3행: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공덕을 기리고 있다. 고려를 멸하고 조선을 건국한 것이 바로 백성을 위한 일이었다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다.
- * 4행: 1,2행에서 노래한 새로운 도읍지인 한양의 아름다운 경치를 다시 한 번 반복하여 한양이 도읍지로서의 자격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 * 5행: 임금께서 수명을 만년까지 누리시어 온 백성이 함께 누리는 즐거움이기도하다.
- * 6행: 여음구. 밝고 흥겨운 느낌을 준다.
- * 7행: 큰 강과 큰 산을 갖춘 한양의 지리적 조건을 밝히고 있다.
- * 8행: 임금의 만수무강을 기원하고 있다.

■ 핵심 정리

- * 작가: 정도전
- * 연대: 태조 3년
- * 갈래: 악장
- * 형식: 속요체 형식의 8구체 비연시(非聯詩)
- * 성격: 송축가
- * 특징: 목적성이 강함
- * 어조: 조선 건국 주체로서의 당당한 어조
- * 제재: 태조의 공덕, 한양 천도 찬양
- * 주제: 태조의 덕과 한양의 지세를 찬양하고 태조의 만수무강을 송축
- * 의의: 전대의 문학 양식을 계승하지 않은 새로운 형식으로, 특권층의 문학, 목적성의 문학이다. 따라서 그 수명이 길지 못했다.

■ 정도전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학자. 본관 봉화(奉化). 자 종지(宗之). 호 삼봉(三峰). 1362년(공민왕 11) 진사, 이듬해 충주사록(忠州司錄)을 거쳐 전교시주부(典敎寺主簿)·통례문지후(通禮門祇候)를 지내고 부모상으로 사직하였다. 1370년 성균박사가 되고 이어 태상박사(太常博士)를 거쳐 예조정랑 겸 성균태상박사(禮曹正郎兼成均太常博士)가 되어 전선(銓選)을 관장하였다. 1375년(우왕 1) 성균사예(成均司藝)·지제교(知製敎) 등을 역임하였고 이 해 권신 이인임(李仁任)·경복흥(慶復興) 등의 친원배명(親元排明)정책을 반대하다가 회진현(會津縣)에 유배되었다.

1377년 유형을 마치고 고향 영주(榮州)에서 학문연구와 후진교육에 종사하며, 특히 주자학적 입장에서 불교배척론을 체계화하였다. 1383년 동북면도지휘사(都指揮使) 이성계(李成桂)의 막료가 되었고 이듬해 성절사(聖節使) 정몽주(鄭夢周)의 서장관이 되어 명(明)나라에 다녀왔다. 1385년 성균좌주(成均祭酒), 이듬해 남양부사(南陽府使)로 있다가 1388년 이성계의 천거로 성균대사성(成均大司成)에 승진하였다.

이성계의 우익으로서 조준(趙浚)과 함께 전제개혁론을 주장, 1389년(창왕 1) 밀직부사(密直副使)로 승진하였고 창왕(昌王)을 폐위하고 공양왕(恭讓王)을 옹립하는데 적극 가담하여 봉화현충의군(奉化縣忠義君)에 책록되었다. 1390년(공양왕 2) 경연지사(經筵知事)로 성절사 겸 변무사(聖節使兼辨誣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와 동판도평의사사사 겸 성균대사성(同判都評議使司事兼成均大司成)·삼사부사(三司副使) 등을 역임하였다.

그 해 조민수(曹敏修) 등 구세력을 몰아내고 전제개혁을 단행하여 과전법(科田法)을 실시하게 함으로써 조선 개국의 정치·경제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듬해 이성계가 군사권을 장악하여 삼군도총제부(三軍都摠制府)를 설치하자 우군총제사(右軍摠制使)가 되고 이어 정당문학(政堂文學)으로 재직 중, 구세력의 역습으로 탄핵을 받아 관직을 박탈당하고 봉화로 유배되었다. 1392년 한때 풀렸으나 정몽주의 탄핵으로 투옥되었고 정몽주가 살해된 뒤 풀려나와 조준·남은(南閔) 등과 함께 이성계를 추대, 조선 건국의 주역이 되었다.

그 공으로 분의좌명개국공신(奮義佐命開國功臣) 1등에 녹훈되고, 문하시랑찬성사(門下侍郎贊成事)·예문춘추관사(藝文

春秋館事)에 임명되어 사은 겸 정조사(謝恩兼正朝使)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1394년(태조 3) 한양천도 때는 궁궐과 중요 의 위치 및 도성의 기지를 결정하고 궁·문의 모든 칭호를 정했다.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을 찬진하여 법제의 기본을 이룩하게 하고 1395년 정총(鄭摠) 등과 《고려사》 37권을 찬진했으며, 1397년 동북면도선무순찰사(都宣撫巡察使)가 되어 성을 수축하고 역참(驛站)을 신설했다. 제차 왕자의 난 때 이방원(李芳遠)에게 참수되었다.

유학(儒學)의 대가로 개국 후 군사·외교·행정·역사·성리학 등 여러 방면에서 활약하였고, 척불송유(斥佛崇儒)를 국시로 삼게 하여 유학의 발전에 공헌하였다. 글씨에도 뛰어났으며 저서에 《삼봉집(三峰集)》 《경제육전(經濟六典)》 《경제문감(經濟文鑑)》 《심기리편(心氣理篇)》 《불씨잡변(佛氏雜辨)》 《심문천답(心問天答)》 《진법서(陳法書)》 《금남잡제(錦南雜題)》 등이 있고, 작품에 <납씨가(納氏歌)> <정동방곡(靖東方曲)> <문덕곡> <신도가(新都歌)> 등이 있다.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 참고(악장)

악장(樂章)은 궁중의 공식 행사에서 쓰이던 노래, 제왕(帝王)의 위업을 찬양하는 노래를 말한다. 당연히 왕조마다 악장이 존재했는데, 신라 유리왕의 「도솔가」, 제사 지낼 때 역대 왕들의 위업을 칭송하던 고려 시대의 음악 등을 악장으로 꼽을 수 있다. 하지만 문학에서 보통 악장이라 부르면 특별히 조선 시대의 것만을 가리킨다.

악장은 조선 시대 초기에 집중된다. 낡은 왕조를 쓰러뜨리고 새 왕조를 세운 주역들, 즉 하륜, 권근, 변계량 같은 신흥 사대부들이 당당한 자신감으로 새 나라의 앞날을 축복하기도 하고, 조선이 서게 된 것이 하늘의 뜻임을 홍보하는 음악을 지은 것이다.

시기뿐만 아니라 내용도 한쪽으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 내용은 조선 건국의 정당성, 태조의 위업 찬양, 왕조의 번영 기원 등이다. 물론 『월인천강지곡』 같은 불교 서사시도 있지만 그것은 악장이 절정에 달했을 때의 이야기이고, 대부분 처음 시작한 왕조와 관련된 내용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아무리 옛 음악을 정리하고 새 노래를 만들어 낸다 해도 없는 곡을 새로 만드는 데에는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악곡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예전의 악곡에다 새로운 가사를 붙이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당시에 알려진 형식은 한시, 경기체가, 고려 가요 등이 주를 이루었으니, 악장은 이들의 형식을 조금씩 빌어야 했다. 이런 까닭으로 악장은 따로 구분될 만한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 다만 내용이 다른 시가와는 달리 교술적(敎述的)인데다 왕조 찬양 등 특별한 것이어서 내용상의 공통점으로 악장의 갈래를 묶는 것이다.

그러나 건국 초기에 그렇게 많이 창작되던 악장은 얼마 가지 않아 문학적 정착을 얻지 못하고 쇠퇴해 버렸다. 그것은 첫째, 악장이 원래부터 음악이 주가 되는 것이어서 가사가 따로 독립될 성질이 되지 못했고, 둘째, 악장이 처음부터 홍보용이라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 왕조 초기의 불안함이 사라지자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어쨌든 『용비어천가』, 『월인천강지곡』이 나오기 전까지 꾸준히 악장이 지어지면서 예악의 정리 작업이 왕성하게 이루어졌다. 조선 태조는 이 일을 건국 1등 공신인 정도전에게 맡기었다. 이 일을 맡은 정도전은 스스로도 많은 악장을 창작했다. 「납씨가」, 「정동방곡」, 「문덕곡」, 「몽금척」, 「수보록」 등은 그의 문집 『삼봉집』에 한시 형태로 전한다. 「신도가」는 『삼봉집』엔 없지만 『악장 가사』에 국문 시가의 형태로 남아 전한다.

■ 해설 1

‘신도가’는 새롭게 수도로 정한 서울이 매우 훌륭한 곳이란 것을 찬양한 악장이다. 그 전에는 양주의 조그만 고을에 불과했던 이곳이 이제는 한 국가의 흥망성쇠를 짊어질 수도로 된 사실과 그 번성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지은 작품으로 보인다.

작품의 내용 중 ‘디위에’는 ‘경계에’라고 풀이하고 있기도 하지만 ‘디위’는 시간, 때, 횡수를 나타내는 말이다. 따라서 이 말은 여기서는 ‘이제는, 지금은’ 정도로 옮겨 주는 것이 좋을 듯하다. 따라서 이 문장은 “이제는 새로운 수도의 모

습이로구나."로 된다.

■ 해설 2

조선은 태조 2년(1393)에 고려의 수도인 개성을 버리고 한양으로 천도(遷都)하였다. 정도전은 이 일 또한 주도적으로 처리하였다. 여기에 실린 「신도가」는 새로운 도성인 한양의 경관을 찬양하며, 그 곳에서 뜻을 펼칠 새 임금을 찬양하는 노래이다. 이제 작품을 살펴보자.

형식면에서 볼 때, 이 작품은 6행의 여음구 ‘아으 다롱다리’ 를 기준으로 하여 앞뒤가 나뉜다. 앞 부분이 크고 뒷 부분이 작기 때문에 전대절(前大節), 후소절(後小節)이라 한다. 전체적으로 많이 쓰인 3음보격과 ‘아으 다롱다리’ 라는 여음구는 아무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려 가요의 형식을 연상하게 한다.

1행은 ‘예전에는 양주 고을이었던 곳이어.’ 의 의미다. 곧 한양이 예전에는 양주 고을이었다는 것을 말한다. 2행의 ‘디위’ 는 ‘지경, 경계(境界)’ 이고, ‘신도형승’ 은 ‘새 도읍의 좋은 경치’ 이다. 그러니 2행은 ‘지경에 새 도읍이 좋은 경치로다.’ 정도로 해석된다. 이것은 새롭게 정한 도읍 한양의 모습이 뛰어난 것을 읊은 것이다. 3행은 개국 성왕 즉 조선 태조가 성대(聖代) 즉 어진 군주가 다스리는 시대를 이룩했다는 내용이다. 4행은 ‘도성답구나 지금의 경치가 도성답구나.’ 하는 감탄이다. 이 구절은 <고려사> 「악지」 속악조에 나오는 「양주곡(楊州曲)」에도 보이는 것이다. 고려 가요와의 연관성을 더욱 확실하게 증명하는 대목이다. 5행은 ‘성수만년’ 즉 ‘임금의 수명이 만년’ 또는 ‘왕조의 세월이 만년’ 이란 것이니 태조의 장수 또는 조선 왕조의 영원함을 기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오랜 수명을 누리고 ‘온 백성이 함께 즐거움을 누리리라.’ 는 축원이다.

1행은 한양의 역사를, 2행은 지극히 아름다운 경치를, 3행은 태조의 위업을, 4행은 새 도성의 느낌을, 5행은 태조와 나라의 즐거운 미래를 노래한 것이 전절의 내용이다.

7행은 한양의 지리적 조건, 앞에는 한강이 흐르고, 뒤에는 삼각산이 있다는 내용이다. 8행은 덕이 많으신 혹은 덕을 쌓으신 강산 사이에 오랜 세월을 누리길 바라는 것으로, 다시 새 왕조의 앞날을 축복하고 있는 대목이다.

전체 내용으로 보아 어떤 구체적인 묘사는 없다. 그저 ‘~샷다’, ‘~ㄴ더’, ‘~쇼셔’ 등의 영탄을 사용하며 새 도읍을 대한 감동을 노래하고 있을 뿐이다. 이 작품은 표현상 감탄 어구와 함께 순우리말로 되어 있으며, 고려 가요의 형식을 빌어 사용했다는 특징이 있을 뿐이다.

정도전은 중국의 한(漢)을 세우는 데 가장 공이 높았던 장량과 자신을 비교하곤 하였다. 그만큼 정도전이 조선 건국에 세운 공은 지대하며, 혼신의 힘을 기울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새로운 도성에 대한 그의 애정 또한 남다르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정도전의 「신도가」는 고려 가요에서 형식을 빌고 강건하면서도 기원적인 어구를 사용해, 새로운 도읍 한양과 새 나라 조선에 대한 송축의 노래를 담은 악장이라 할 수 있다.

<독서평설-지학사>

■ 해설 2

조선 초기에 악장 문학이 성행한 까닭은 문학 외적인 이유에서라고 생각할 수 있다. 즉 고려의 멸망과 함께 조선 왕조의 창업기에 민심(民心)을 수습하고 건국의 정당성을 홍보하려는 정치적 필요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작자인 정도전은 바로 조선 창업의 일등 공신으로서 건국 초기 제도 정비와 왕조를 공고히 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 특권 귀족층의 한 사람이었다. 이 작품을 통해 그는 태조의 공덕을 기리며, 한양으로 도읍을 옮긴 것이 천명(天命)에 의한 것이었음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새로운 도읍의 아름다운 경치에 대한 묘사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이념을 담아 예찬의 어조로 진술하고 있는 것도 위와 같은 시대적 상황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다. 문학을 수단으로 하여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려한 노래의 하나로서, 이 노래는 조선 초기의 정치·사회적 상황을 유추할 수 있게 해 준다.

■ 해설 3

새 도읍을 찬양한 이 노래는 한시(漢詩)로는 전하지 않고 국문 악장만 전한다. 이것은, 정도전의 '납씨가', '정동방곡', '문덕곡' 등과 같은 다른 악장 작품들이 한시와 국문 악장으로 함께 존재하는 것에 비해 특이한 점이다. '신도가'는 표현 면에 있어서 한자어가 많고, 율격은 안정되어 있지 않지만, 서술 어미를 모두 감탄형으로 처리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국문 악장이 한시에 토(吐)를 단 초보적 수준을 벗어나 독자적인 한 장르를 형성하였음을 이 작품에서 알 수 있다. 내용상으로는 천도(遷都)를 하고 새 서울 건설 사업을 벌여 나라의 위엄을 높이며 자손 만대의 번영을 기약하고자 하는 뜻을 잘 나타내고 있다. 영탄의 반복과 '누리쇼셔'의 기원으로 끝맺은 것은 악장체 송축가로서의 특색을 잘 나타낸 것이다.

▣ 작품해설 2

네는 楊州 | ㅅ올히여
양쥬

디위에 新都形勝이샷다.
신도형승

開國聖王이 聖代를 니르어샷다
기국성왕 성덕

쟈다운더 當今景 쟈다운더
당금경

聖壽萬年 ㅎ샤 萬民의 咸樂이샷다.
성슈만년 만민 함락

아으 다롱다리

알픈 漢江水여 뒤흔 三角山이여
한강슈 삼각산

德重 ㅎ신 江山 즈으메 萬歲를 누리쇼셔.
덕둥 강산 만세

<악장가사(樂章歌詞)>

1. 단어 풀이

- 네는 : 예는. 옛날에는.
- 양쥬(楊州) | : 양주의, 양주에 있는.
- ㅅ올히여 : 고을이여. 고을이었도다.
- 디위에 : 지경에. 경계(境界)에. '디위'는 다음 4가지의 뜻이 있다. ① 경계, ② 경지, ③ 번(番), ④ 목수.
- 신도형승(新都形勝)이샷다 : 새 도읍지의 경치가 빼어났도다.
- 기국성왕(開國聖王) : 나라를 세운 성스러운, 훌륭한 임금. 곧 태조 이성계를 말함.
- 성덕(聖代) : 성군이 다스리는 축복받은 세대.
- 니르어샷다 : 일으키시었도다.
- 쟈다운더 : 성(城)답구나.
- 當今景(당금경) : 지금의 경치.
- 함락(咸樂)이샷다 : 모두의 즐거움이시도다.
- 德重(덕둥) : 복덕(福德)이 많으신.
- 즈으메 : 사이에. 즈음에.

· 만세(萬歲) : 오랜 세월. 오래도록 삶

2. 구절 풀이

- (1) 네는 楊州(양주) 고을히여 : 조선의 도읍지인 한양 땅은 옛날에는 양주 고을이었다.
- (2) 디위에 新都形勝이샐다. : 이 지경에 새 도읍이 좋은 경치이구나!
- (3) 開國聖王이 聖代를 니르어샐다 : 나라를 여신 거룩한 임금(이성계)께서 어진 임금이 다스리는 좋은 세상을 이룩하시었도다.
- (4) 잣다운더 當今景(당금경) 잣다운더 : 도성답구나, 지금의 경치, 도성답구나. 1,2행에서 노래한 새로운 도읍지인 한양의 아름다운 경치를 다시 한번 반복하여 한양이 도읍지로서의 자격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 (5) 聖壽萬年히사 萬民의 咸樂이샐다. : 임금께서 수명을 만년토록 누리시어 온 백성이 다 함께 누리는 즐거움이시도다.
- (6) 아으 다롱다리 : 여음구. 밝고 흥겨운 느낌을 준다. 전대절(前大節)과 후소절(後小節)을 구분해 주는 역할을 한다. 고려 속요의 여음구와 유사하다. ('동동'-아으 동동(動動)다리, '서경별곡'-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링디리 등)
- (7) 알픈 漢江水(한강수)여 뒤흔 三角山(삼각산)이여 : 한양의 앞쪽에는 한강물이 흐르고, 뒤쪽에는 삼각산이 에워싸고 있도다. 큰 강과 큰 산을 갖춘 한양의 지리적 조건을 밝히고 있다.
- (8) 德重(덕동)히신 江山(강산) 즘메 萬歲(만세)를 누리소서 : 복덕이 많으신 강산 사이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소서. 임금의 만수 무강(萬壽無疆)을 기원하고 있다.

3. 전문 풀이

옛날에는 양주 고을이었다.
이 자리에 새 도읍이 좋은 경치로구나.
나라를 여신 거룩한 임금께서 태평 성대를 이룩하셨도다.
도성답구나, 지금의 경치, 도성답구나.
임금께서 만년을 누리시어 온 백성이 함께 누리는 즐거움이시도다.
아으 다롱다리.
앞에는 한강물이며, 뒤에는 삼각산이며,
복덕이 많으신 강산 사이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소서.

4. 이해의 초점

- 1~2행 : 신도 형승 찬양. 옛날에는 일개 고을에 불과한 곳이었지만 이제는 한 나라의 도읍지로서 빼어난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하여 이 태조가 도읍지를 한양으로 옮긴 뒤에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예찬하고 있다.
- 3~6행 : 태조의 성덕 찬양. 3행에서의 개국 성왕은 곧 이 태조로서 고려 왕조의 뒤를 이어 새 왕조를 건설했음을 찬양하고 있다. 4~5행은 명실상부한 한 나라의 수도로서 손색이 없다고 한양을 찬양한 뒤에, 이 태조가 오래도록 살면서 백성들이 즐거움을 누리게 해달라고 축원하고 있다. 마지막 6행의 '아으 다롱다리'는 무의미한 여음으로서 고려 속요에 보이는 여음을 본받고 있다.
- 7~8행 : 조선의 무궁한 발전과 태조의 만수 무강 기원. 배산임수(背山臨水)라는 풍수지리적 조건에 걸맞는 한양에서 어진 덕을 쌓으면서 만수 무강하라는 내용으로 의도적인 목적성이 잘 드러난 부분이다.

5. 감상의 길잡이 (1)

'신도가'는 조선을 개국하고 송도에서 한양으로 천도했을 때, 새 도읍지에서 느낀 환희와 임금의 만수무강을 기원한 노래이다. 조선 초기의 창업을 기리는 노래의 하나로 속요체의 악장이다. 조선 건국의 핵심 주역이었고, 새로운 수도를 정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작자 정도전의 새 나라에 대한 긍지와 낙관적인 전망이 예찬의 어조로 일관되게 표현되어 있다.

6. 감상의 길잡이 (2)

이 노래는 조선의 건국을 찬양한 악장의 하나이다. 악장이란 궁중 연악(宮中宴樂)과 종묘 제악 때의 공식적으로 불

려진 송축가로서, 일정한 형식이 없고, 한시체, 속요체, 신체, 경기체가체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어졌다.

이 노래는 조선 창업의 일등 공신인 정도전이 태조의 공덕을 기리며, 한양으로 도읍을 옮긴 것이 천명(天命)에 의한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새로운 경치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태조의 성덕을 찬양하고, 만수무강을 빌고 있다. 새로이 도읍을 정하고 개국을 한 후의 노래로서, 고려 속요의 가락을 바탕으로 지은 노래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7. 감상의 길잡이 (3)

조선 초기에 악장 문학이 성행한 까닭은 문학 외적인 이유에서라고 생각할 수 있다. 즉 고려의 멸망과 함께 조선 왕조의 창업기에 민심(民心)을 수습하고 건국의 정당성을 홍보하려는 정치적 필요성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작자인 정도전은 바로 조선 창업의 일등 공신으로서 건국 초기 제도 정비와 왕조를 공고히 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 특권 귀족층의 한 사람이었다. 이 작품을 통해 그는 태조의 공덕을 기리며, 한양(漢陽)으로 도읍을 옮긴 것이 천명(天命)에 의한 것이었음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새로운 도읍의 아름다운 경치에 대한 묘사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이념을 담아 예찬의 어조로 진술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다. 문학을 하나의 수단으로 하여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노래의 하나로서, 이 노래는 조선 초기의 정치, 사회적 상황을 유추할 수 있게 해준다.

8. 악장(樂章)

궁중의 여러 의식과 행사 및 연례(宴禮)에 쓰인 노래의 가사, 즉 종묘 제향(宗廟祭享)이나 공사 연향(公私宴享)에서 불리어지던 조선 초기의 송축가(頌祝歌)를 이른다.

조선의 국기(國基)가 공고히 다져지고 모든 제도가 정비·개혁되면서부터 차차 조선의 건국과 문물 제도를 찬양하고, 임금의 만수 무강과 자손의 번창을 축원하는 노래를 지어 부르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특권층 귀족의 다분히 목적성을 띤 문학이었기 때문에 얼마간 성행하다가 성종 때 그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이를 형태별로 보면, 한시체, 속요체, 경기체가체, 신체 등으로 나뉘며, <악학궤범>, <악장가사>, <시용향악보> 등에 실려 전한다.

9. 악장체 작품

작 품 명	종 류	작 자	연 대	내 용
용비어천가	신체 (新體)	정인지 외	세종 29	창업의 정당성
월인천강지곡	"	세종	세종 31	석가 공덕의 찬양
신도가	속요체	정도전	태조 초	새 도읍지 찬양과 태조의 성덕 송축
유림가	"	미상	세종	새 왕조의 건국의 유교 정치 찬양
감군은	"	상진	명종	임금의 성덕을 찬양
상대별곡	경기체가	권근	세종 초	사헌부의 위용 찬양
화산별곡	"	변계량	세종 초	조선 개국의 창업을 찬양
문덕곡	한시체	정도전	태조 초	태조의 문덕을 찬양
정동방곡	"	"	"	태조의 위화도 회군 찬양
납씨가	"	"	"	태조의 원나라를 물리친 공훈을 찬양
봉황음	"	윤회	세종	조선 문물 제도와 왕가의 태평 기원

10. '신도가'의 내용과 형식적 특징 (1)

'신도가'는 '아으 다롱다리'라는 여음구를 경계로 하여 전대절과 후소절로 나뉘어 있다. 전대절에서는 새로운 도읍지인 한양의 아름다운 경치에 대한 예찬과 함께,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성덕을 예찬하고 있다. 후소절에서도 한양의 지리적 조건 소개와 함께, 태조의 만수 무강을 기원하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도읍과 태조를 함께 노래한 것은, 조선 건국의 핵심 주체이자 한양으로 도읍을 정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작자의 이력과 관련이 있다.

'신도가'는 고려 속요와 비슷하게 3음보격의 여음구를 가지고 있어 고려 속요의 형식을 취하면서, 조선 초기의 시가에 흔히 쓰인 '~이샷다', '~이여', '~나타', '~쇼셔' 등의 감탄 어구를 지닌 송축가이다. 한양 천도 직후에 지어진 것이어서 그런지 표현이 구체적이거나 사실적이지 못하고 직설적이고 포괄적이라는 한계를 지닌다.

11. '신도가'의 내용과 형식적 특징 (2)

'신도가'는 이름 그대로 조선이 건국되어, 송도(松都-개성)에서 한양(漢陽)으로 천도(遷都)했을 때, 새 도읍지에서 느낀 환희와 임금의 만수 무강을 기원한 노래이다. '신도가'의 형식은 고려 가요와 비슷한 3음보격으로 되어 있다. '아으 다롱다리'라는 후렴구를 중심으로 전후절을 구분하고 있는데, 앞의 절은 크고[전대절(前大節)] 뒤의 절은 작다[후소절(後小節)]. 전후절로 구분한 점에서는 경기체가와 비슷하며, 표현 방법 및 후렴에서는 고려 속요의 형식을 취하면서 조선 초기의 시가에 흔히 쓰이는 '-샷다', '-여', '-나타', '-쇼셔' 등의 감탄 어미를 지닌 대표적인 송축가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천도(遷都) 직후에 지은 것인만큼, 천도의 기쁨과 왕조의 영원 무궁함을 기원하는 데 그치고 있다.

12. 작자 : 정도전(鄭道傳, ?~1398) : 교과서 204쪽 참조

조선 개국 공신, 학자, 문신, 호는 삼봉(三峰). 작품으로는 '납씨가(納氏歌)', '정동방곡(靖東方曲)', '문덕곡(文德曲)' 등의 악장 및 시조 1수가 있으며, 저서에 <삼봉집(三峰集)>이 있다.

정도전은 이기 철학(理氣哲學)에 의해서 고려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고 조선 왕조를 건국하는 이념을 수립하였다. 이기 철학은 고려 말 신흥 사대부의 사상을 수용하였고, 신흥 사대부가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사고 방식을 논리적으로 발전시키고 실천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으로 이용하였다. 사물의 존재나 현실 자체를 존중하면서 인륜의 근본이 되는 포괄적인 원리를 찾으려는 노력은 신흥 사대부가 지배적인 위치를 굳혀가는 과정에서 뚜렷하게 되었고, 모색된 원리에 의해 사회를 재구성하려는 실천적 활동은 조선 왕조를 건국하는 데 이르러서 더욱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되었다. 이 시기의 가장 중요한 사상가가 바로 정도전이다.

13. 출전 : <악장가사(樂章歌詞)>

고려 이후에서 조선 초까지의 악장과 속요를 모은 시가집. 현찬자와 연대는 미상이나 중종 때의 박준(朴浚)이 편집했다는 설이 있다. 고려 속요를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이다.

14. 핵심 정리

- (1) 갈래 : 악장
- (2) 성격 : 송축시
- (3) 형식 : 속요체 악장
- (4) 어조 : 조선 건국 주체로서의 당당한 어조
- (5) 주제 : 태조의 덕과 한양의 승경 예찬
- (6) 연대 : 태조 3년
- (7) 출전 : <악장가사(樂章歌詞)>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본문 해설

천하만물이 짝이 있건만 나는 어찌 짝이 없나?
새소리 들어도 회심하고 꽃 핀걸 보아도 비창한데
애고답답 내 팔자야 어찌하여야 좋을거나.
가자하니 말 아니오 아니 가고는 어찌할고.
덴동어미 듣다가서 썩 나서며 하는 말이
가지마오 가지마오 제발 적선 가지말게.
팔자한탄 없을까마는 가단 말이 웬말이오?
잘 만나도 내 팔자요 못 만나도 내 팔자지.
백년해로도 내 팔자요 십칠 세 청상[젊어서 과부가 된 여자]도 내 팔자요.
팔자가 좋을랑이면 십칠 세에 청상될까?
신명도망[운명을 피하여 달아나는 일] 못할지라[인간은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음] 이내 말을 들어보소.

[중략]

춘삼월 호시절에 화전놀음 와서들랑
꽃빛을랑 곱게 보고 새소리는 좋게 듣고
밝은 달은 예사 보며 맑은 바람 시원하다.
좋은 동무 존 놀음에 서로 웃고 놀다보소.[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즐기라는 말]
사람의 눈이 이상하여 제대로 보면 관계참고[어떤 마음으로 인생을 보느냐에 따라 시름도 이겨 낼 수 있음]
고운 꽃도 새겨보면 눈이 캄캄 안보이고
귀도 또한 별일이지 그대로 들으면 괜찮은걸
새소리도 고쳐 듣고[바뀌 듣고] 슬픈 마음 절로 나네.
맘 심자가 제일이라 단단하게 맘 잡으면
꽃은 절로 피는거요 새는 여사 우는거요
달은 매양 밝은거요 바람은 일상 부는거라.
마음만 여사 태평하면 여사로 보고 여사로 듣지.
보고 듣고 여사하면 고생될 일 별로 없소.[인생살이도 마음먹기에 달려 있음 /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 화엄경(華嚴經)의 중심 사상으로, 일체의 제법(諸法)은 그것을 인식하는 마음의 나타남이고, 존재의 본체는 오직 마음이 지어 내는 것일 뿐이라는 뜻이다. 곧 일체의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에 있다는 것을 일컫는다) - 운명에 흔들리지 않는 덴동 어미의 태도]
앉아 울던 청춘과부 황연대각[환하게 모두 깨달음] 깨달아서[의미 중복]
덴동어미 말 들으니 말씀마다 개개 옳애.[모두 옳다]
이 내 수심[과부의 근심] 풀어내어 이리저리 부쳐보세.[놀아 보세] [화전을 부쳐 먹으며 근심을 덜음, 방황을 끝낸 청춘 과부도 화전놀이에 참여]
이팔청춘 이 내 마음 봄 춘자로 부쳐두고
화용월태[(花容月態) : 꽃다운 얼굴과 고운 자태라는 뜻으로,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이르는 말.] 이 내 얼굴 꽃 화자로 부쳐두고
술술 나는 긴 한숨은 세우[가랑비]춘풍 부쳐두고
밤이나 낮이나 술한 수심 우는 새나 가져가게.[봄을 맞이한 자연을 즐기며 시름을 잊음]

▣ 작품 해설 1

■ 핵심정리

- * 갈래 : 규방가사
- * 성격 : 여성적, 사실적, 훈계적
- * 구성
 - 1~5행 : 덴동어미가 고향에 돌아옴
 - 6~28행 : 두견새를 보며 지난 삶을 돌아봄
 - 29~39행 : 청춘과부가 마음을 고쳐 먹고 화전놀이를 즐김
- * 주제 : 한 여인의 기구한 인생 역정
- * 특징
 - 순흥 지방의 화전놀이를 바탕으로 함
 - 덴동어미의 비극적인 일생을 액자 구성을 통해 나타냄
 - 청춘과부와 덴동 어미의 대화로 구성함.

■ 표현상 특징

- 자연의 불변성과 인간의 가변성 대비 → 화자의 암담한 처지 강조
- 두견새를 의인화하고 말을 건넨. → 대상에 대한 친근감과 애정을 드러냄
- 음성 상징어 사용 → 대상을 감각적으로 구체화하여 표현
- 같은 단어의 반복 사용 → 화자의 정서 강조

■ 덴동어미의 사연

삼월에 부녀자들이 화전놀이를 하는 전체적인 내용 속에 '덴동 어미의 사연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작품 분량의 3/4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덴동 어미의 사연은 다음과 같다. 덴동 어미는 임 이방의 딸로 태어나 16세에 예천 읍내의 장 이방 집에 시집을 갔지만, 남편이 단옷날 그네를 뛰다가 떨어져 17세에 과부가 된다. 이후 개가하여 상주 이승발의 후처로 들어가나 과중한 징포로 도산하고, 경주에서 열심히 살아 많은 돈을 벌었으나 남편은 괴질로 죽고 돈을 빌려준 사람들도 모두 죽어 빈털터리 과부가 된다. 다시 울산에서 옹기 장사하는 황 도령을 만나 결혼했으나 산사태로 남편을 잃고 만다. 그 후 주위의 권유로 또다시 옛장수 조 서방과 결혼하여 자녀를 얻었는데, 별신굿에 팔 엿을 고다가 불이 나서 남편은 죽고 아들만 화상을 입은 채 살아난다. 아들의 이름이 덴동이가 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하는 수 없이 덴동 어미는 덴동이를 업고 예순이 다 된 나이로 고향 순흥으로 돌아온다.

■ 덴동어미의 인생관

덴동 어미는 '불에 덴 아이의 어머니'라는 뜻이다. 거듭되는 재가와 경제적인 궁핍, 그리고 남편의 죽음과 자식의 장애를 경험한 덴동 어미의 삶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하면서 비극적이다. 그러나 덴동 어미는 자신의 운명에 순응하면서 삶을 긍정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力說)하고 있다. 즉, 자신에게 닥친 운명에 좌절하면 온 세상이 수심으로 가득하지만 마음을 고쳐 먹으면 세상이 달리 보인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덴동 어미의 말에 감화를 받은 청춘과부는 삶의 깨달음을 얻고 화전놀이를 즐기며 자신의 근심을 해소하고 있다.

■ 감상

경상북도 순흥(順興) 지방의 여인들이 따뜻한 봄철을 맞아 경치 좋은 곳에서 화전놀이를 즐기며 읍은 장편 규방 가사로서, 주로 '덴동어미'의 비극적인 일생을 액자 구성으로 노래하였다. 제시된 부분에서 덴동 어미는 시름에 젖은 청춘과부에게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으니 마음속 근심을 털어버리고 아름다운 경치를 느끼라고 말한다. 이 말에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울던 청춘과부가 깨달음을 얻고 자신의 수심을 자연물에 의지하여 해소하리라고 다짐한다. 기구한 삶의 운명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 내고 삶을 긍정하려는 인식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 작품 해설 2

■ 요점정리

- 지은이 : 작자 미상
- 연대 : 조선 후기
- 갈래 : 규방 가사, 화류가(花柳歌), 화수가(花樹歌), 낙유가(樂遊歌)
- 성격 : 훈계적, 사실적, 여성적, 한탄적
- 구성 : 액자 구성 - 대개 봄을 맞아 화전놀이를 준비하는 과정으로부터 시작, 그 날 화전장에서 하루를 즐기는 모습, 그리고 하산해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과 집에 도착한 뒤의 감회까지 모든 과정을 상세하게 그리고 있다. 순흥 지방의 화전놀이를 바탕으로 '덴동어미'의 비극적인 일생을 액자 구성을 통해 나타냄.

도입	화전놀이 권유, 화전놀이 준비, 관습적인 화전놀이 청춘과부의 슬픔과 방황	
액자	덴동 어미 의인생 역 정	<p><u>초혼(16세)</u>-예천 읍내의 장 이방 집: 신랑이 그녀를 뛰다 떨어져 죽음.</p> <p style="text-align: center;">↓</p> <p><u>개가(改嫁)</u>-</p> <p>① 아전 신분의 상주 읍내 이승발: 부자가 되지만 괴질로 남편이 죽고 빈털터리가 됨.</p> <p>② 울산의 황 도령: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남편을 잃음.</p> <p>③ 옛장사하는 조 첨지: 수동 별신굿에 팔 엿을 고다 불이 나서 남편은 죽고 아이는 화상을 입음.</p> <p style="text-align: center;">↓</p> <p><u>귀향(歸鄉)</u>-60대에 덴동이를 업고 고향인 순흥으로 돌아옴. 옛 한 고리를 이고 화전놀이에 참여함.</p>
결말	청춘과부의 깨달음, 화전놀이의 진정한 즐거움, 화전놀이의 마무리와 내년 놀이의 기약	

- 주제 : 조선 후기 어느 여인의 비극적이고 운명적인 삶
- 특징 : 형식은 4·4조가 기초를 이루고, 문장 투식어(套式語)로 서사에서는 '이야~더라'·'어화~더라'·'저~더라', 본사에서는 '두어라'·'굿처라'·'어화', 결사에서는 '일장춘몽'·'남가일몽' 등이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의의 : 조선 후기 부녀 가사로 당대의 남성 가부장 사회상을 나타냄
- 줄거리 : 아전의 딸이었던 덴동 어미는 아전 집안으로 시집을 갔는데 첫째 남편이 그녀를 타다 떨어져 죽자 열일곱에 과부가 된다. 개가한 두 번째 남편의 집안은 이포가 많아 빚을 갚다가 풍비박산이 났고 남편은 그녀에서 떨어져 죽고, 셋째 남편은 떠돌아다니며 옹기를 파는 옹기 장수였는데 둘이 돌아다니면서 돈을 좀 벌었는데 병이 걸려 죽고 네 번째 남편 조 첨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불에 데어 덴동이가 되었기 때문에 덴동 어미로 불리게 된 것으로 한 여인의 기구한 운명을 노래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조선조 말엽의 가혹한 징세와 지배층의 수탈상, 당대의 화폐 경제의 발달상, 경제적 몰락으로 인한 유랑 생활과 서민들의 궁핍한 생활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어 당대 풍속을 보여주는 자료적 가치도 가지고 있다.

■ 이해와 감상

화전놀이를 소재로 한 규방가사(閨房歌辭). 화류가(花柳歌)·화수가(花樹歌)·낙유가(樂遊歌) 등으로도 불린다.

이 작품은 중인층에서 하인층으로 몰락해가는 과정과 그로 인해 드러나는 하층민의 가난한 생활, 그리고 덴동어미의 억척같은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덴동어미의 삶은 고진감래(苦盡甘來)라는 말보다는 역경(逆境)의 반복이라는

표현이 옳을 듯하다.

하지만, 덴동어미는 그런 자신의 삶에 잠시 비관의 빛을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오히려 세상만사에 자유자재하게 되었다. 옛 한고리 이고 참여한 화전놀이도 남보다 먼저 신명을 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신명을 전이(轉移)시키고 있는 것이다.

덴동어미의 파란만장한 일생을 통해 조선 후기 사회상을 조금은 엿볼 수 있는 작품이라는 데 의미가 있겠다. 즉 조선 후기 도시화 과정에서 서민의 억척같은 장사 행위와 모진 세상에서 굳세게 살아가는 서민의 모습을 이 작품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삼월 삼짇날이나 청명절 등 봄에 일기가 좋은 날을 택해 부녀자들이 산이나 승지(勝地)를 찾아가서 하루를 즐기는데, 이 때의 상화(賞花)놀이를 화전놀이(꽃달임) 또는 화류놀이·꽃놀이라 부르고, 그 장소를 화전장(花煎場)이라 한다. 화전장은 주로 사방이 트여 잘 보이는 나즈막한 산봉우리가 많다.

여인들은 그 곳에서 준비해 간 음식과 진달래 꽃전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또 지필묵(紙筆墨)으로 현장에서 창작·윤작(輪作), 독송(獨誦)·윤송(輪誦) 등의 규방 가사로 가회(歌會)를 여는 것이 상례처럼 되어 있다.

이 때 지은 가사를 화전가라 한다. 화전가는 이처럼 현장에서 짓기도 하지만, 미리 지어 오거나(이 때 남편이 지어 주기도 함.) 또는 화전놀이가 끝난 뒤 집에 돌아와 그 날 하루를 돌이키며 그 감회를 글로 남기기도 한다.

내용은 대개 봄을 맞아 화전놀이를 준비하는 과정으로부터 시작, 그 날 화전장에서 하루를 즐기는 모습, 그리고 하산해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과 집에 도착한 뒤의 감회까지 모든 과정을 상세하게 그리고 있다. 단락을 나누면 서사(序辭)·본사(本辭)·결사(結辭)·발사(跋辭) 등 네 부분으로 구분된다.

먼저 서사에서는 만화방창(萬化方暢)한 꽃 시절을 맞는 영춘송(迎春頌)으로부터 시작된다. 이어서 화전놀이의 날짜와 장소, 경비를 정해 시비(侍婢)나 노파를 시켜 통문(通文)을 돌리고, 부모님의 허락을 받은 뒤, 경비를 추렴하는 과정이 묘사된다.

본사는 화전놀이 당일 요란하게 몸치장을 하고 출발하는 모습과, 화전장에 도착해서 준비해 온 음식을 나누어 먹기도 하고, 또 직접 그 곳에서 화전·화면 등을 만들어 먹으며 문중 이야기나 집안 자랑, 시집살이 이야기 등으로 꽃을 피우며 즐겁게 노는 광경이 묘사된다. 그러면서도 산에서 사방을 둘러보며 자기 친정이나 동기간을 그리워하는 모습도 함께 나타나 있다. 이어서 분위기가 전환되면서 선비들을 흥내내는 '풍월(風月)놀이'와 '잡가타령' 등의 흥겨운 놀이로 분위기가 고조된다.

결사에서는 하산해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노래하고 있으며, 아쉽게 끝나 버린 하루해를 '춘몽'·'남가일몽(南柯一夢)' 등과 같이 허무적 표현으로 끝내고 있다.

마지막 발사 부분은 작품의 제작 연대 및 간지(干支), 지은이의 택호(宅號) 등과 가사를 짓게 된 연유, 아랫사람들에게 주는 충고와 경계의 격언 등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화전가는 화전놀이를 소재로 하고 있으며, 가사 내용 가운데 "근친길이 제일이요 화전길이 버금이라."(상주 지방)라는 말이 있듯이, 새봄을 맞아 상춘(賞春)한다는 의미와 함께 시집살이의 굴레에서

하루만이라도 벗어나고 싶어하는 부녀자들의 간절한 염원이 잘 나타나 있다.

형식은 4·4조가 기초를 이루고, 문장 투식어(套式語)로 서사에서는 '이야~더라'·'어화~더라', 본사에서는 '두어라'·'굿처라'·'어화', 결사에서는 '일장춘몽'·'남가일몽' 등이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본문 해설

[앞부분의 줄거리] 명나라 때 주생은 과거에 실패하고 떠돌다가 어릴 적 친구 배도를 만나 사랑을 나누지만, 승상의 딸 선화를 본 후 변심하여 선화와 연인이 된다. 사랑을 잃은 배도는 괴로워하다가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고, 주생은 선화와 헤어지지만 우여곡절 끝에 혼인하기로 한다. 때마침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주생은 종군 서기[행정병]로 징집된다.

마침내 주생은 조선에 이르렀다. 주생은 안주 백상루에 올라 옛날풍의 칠언시를 지었다. 그 시 전편은 남아 있지 않은데 마지막 네 구절이 이러했다.

시름 안고 홀로 강가 누정에 오르니
첩첩이 푸른 산[장애물] 어찌 그리 많은지.
고향 바라보는 내 눈길[고향에 대한 그리움] 가로막지만
시름이 오는 길은 끊지 못하네.

이듬해인 계사년(1593) 봄에 명나라 군대가 왜적을 대파하고 경상도까지 내려갔다. 이때 주생은 선화를 그리워 하다 [전지적 작가 시점] 마침내 깊은 병이 들어 군대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개성에 머물러 있었다.

당시에 나는 마침 불일이 있어 개성에 갔다가 그곳의 여관에서 주생을 만났다.[시점의 전환, 1인칭 관찰자 시점] 우리는 말이 서로 통하지 않아 글로 대화를 주고 받았다. 주생은 내가 한문을 잘하는 것을 보고는 자못 후하게 대해 주었다. 내가 주생에게 병든 이유를 묻자 주생은 근심 어린 표정을 지으며 대답하지 않았다. 그 날은 비가 내려 발이 묶였기에 밤에 불을 밝히고 주생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주생은 「답사행」 한 편을 내게 보여 주었는데, 그 노랫말은 다음과 같았다.

기댈 곳 없는 외로운 그림자
이별의 한 토로하기 어려운데
강가 나무 위로 돌아가는 기러기 줄지어 나네.
객창의 가물거리는 등불에 이미 놀란 마음이어늘
황혼녘 빛소리[객관적 상관물, 그리움을 심화]를 어이 차마 들을꼬.

낭원[중국의 지명, 가고자 하는 곳]의 구름 아득하고
영주[중국의 지명, 가고자 하는 곳]의 바다[장애물]는 막혀 있나니[대구]
주렴[구슬 발] 드리운 옥루[옥으로 장식한 건물]는 어디쯤인지?
외로운 내 신세 부평초[개구리밥처럼 정처 없이 떠돌아 다니는 신세] 되어
하룻밤에 오강[중국의 강]으로 흘러갔으면.[고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나는 그 노랫말에 담긴 뜻이 궁금해서 무슨 사연이 있는지 누차 간절히 물었다. 이에 주생이 그 전말을 알려준 것이 바로 지금까지의 이야기이다.

주생은 또 가방에서 책을 한 권 꺼내 보여 주었다. 책 제목은 『화간집(花間集)』으로, 주생이 선화 및 배도와 주고받은 시 100여 편이 실려있고, 또 동료들이 이들의 시를 읽고 써준 시가 10여 편 들어있었다. 주생은 눈물을 흘리며 내게 도시를 간절히 부탁했다. 나는 원진의 「회진시」 형식을 본떠 30운의 배율[한시의 종류]을 지어서 책의 끝장에 써주며 이렇게 위로했다.

“대장부의 근심은 공명을 이루지 못한 데 있을뿐이오. 천하에 어찌 미인이 또 없겠소? 더구나 이제 조선이 이미 평화를 찾았으니 황제의 군대가 곧 돌아가게 되지 않겠소. 동풍은 이미 주랑편이니 교씨가 남의 집에 갇히리라는 걱정은 하지마시오. * ”

이튿날 아침 작별인사를 하는데, 주생은 거듭 고맙다고하며 이렇게 말했다.

“제 얘기는 한바탕 웃음거리에 불과하니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건 없어요.”

주생은 나이가 스물일곱이었는데, 얼굴이 수려해서 바라보면 마치 그림 같았다.[재가가인]

- 권필, 「주생전(周生傳)」

*

동풍은 이미 ~ 하지 마시오. : 적벽대전에서 동풍이 불어 오나라가 승리함으로써 주유(=주량)의 바람대로 아내 소교(=교 씨)를 조조에게

빼앗기지 않았다는 『삼국지』 내용을 활용하여 주생은 주랑에, 주생의 연인 선화는 교 씨에 빗대어 표현함.

▣ 작품 해설 1

▣ 줄거리

촉나라 주생의 이름은 회, 자는 직경, 호는 매천이다. 조상 대대로 전당 땅에서 살았으나, 아버지의 벼슬로 촉에서 산다. 어려서부터 총기가 있어 천재로 통하고 열여덟에 태학생이 되어 주위의 부러움을 샀으나, 번번이 과거에 떨어지자 깨닫기를, '인생이 무상한데 어찌 과거에 의해 공명에 매이겠는가'하고는, 작은 배를 타고 오에서 촉으로 장사를 하며 강호 유람으로 살아간다.

술에 취해 옛 고향 전당에서 노닐던 중, 옛 여자 친구 배도를 만난다. 기생이 된 배도는 아름답고 재주도 많았으며 도가 있어, 이들의 우정은 사랑으로 바뀌어 도덕에 얽매어 고민하다가 어느 날 문득 사랑을 실행한다. 육체의 아름다움에 탐닉한 주생은 아름다운 시를 지으며 도덕군자로 지내다가 배도의 남자관계를 의심한다.

어느 날 주생은 과부 승상 집에 갔다가 승상의 딸 선화를 본 뒤 그리워한다. 배도의 결백은 드러나나, 배도에게서 선화의 글재주가 뛰어나다는 이야기를 듣고 선화를 정복하리라 마음먹는다. 무르익은 배도의 육체보다 선화의 어리고 탄탄한 몸에 충동을 느끼자, 배도의 소개로 승상집 아들 국영의 선생이 되어 출입하게 된다. 주생은 선화를 그리다가 선화의 시에 화답하고 선화와 잠자리를 같이 한다. 매일 밤 몰래 여러 담을 넘어 드나든다. 어느 날, 선화가 주생의 집에서 배도의 시를 보고는 질투가 나서 먹칠을 하고는 자기의 시를 써넣는다. 승상 부인이 주생을 의심하여, 주생을 술 취하게 한 뒤 집을 뒤져 선화의 시를 발견하고는 자기 딸과의 관계를 알아차리고 주생을 다그쳐 사실을 듣는다.

이에 선화는 병이 나고, 약한 국영이 병으로 죽으며, 배도도 병들어, 선화와 결혼하고, 자신을 주생이 다니는 길가에 묻어 달라며 죽는다. 실의에 빠진 주생은 인생무상을 느끼며 배도를 묻고 정처 없이 배로 방랑하다가 친척의 도움으로 선화와 결혼한다.

이 때, 조선에 왜적이 쳐들어와 원군으로 참전하였다가 병이 나서 누워 있던 중, 나는 송경의 역관에서 그를 만나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다.

- (1) 주생은 어려서부터 글재주가 뛰어났지만, 과거에 실패하고 장삿길로 나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녔다.
- (2) 그는 우연히 어렸을 때 친구로 지금은 기생이 된 배도를 만나게 된다.
- (3) 주생은 배도의 아름다운 자태와 시재(詩才)에 이끌리어 깊은 사랑을 하게 된다.
- (4) 어느 날, 노 승상 댁의 딸 선화를 본 뒤부터 주생의 마음은 선화에게 옮겨간다.
- (5) 주생은 승상 댁 아들 국영에게 글을 가르치게 되면서부터 그리던 선화와 사랑을 나누게 된다.
- (6) 두 사람의 관계를 안 배도는 주생의 배신에 괴로워하다 병들어 늙게 된다.
- (7) 국영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주생과 선화는 만날 길이 없어져 서로 상시병에 시달린다.
- (8) 배도는 비극적 사랑의 슬픔을 간직한 채 죽는다.
- (9) 사랑을 모두 잃은 주생은 외가의 장씨를 찾아간다.
- (10) 그간의 사연을 안 장씨가 노 승상 댁에 사람을 보내, 주생과 선화의 혼인을 주선한다.
- (11) 혼사를 몇 달 앞둔 어느 날, 왜적이 조선에 쳐들어와 명나라는 조선에 파병한다.
- (12) 이 때 주생도 명나라 군사로 조선에 오게 된 뒤, 선화와 영영 소식이 끊기고 만다.

▣ 핵심 정리

■ 갈래 : 한문소설, 단편소설, 애정소설, 액자소설

■ 배경

- 시대적- 선조 때 (16세기 말)
- 공간적- 중국 촉주. 사상적- 실사구시적

- 성격 : 비극적, 사실적,
- 시점 : 전지적 작가시점, 1인칭관찰자 시점
- 특징
 - 삼각 연애에 얽힌 인물들의 갈등을 표현함
 - 역사적 사실이 이야기의 소재로 등장함
 - 전반적인 소재를 현실 생활에서 취하고 사실적인 태도로 묘사함
 - 이야기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시는 전기소설의 양식을 취함
- 주제 : 운명에 대한 인간의 나약성과 비극적인 사랑
- 의의 : 비현실성과 사실성 사이의 교량적 역할(대부분의 고전소설이 비현실적이고 전기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주생전은 조선후기를 시간적 배경으로 설정하여 임진 왜란 과 조선 후기 사회의 계층적, 시대적 혼란상을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출전 : <화몽집>

■ 구성

겉이야기 : '나'와 주생의 만남

속이야기 : 주생-(혼인)- 배도-(대립)- 선화- (연인)-주생

- 발단 : 주생은 어려서부터 글재주가 뛰어났지만, 과거에 실패하고 장삿길로 나서 유랑하게됨
- 전개 : 그는 우연히 어렸을 때 친구로 지금은 기생이 된 배도를 만나게 된다. 어느 날, 노 승상 덕의 딸 선화를 본 뒤부터 주생의 마음은 선화에게 옮겨 간다. 주생은 승상 덕 아들 국영에게 글을 가르치게 되면서부터 그리던 선화와 사랑을 나누게 된다. 두 사람의 관계를 안 배도는 주생의 배신에 괴로워하다 병들어 눕게 된다.(주생과 배도의 만남과 사랑, 주생과 선화와의 사랑)
- 위기 : 국영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주생과 선화는 만날 길이 없어져 서로 상사병에 시달린다. 배도는 비극적 사랑의 슬픔을 간직한 채 죽는다. 주생의 사랑이 결실을 맺지 못한다.
- 절정 : 사랑을 모두 잃은 주생은 외가의 장씨를 찾아간다. 그간의 사연을 안 장씨가 노 승상 덕에 사람을 보내, 주생과 선화의 혼인을 주선한다.
- 결말 : 혼사를 몇 달 앞둔 어느 날, 왜적이 조선에 쳐들어와 명나라는 조선에 파병한다. 이때 주생도 명나라 군사로 조선에 오게 된 뒤, 선화와 영영 소식이 끊기고 만다.

※ 작품 구조상의 특징

- ① 액자 소설의 구조 : 주인공의 만남에 신비로움 부여, 결말 처리에 있어서 비극성과 낭만성을 고도로 승화시킴
- ② 입체적 인물의 등장 : 당대 사회의 변화 양상 반영
- ③ 남녀 이산(헤어짐)과 전쟁(임진왜란) : 극적 긴장도를 높여 나가기 위한 문학적 장치
- ④ 미완성(여운)의 종결 수법 : 비극성과 낭만성의 극대화 도모

★ 신분 상승적 성격과 민중적 소망

이 작품은 다른 작품과는 다른 점이 선비의 신분을 떨치고 장사꾼으로 나서는 주생에게서 새로운 시대 의식을 엿볼 수 있으며, 배도라는 기생은 애정을 통해서 신분을 상승시키려는 민중들의 소박한 삶의 가치관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고전 소설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비현실적인 성격에서 벗어나 상당한 사실성을 획득하고 있다는 점에서 후대 소설의 배경 설정에 리얼리티를 주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 인물의 성격

이 작품에 등장하는 세 인물은 가슴 아픈 애정 때문에 괴로워하고, 운명 앞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고 평범한 인간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이생규장전'이나 '만복사저포기'에 등장하는 남녀의 성격을 이어 받으면서도 후대 소설에 나타나는 인물들의 단서를 보여 주고 있다.

과감하게 과거 시험을 청산하고 천한 직업으로 매도되던 상업에 투신하여 뜻 닿는 대로 떠돌아다니는 주인공 주생의 모습에서 17세기에 시작된 조선 후기적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즉, 몰락 양반층으로서 현실 세계의 모순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현실을 박차고 새로운 삶의 가치를 찾으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 것이다. 배도는 주생과

의 사랑이 자신의 신분 상승에 있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상승의 욕구를 전제로 한 애정은 <춘향전> 같은 후대 애정 소설에 등장하는 기생 주인공의 성격 형성에 선도적 역할을 한 것이 분명하다.

한편, 남녀 관계에 대한 규제가 엄격했던 사회적 분위기에 반해 비밀리에 이성 관계를 갖는 선화는 인간적 정서를 억압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로 내면적 갈등을 겪게 된다. 선화가 적극적인 인물은 아니지만, 내적 욕구 실현을 위해 갈등을 일으키는 인물인 점에서는 '이생규장전'의 최랑과 같은 인물이다.

★ 서술의 태도

이 작품은 '이생규장전'처럼 남녀의 비극적 애정을 다루면서 남성 중심의 서술 태도를 취하고 있다. 서술자는 배도의 비극적 삶보다는 선화와 혼사를 이루지 못한 주생의 비극적 운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은 후대의 <춘향전> 같은 소설이 여주인공의 삶과 의지에 초점을 맞추어 민중적 서술 시점을 취하고 있는 것과 다른 점이다.

★ <주생전>에서의 에로스적 사랑

<주생전>에서의 주인공 주생의 사랑은 에로스적 사랑과 낭만이라는 도식의 전통적 연애소설이다. 주생의 첫 연인 이자 고향 친구인 배도와와의 만남은, 특히 연애소설의 상투적 수법인 운명적 만남으로 시작된다. 조선시대의 다른 많은 소설 작품들에서 찾을 수 있는 이러한 '낭만'은 주종관계로 얽혀 있는 신분의 부자유라는 한계성을 감성의 자유로서 그 자리매김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주생전>은 사랑의 성취를 의도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성취를 향한 과정을 통해 겪게 되는 주인공의 심적 변화와 갈등을 잘 묘사하고 있다. 주생과 기생 배도, 그리고 선화라는 삼각 로맨스 패턴과 배도를 배신하고 선화를 선택하는 과정에서의 심리적 갈등 등이다. 결국 사랑의 완성을 보여주지 못한 <주생전>에서의 사랑은 낭만적이고 정열적이나 순간적이고 성숙되지 못한 쾌락에 더 가깝다.

★ 교량적 성격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작품의 인물의 성격을 보면, 이 작품이 전대 소설과 후대 소설의 매개적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비의 신분을 떨치고 장사꾼으로 나서는 주생은 새로운 시대 의식을 예고하는 것이며, 애정을 통해 신분 상승을 꾀하려 한 배도는 후대 애정 소설에 등장하는 기녀의 전형적 모습이다.

이 작품을 교량적 성격은 전기적(傳奇的)인 비현실성을 극복하고 사실적 배경을 설정하고 있는 데서도 찾을 수 있다. 전대의 소설들이 이승과 저승을 넘나들며, 꿈을 통해 사건을 전개시키는 등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데 비해 이 작품은 임진왜란이 일어날 무렵의 명 나라라는 현실을 벗어나지 않았다. 배경의 사실성을 처음으로 획득하여 후대 소설의 배경 설정에 영향을 준 것이다.

▣ 작품 해설 2

- 연대 : 선조 때 (16세기 말)
- 작가 : 권필
- 형식 : 한문, 애정 소설
- 성격 : 비극적, 사실적,
- 주제 : 운명에 대한 인간의 나약성과 비극적인 사랑
- 의의 : 초기 소설과 후대 소설의 교량적 성격을 지님
- 출전 : 화몽집

■ 줄거리 : 촉주(蜀州)에 사는 주생(周生)은 누차 과거에 실패하자 벼슬이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재물을 팔아 강호를 유람한다. 전당에 이르자 기생 배도(俳桃)를 알게 되어 백년가약을 맺고 배도가 드나드는 노승상(盧丞相) 집에 갔다가 탁월한 학식을 인정받아 승상의 아들 국영(國英)을 가르치게 된다. 또 주생은 승상의 딸 선화(仙花)와도 사랑을 맺게 되나 배도에게 발각되어 헤어지고 배도는 세상을 떠난다. 장씨의 중매로 선화와 정혼했으나 그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 종군, 두 사람은 인연을 맺지 못하고 만다는 내용이다.

■ 구성

발단	주생은 어려서부터 글재주가 뛰어났지만, 과거에 실패하고 장삿길로 나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녔다.
전개	그는 우연히 어렸을 때 친구로 지금은 기생이 된 배도를 만나게 된다. 어느 날, 노승상 댁의 딸 선화를 본 뒤부터 주생의 마음은 선화에게 옮겨 간다. 주생은 승상 댁 아들 국영에게 글을 가르치게 되면서부터 그리던 선화와 사랑을 나누게 된다. 두 사람의 관계를 안 배도는 주생의 배신에 괴로워하다 병들어 늙게 된다.
위기	국영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주생과 선화는 만날 길이 없어져 서로 상사병에 시달린다. 배도는 비극적 사랑의 슬픔을 간직한 채 죽는다.
절정	사랑을 모두 잃은 주생은 외가의 장씨를 찾아간다. 그간의 사연을 안 장씨가 노승상 댁에 사람을 보내, 주생과 선화의 혼인을 주선한다.
결말	혼사를 몇 달 앞둔 어느 날, 왜적이 조선에 쳐들어와 명나라는 조선에 파병한다. 이때 주생도 명나라 군사로 조선에 오게 된 뒤, 선화와 영영 소식이 끊기고 만다.

■ 감상

조선 중기 선조 때의 문인 권필이 지은 한문 전기(傳奇)소설로 필사본. 1권 1책. 촉주(蜀州)에 사는 주생(周生)은 누차 과거에 실패하자 벼슬이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재물을 팔아 강호를 유람한다. 전당에 이르자 기생 배도(俳桃)를 알게 되어 백년가약을 맺고 배도가 드나드는 노승상(盧丞相) 집에 갔다가 탁월한 학식을 인정받아 승상의 아들 국영(國英)을 가르치게 된다. 또 주생은 승상의 딸 선화(仙花)와도 사랑을 맺게 되나 배도에게 발각되어 헤어지고 배도는 세상을 떠난다. 장씨의 중매로 선화와 정혼했으나 그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 종군, 두 사람은 인연을 맺지 못하고 만다는 내용이다.

과감하게 과거 시험을 청산하고 천한 직업으로 매도되던 17세기에 시작된 조선 후기적 특징을 찾아 볼 수 있고, 몰락한 양반층으로서 현실 세계의 모순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현실을 박차고 새로운 삶의 가치를 찾으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볼 수 있으며, 배도는 주생과의 사랑이 자신의 신분 상승에 있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선화는 적극적인 인물은 아니지만, 내적 욕구 실현을 위해 갈등을 일으키는 인물인 점에서는 '이생규장전'의 최랑과 같은 인물이다.

우리 고소설에 흔히 볼 수 있는 비현실적인 요소가 나타나지 않는 이 작품은 삼각 연애를 중심으로 남성의 탐욕과 이기적인 사유, 여성의 선천적인 애욕과 질투심을 그린 것이라 평가되는데, 작자인 권필이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짧은 인생을 불우하게 살다간 자신의 운명을 주인공의 낭만적인 생애로 재생시킨 것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모든 인물들이 불우한 상태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거대한 자연과 운명 앞에 인간이 그 왜소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슬픔을 서정시로 표현, 작품 전체를 우수로 가득 채우고 있다. 그리고 이 글의 서술자는 남성 중심의 서술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서술자는 배도의 비극적 삶보다는 선화와 혼사를 이루지 못한 주생의 비극적 운명에 초점을 맞추

고 있다. 이것은 후대의 춘향전같은 소설이 여주인공의 삶과 의지에 초점을 맞추어 민중적 서술 시점을 취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점이다.

■ 주생전

1593년(선조 26) 권필(權 億)이 지은 것으로 전하는 한문소설. 1권 1책. 필사본. 작품의 말미에 지은이가 봄에 송도에 갔다가 역관(驛館)에서 이 작품의 주인공인 주생을 만나 필담(筆談)으로 그의 행적을 듣고 돌아와 서술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작품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중국 명나라 때에 주회(周檜)라는 청년이 전당에서 살다가 아버지를 따라 촉주로 가서 태학에 다니면서 수차 과거를 보았으나 계속 실패하였다. 과거를 포기하고 장사차 길을 떠나 강호를 유랑하였다. 우연히 고향 전당에 이르러 어릴 때의 벗이었던 처녀 배도(非桃)를 만나 사랑을 나누었다.

배도가 노승상 부인의 총애를 받아 그 집에 드나드는 것을 엿본 주생은 몰래 배도를 따라갔다가 승상의 딸 선화(仙花)의 미모에 혹하여 연정을 품게 되었다. 승상부인은 배도로부터 주생의 탁월한 학식을 듣고 주생을 아들 국영의 스승으로 청하였다. 주생은 배도의 집에서 국영을 가르쳤다.

그러나 선화에 대한 연정을 참지 못하여 왕래의 불편을 핑계로 승상댁에 들어가 국영을 가르치면서 선화와의 밀연에 빠졌다. 이를 알아차린 배도가 원망하자 주생은 배도의 집으로 돌아왔으나 배도에 대한 사랑은 이미 식어 있었다.

배도는 사랑을 잃고 괴로워하다가 죽었다. 국영도 우연히 병사하자 주생은 의지할 곳이 없어 전당을 떠났다. 수천리 밖에서 선화를 그리워하던 중에 이웃 노인의 중매로 선화와 혼인이 성립되어 9월에 혼례를 올리기로 하였다 그러나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주생은 종군서기로 징발되어 선화에게 알리지도 못한 채로 송도까지 와서는 그리움으로 병이 나서 머물러 있던 중에 서술자를 만나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한다. 이에 서술자는 이 이야기를 기록했다.

〈 주생전 〉은 한 젊은 선비와 두 여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비극적인 사랑을 전기형식(傳記形式)을 빌어 그려낸 것이다. 고전소설에서 흔히 보이는 비현실적 요소는 없다. 배경·사건·인물 등이 모두 현실감을 지니고 있다. 주요 인물들이 비극적으로 좌절하고 슬픔을 표현하는 서정시가 수 많이 삽입되어 작품의 전체적 분위기가 우수로 차 있다.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작품 해설 1

▣ 이해와 감상

작자·연대 미상의 고전소설. 필사본·목판본·활자본이 모두 전하며, 이들을 표기문자에 따라 다시 한글본, 한문본, 국한문본으로 나눌 수 있다. 한글본은 효종연간에 전동흘(全東屹)이 평안도 철산부사로 가서, 배좌수의 딸 장화(薔花)와 홍련(紅蓮)이 계모의 흥계로 원통하게 죽은 사건을 처리한 사실담(事實談)을 소재로 하여 쓴 한문본을 대본으로 하여 썼다.

한문본은 전동흘의 6대손 만택(萬宅)의 간청에 의하여 박인수(朴仁壽)가 1818년(순조 18) 12월 1일에 쓴 것이다. 이 한문본은 전동흘의 8대손 기락(基洛) 등이 1865년(고종 2)에 편찬한 <<가재사실록 嘉齋事實錄>>과 <<가재공실록 嘉齋公實錄>>(全庸甲, 1968)에 실려 있고, 국한문본은 <<광국장군전동흘실기 光國將軍全東屹實記>>에 전한다.

한글 필사본은 신암본(薪菴本)과 의산본이 있으며, 한글 목판본은 자암본(紫岩本)·송동본(宋洞本)·불란서동양어학교본(佛蘭西東洋語學校本) 등이 있다. 구활자본(딱지본)은 13종이나 되는데, 특징에 따라 세창본(世昌本, 1915년)·영창본(永昌本, 1915년)을 비롯하여 동명본(同明本, 1915년) 계열로 나뉜다. 이 작품은 공안류소설(公案類小說)인 동시에 가정형계모소설(家庭型繼母小說)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이 한글본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세종조에 평안도 철산에 배무룡이라는 좌수가 있었는데, 그의 부인이 선녀로부터 꽃송이를 받는 태몽을 꾸고 장화를 낳았다. 그리고 2년 후 홍련을 낳았다. 홍련이 다섯 살 때에 부인이 죽자, 좌수는 대를 잇기 위하여 허씨와 재혼하였다.

허씨는 용모가 추할 뿐 아니라 심성이 사나웠으나 곧 삼형제를 낳았다. 허씨는 아들이 생긴 뒤 전부인의 딸들을 학대하기 시작하였다. 장화가 정혼을 하게 되자, 혼수를 많이 장만하라는 좌수의 말에 재물이 축날 것이 아까워 장화를 죽이기로 흥계를 꾸며, 큰 쥐를 잡아 털을 뽑아서 장화의 이불 속에 넣었다가 꺼내어 좌수에게 보이고 장화가 부정을 저질러 낙태하였다고 속여, 아들 장쇠를 시켜 못에 빠뜨려 죽였다. 그 순간 호랑이가 나와 장쇠의 두 귀와 한 팔, 한 다리를 잘라가 장쇠는 병신이 되었다.

이에 계모는 홍련을 더욱 학대하고 죽이려 하였다. 홍련은 장쇠에게서 장화가 죽은 것을 알았고, 또 꿈에 장화가 홍련의 꿈에 나타나 원통하게 죽은 사실을 알려주자, 홍련은 장화가 죽은 못을 찾아가 물에 뛰어들어 죽었다.

그로부터 그 못에는 밤낮으로 곡소리가 났으며, 원통하게 죽은 두 자매가 그 사연을 호소하려고 부사에게 가면 부사는 놀라서 죽었다. 이런 이상한 일 때문에 부사로 올 사람이 없었는데, 마침 정동우(鄭東佑)라는 사람이 자원하여 부사로 부임하였다.

도임 초야에 장화·홍련이 나타나 원통하게 죽은 원인과 원을 풀어줄 것을 간청하였다. 이튿날 부사는 좌수 부부를 문초한바, 장화는 낙태하여 투신자살하였고, 홍련은 행실이 부정하더니 야음을 틈타 가출하고 소식이 없으며, 장화의 낙태물이라고 증거물을 제시하는 것을 보고 사실인 것 같아, 좌수 부부를 훈방하였다.

그날 밤 꿈에 두 소저가 나타나 계모가 제시한 낙태물의 배를 갈라 보면 알 것이라 하고 사라졌다. 이튿날 부사는 다시 그 낙태물을 살피고 배를 갈라 보니 쥐똥이 나왔다. 이에 부사는 계모를 능지처참하고, 장쇠는 교수형에 처하였으며, 좌수는 훈방하였다.

그리고 못에 가서 자매의 시신을 건져 안장하고 비(碑)를 세워 혼령을 위로하였더니, 그날 밤 꿈에 두 자매가 다시 나타나 원한을 풀어 준 일을 사례하며, 앞으로 승직할 것이라 하였다. 그뒤 그 말대로 부사는 승직하여 통제사에 이르렀다.[I]

한편, 배좌수는 윤씨를 세 번째 부인으로 맞았는데, 꿈에 두 딸이 나타나 상제가 전세에 못다한 부녀의 연분을 다시 이으라고 하였다는 말을 전하고, 윤씨부인은 꿈에 상제로부터 꽃 두 송이를 받은 태몽을 꾸고 쌍동녀를 낳아 꿈을 생각하여 장화와 흥련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두 자매가 장성하여 평양의 부호 이연호의 쌍동이와 혼인하여, 아들 딸을 낳고 복록을 누리며 잘살았다.[II]

한문본 및 국한문본의 줄거리는 [I]과 같고, 한글본은 [I]과 환생(還生) 후의 이야기[II]를 합한 것이다.

<장화흥련전>은 계모와 전처자식의 관계에서 빚어질 수 있는 윤리의 문제점과 무능한 가장으로 인해 가정이 파멸되는 비극적 모습을 가족구성원 간의 갈등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그러나 이 작품은 후처제의 제도적 모순과 함께 가장의 무책임을 함께 다루는 현실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계모 허씨를 악인으로, 장화흥련을 선인으로 묘사하여 선·악의 대립에서의 선의 승리하는 방향으로 작품을 이끌어 가고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

▣ 핵심 정리

■ 작가 : 미상

■ 연대 : 조선시대

■ 갈래 : 계모형(繼母型) 가정소설

■ 제재 : 평북 철산(鐵山) 지방에 전해 오던 설화를 소재

■ 주제 : 가정 불화로 인한 한(恨)풀이와 인과응보

■ 의의 : 계모와 전처자식의 관계에서 빚어질 수 있는 윤리의 문제점과 무능한 가장으로 인해 가정이 파멸되는 비극적 모습을 가족구성원 간의 갈등으로 형상화한 작품으로 후처제 의 제도적 모순과 함께 가장의 무책임을 함께 다루는 현실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계모 허씨를 악인으로, 장화흥련을 선인으로 묘사하여 선·악의 대립에서의 선의 승리하는 방향으로 작품을 이끌어 가고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

■ 구조 : '낙원추방 - 고난 - 낙원회귀'형 구조 --- <춘향전>, <심청전>도 이와 같은 구조임

★ 등장인물의 성격

대부분의 고전 소설에 등장하는 계모는 남성적 취향에 따라 각색된 미인형이다. 그런데 이 작품의 계모 허씨는 못생기고 추한 물골의 여인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것은 외부의 신체적 특징을 통해 그 천성이 흉악함을 미리 제시하려는 작가적 의도였을 것이다. 이에 반하여 장화, 흥련은 허씨의 극악무도한 행동에 대하여 불만이나 반감을 갖지 않았다. 허씨에게는 착한 면이 전혀 없고, 장화, 흥련에게는 나쁜 면이 전혀 없다.

한편 배 좌수는 허씨와 재혼한 뒤에도 전 부인의 덕을 말하고 전실 자식인 장화, 흥련에 대한 애뜻한 정을 표면화함으로써 허씨의 시기심을 자극하여 갈등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허씨가 장화를 죽이기 위해 흥계를 꾸밈을 때, 양반의 체통만을 중시하고 사건의 진상 파악에는 소홀하여 장화를 죽게 하였다. 허씨의 적극적이고 악독한 행위에 비해 배 좌수는 너무나 소극적이고 무능하게 묘사되어 있다.

★ 장화흥련전에 나타난 인물들의 갈등 양상

장화흥련전의 뛰어난 점은 인물의 전형성과 인물간의 대립, 갈등 양상이 치밀하다는 점이다. 장화흥련전에 등장하는 인물은 모두가 약간씩 기형적인 성격을 소유하고 있다. 구태의연한 방법인 선인 악인의 대립을 심화시킴에 의해 흥미를 유발시키려 하지만 선인 자체도 약간의 문제성이 있다. 장화흥련은 극심한 어머니 콤플렉스의 소유자, 계모는 열등콤플렉스에 빠져 전처 소생에 대한 학대를 일삼고 자식인 장쇠까지 불행에 빠뜨린다. 배좌수는 우유부단하고 용렬한 인물이라서 갈등을 풀지 못하고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간다. 이와같이 장화흥련전에는 개별 인물의 왜곡된 성격 때문에 인물간에 극도의 대립을 보인다. 이 문제를 풀 사람은 배좌수밖에 없지만 그의 성격 또한 우유부단하기 때문에 중간적 존재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파란으로 몰고갈 뿐이다.

★ 비극적 구조와 그 의미

이 작품의 시간적 배경은 주인공의 일생에 그치지 않고 사후 세계까지 연결되어, 원귀의 출현이 구성상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장화, 흥련의 죽음이라는 비극성이 작품의 핵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특히 주인공 자매는 계모의 끊임없는 학대에도 불구하고 원망이나 적대적 감정 없이 계모를 극진히 섬김으로써, 그들의 죽음은 비극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그러나 장화, 흥련의 죽음은 단순히 비극적 구조를 형성하는 소재적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비장미를 창출하면서 동시에 원통한 일을 해결하고 불의를 바로잡는 계기로서의 의미도 지닌다. 이승에서 소극적이고 순종적이었던 장화, 흥련이 저승의 원혼이 된 후에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한풀이에 나선다. 이런 점에서 그들의 죽음은 새로운 세계를 지향하는 계기이며 자기 갱신의 의미를 담고 있다.

★ 소설 문학에 나타난 한(恨)

소설에 있어서는 개인과 개인의 갈등, 개인과 사회와의 갈등, 또는 개인과 국가(혹은 민족) 사이의 갈등의 심도에 따라 한(恨)이 되기도 하고 원(怨)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즉, 갈등의 심도가 낮으면 한으로, 심도가 깊으면 원(怨)이 되는 것이다. 또, 갈등의 심도가 깊다 할지라도 원이 복수 의지로 발전하지 않고 종교적 해한(解恨)의 차원에서 극복될 때, 즉 한이나 원이 휴머니즘으로 극복 승화될 때 그것은 화해와 사랑으로 정화된다. 여순 반란 사건을 소재로 한 김동리의 '형제'는 원한이 복수로 발전하지 않고 휴머니즘적 인간의 사랑으로 극복된 좋은 예이다.

아무튼, 소설은 시에 있어서보다 인간적 갈등의 심도가 크기 때문에 대부분 원한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타력이나 가학적이 아니고, 자기 마음 속에서 무엇인가 후회하고 회고하고 마음 아파하는 데서 생기는 자한(自恨)이나 회한, 정한이 소설 작품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김시습의 '만복사저포기'나 '이생규장전', 김만중의 '구운몽' 등은 자한의 소망을 작품을 통하여 이루어 본 것들이다. 이와 같은 자한, 회한, 정한은 뒤에 김동인의 '배따라기'나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으로 이어지며, 우리 나라의 서정주의에 가까운 소설들은 모두 이러한 자한, 회한, 정한이 기초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고전 소설에서는 정한보다는 원한을 다룬 작품들이 대부분이다. 개인적인 원한을 다룬 작품으로는 '운영전', '사씨남정기', '장화흥련전' 등이 있고, 궁중의 원한이 나타난 궁중 소설로는 혜경궁 홍씨의 '한중록', 어느 궁녀의 '계축일기'(일명 서공록), '인현왕후전' 등이 있다. 개인과 사회와의 갈등에서 비롯된 결함과

해한이 나타난 작품으로는 허균의 '홍길동전'과 작자 미상의 '춘향전'을 들 수 있다. 또 민족의 원과 한을 다룬 '임진록'은 패배한 민족의 역설적인 해원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나라 현대 소설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이광수의 '무정'에도 망국한이 보인다. '무정'은 바로 원한의 소리이다. 일본 헌병에게 잡혀 감옥살이를 하는 아버지에게 차입하여 줄 것을 사기 위하여 박영채는 기생으로 몸을 판다. 그러나 그 몸값을 중개인에게 사취당하고, 대동강에 빠져 자살하려고 한다. 박영채의 자살 기도 동기는 표면적으로는 정절이 깨어진 데 있지만, 실제로는 이형식에 대한 우회적 복수에 있다. 국권 상실로 인한 망국한이 박영채에게 투영된 것으로, 냉혹한 사회와 이형식에 대한 박영채의 원한은 곧 망국한이다. '무정'의 망국한은 채만식, 염상섭을 거쳐 이무영, 심훈, 김유정, 나도향, 김동리, 박경리, 등의 소설에서 나타나며, 1950년대 이후에는 조국 분단의 한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호철의 '월남한 사람들', 이문구의 '해벽', 김원일의 '노을', 윤희길의 '장마', 전상국의 '아베의 가족', 한승원의 '안개바다', 조정래의 '인간의 탐', 유재용의 '누님의 초상', 현기영의 '순이 삼촌' 등에 분단의 한, 고향 상실의 한, 동족 상잔의 한 등 분단 시대의 민족의 한이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전 소설에서와는 달리, 신소설 이후의 소설에서는 원한이 복수를 통하여 해원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원한 감정은 복수 의지로 해원되지 않고 용서와 화해로 풀려 소설 미학으로 수용되고 있다. 또 가학자(원한을 준 사람) 쪽에서 죄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풀어 주려고 한다. 우리의 현대 소설에서 원한 감정은 휴머니즘으로 극복되고 있으며, 특히 6.25 소설들은 원한 감정을 화해와 용서로 풀어 민족의 동질성을 찾으려 하고 있음은 펍 다행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문순태, 한(恨)>

★ 장화홍련전의 적층문학적 성격

장화홍련전의 소설 구조를 살펴보면 장화와 홍련이 물에 뛰어드는 것을 분기점으로 하여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진다. 그리고 전자는 '계모학대형 소설'의 구조를, 후자는 '공안류 소설'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 작품은 태몽 설화, 적강화소, 청조의 길안내 전설, 원혼의 공청출현설화, 재생환생 설화 등 여러 가지 설화를 포용하고 있다. 이로 보아 이 소설은 어떤 하나의 실담이 소설화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어떤 이야기가 상당한 시간을 지나면서 많은 다른 이야기와 화소들을 첨가시켜 다듬어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즉, 작자에 의한 하나의 창작이라기보다 어떤 이야기의 골격을 중심으로 발전을 거듭한 적층문화적 성격을 지녔다고 봄이 타당하다.

★ <장화홍련전>의 근원설화

1. 계모설화 - 공쥐팔쥐

- 1) 배좌수의 처 장씨가 두 딸을 낳고 갑자기 세상을 떠남.
- 2) 못생긴 허씨가 후처로 들어와 아들 셋을 낳는다.
- 3) 배좌수가 두 딸을 끔찍히 사랑하자 허씨는 딸을 모해(謀害)함.
- 4) 껍질을 벗긴 쥐를 잠든 딸의 이불 속에 밀어 넣고는 딸이 부정을 저질렀으니 가문을 위해 없애 버려야 한다고 배좌수를 설득한 허씨는 아들을 시켜 장화를 죽임. 홍련도 못에 빠져 자결함.

2. 신원(伸冤) 설화 - 아랑의 설화

- 5) 장화 홍련의 혼백이 밤마다 나타나 철산 부사가 죽음
 - 6) 정동우가 철산 부사를 자원하여 원귀의 이야기를 듣고 사건을 해결함.
- (장화가 낳았다는 핏덩이를 가져오게 하여 배를 가르게 하는 판결)

3. 환생(還生) 설화

- 7) 환생을 통해 낙원으로 회귀하는 장화 흥련
- 8) 배좌수의 제3처 윤씨의 쌍둥이로 태어나 성장, 결혼, 행복하게 삶

▣ 줄거리

세종조에 평안도 철산에 배무룡이라는 좌수가 있었는데, 그의 부인이 선녀로부터 꽃송이를 받는 태몽을 꾸고 장화를 낳았다. 그리고 2년 후흥련을 낳았다. 흥련이 다섯 살 때에 부인이 죽자, 좌수는 대를 잇기 위하여 허씨와 재혼하였다.

허씨는 용모가 추할 뿐 아니라 심성이 사나웠으나 곧 삼형제를 낳았다. 허씨는 아들이 생긴 뒤 전부인의 딸들을 학대하기 시작하였다. 장화가 정혼을 하게 되자, 혼수를 많이 장만하라는 좌수의 말에 재물이 축날 것이 아까워 장화를 죽이기로 흥계를 꾸며, 큰 쥐를 잡아 털을 뽑아서 장화의 이불 속에 넣었다가 꺼내어 좌수에게 보이고 장화가 부정을 저질러 낙태하였다고 속여, 아들 장쇠를 시켜 못에 빠뜨려 죽였다. 그 순간 호랑이가 나와 장쇠의 두 귀와 한 팔, 한 다리를 잘라가 장쇠는 병신이 되었다.

이에 계모는 흥련을 더욱 학대하고 죽이려 하였다. 흥련은 장쇠에게서 장화가 죽은 것을 알았고, 또 꿈에 장화가 흥련의 꿈에 나타나 원통하게 죽은 사실을 알려주자, 흥련은 장화가 죽은 못을 찾아가 물에 뛰어들어 죽었다.

그로부터 그 못에는 밤낮으로 곡소리가 났으며, 원통하게 죽은 두 자매가 그 사연을 호소하려고 부사에게 가면 부사는 놀라서 죽었다. 이런 이상한 일 때문에 부사로 올 사람이 없었는데, 마침 정동우(鄭東佑)라는 사람이 자원하여 부사로 부임하였다.

도임 초야에 장화·흥련이 나타나 원통하게 죽은 원인과 원을 풀어줄 것을 간청하였다. 이튿날 부사는 좌수 부부를 문초한바, 장화는 낙태하여 투신자살하였고, 흥련은 행실이 부정하더니 야음을 틈타 가출하고 소식이 없으며, 장화의 낙태물이라고 증거물을 제시하는 것을 보고 사실인 것 같아, 좌수 부부를 훈방하였다.

그날 밤 꿈에 두 소저가 나타나 계모가 제시한 낙태물의 배를 갈라 보면 알 것이라 하고 사라졌다. 이튿날 부사는 다시 그 낙태물을 살피고 배를 갈라 보니 쥐똥이 나왔다. 이에 부사는 계모를 능지처참하고, 장쇠는 교수형에 처하였으며, 좌수는 훈방하였다.

그리고 못에 가서 자매의 시신을 건져 안장하고 비(碑)를 세워 혼령을 위로하였더니, 그날 밤 꿈에 두 자매가 다시 나타나 원한을 풀어 준 일을 사례하며, 앞으로 승직할 것이라 하였다. 그뒤 그 말대로 부사는 승직하여 통제사에 이르렀다.

한편, 배좌수는 윤씨를 세 번째 부인으로 맞았는데, 꿈에 두 딸이 나타나 상제가 전세에 못다한 부녀의 연분을 다시 이으라고 하였다는 말을 전하고, 윤씨부인은 꿈에 상제로부터 꽃 두 송이를 받은 태몽을 꾸고 쌍둥이를 낳아 꿈을 생각하여 장화와 흥련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두 자매가 장성하여 평양의 부호 이연호의 쌍둥이와 혼인하여, 아들 딸을 낳고 복록을 누리며 잘살았다.

평안도 철산 지방에 배무룡이란 좌수가 있었다. 그는 슬하에 자녀가 없다가 부인이 늦게서야 딸 형제를 낳았다. 장화와 흥련 자매는 자랄수록 재모가 뛰어나고 효행이 특출했다. 그러나 부인인 장씨는 병을 얻어 일찍 죽게 된다. 배좌수는 부득이 허씨를 후실로 맞는다. 허씨는 추할 뿐 아니라 심성이 사나웠다. 허씨는 자기의 소생이 생긴 뒤

전실의 딸들을 학대하기 시작하였다. 장화가 정혼을 함에 혼수를 많이 준비하라는 좌수의 말에 재물이 축날 것이 가까워 장화를 죽이기로 흥계를 꾸민다. 허씨는 큰 쥐를 잡아죽여 껍질을 벗긴 후 장화의 이불에 넣어, 장화가 부정을 저질러 낙태했다고 속여 아들 장쇠로 하여금 연못 속에 빠뜨려 죽인다. 그 순간 범이 나타나 장쇠의 두 귀와 한 팔과 한 다리를 잘라가 장쇠는 병신이 된다. 이에 계모 허씨는 흥련까지 학대하고 죽으려고 한다. 흥련은 꿈에 장화가 나타 현몽하여 억울하게 죽었음을 알려 그 사실을 알았다. 견디다 못한 흥련도 장화가 죽은 못을 찾아가 물에 뛰어들어 죽는다.

그로부터 그 못에서는 주야로 곡성이 들렸으며, 원사한 두 자매가 원정을 호소하려고 부사에게 가면 부사는 놀라서 죽었다. 이런 변고로 그곳에 부사로 오려는 사람이 없었는데, 마침 정동우란 사람이 자원하여 부사로 부임하였다. 도입 초야에 장화와 흥련의 원귀가 나타나 원사하게 된 사유를 소상하게 아뢰었다. 부사는 계모 허씨를 철저히 문초하여 죄상을 밝힌 다음 처형하였다. 그리고 못에 가서 자매의 시신을 건져 안장하고 비를 세워 혼령을 위로하였다. 이후 부사는 승직하였다.

한편 배좌수는 다시 부인을 맞아 죽은 두 딸의 현신인 쌍둥이를 낳았다. 자매는 자라서 평양의 거부 이연호의 아들 쌍둥이 윤필, 윤석과 결혼하여 부귀영화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았다.

▣ 작품 해설 2

- 작가 : 미상
- 연대 : 미상
- 형식 : 고전 소설, 가정형 계모소설. 사실담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
- 성격 : 전기적, 교훈적
- 구성 :

기	승	전	결
장화와 홍련이 계모 허씨의 박해를 받으며 자라남	허씨의 모해로 장화가 억울하게 죽고, 홍련도 자결함	원귀가 된 장화와 홍련이 부사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부사는 사건의 내막을 밝혀 허씨와 장식을 처형함	장화와 홍련은 배무룡의 쌍녀로 다시 태어나 부귀영화를 누림

- 주제 : 가족간의 갈등과 권선징악(勸善懲惡)
- 특징 : 선악의 대립구조와 조선 후기 사회의 시대상, 사회상을 사실적으로 반영함. 계모가 다른 고전 소설들과는 달리 추녀로 묘사되었고, 장화와 홍련이 소극적, 순종적 태도가 죽음 이후에 적극적, 능동적 태도로 변화됨.
- 인물 :
 장화, 홍련 : 배무룡의 두 딸로, 계모의 구박과 모해로 억울하게 죽음에 이르게 되나, 자신들의 죽음을 부사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환생하여 행복한 삶을 누림.
 허씨 : 장화와 홍련의 계모로 남편이 장화와 홍련을 아끼는 것에 대한 시기심으로 장화와 홍련을 모해하여 죽음 / 후처제로 인한 가정 불화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그 문제점의 하나로 등장시킨 인물임
 배무룡 : 장화와 홍련의 아버지로 두 딸을 아끼지만, 무능하고 어리석어 허씨의 계략에 속아 두 딸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조선 후기 사회적 혼란기에 여성들의 권리가 급격히 신장되면서 상대적으로 부권이 몰락하는 사회상이 반영된 인물

■ 근원 설화 :

계모 설화	신원 설화	환생 설화
후처인 계모 허씨가 전처의 자식인 장화와 홍련을 시기하고 학대함	장화와 홍련이 원귀가 되어 철산부사에게 나타나 사정을 말하고 원한을 풀게 됨	장화와 홍련이 배 좌수와 세 번째 부인인 윤씨 사이에서 쌍둥이 딸로 환생함

■ 문제 의식

계모 - 허씨	전처 소생 - 장화, 홍련	일부다처제가 빚은 문제 의식	선악의 대립에서 선의 일방적 승리와 문제 상황이 해결되거나 발전되지 못하는 통속적 면모가 있음
허씨의 악행	배 좌수의 무능한 대응	가장 무책임에 대한 문제 의식	

- 줄거리 : 세종조에 평안도 철산에 배무룡이라는 좌수가 있었는데, 그의 부인이 선녀로부터 꽃송이를 받는 태몽을 꾸고 장화를 낳았다. 그리고 2년 후 홍련을 낳았다. 홍련이 다섯 살 때에 부인이 죽자, 좌수는 대를 잇기 위하여 허씨와 재혼하였다.
 허씨는 용모가 추할 뿐 아니라 심성이 사나웠으나 곧 삼형제를 낳았다. 허씨는 아들이 생긴 뒤 전부인의 딸들을 학대하기 시작하였다. 장화가 정혼을 하게 되자, 혼수를 많이 장만하라는 좌수의 말에 재물이 축날 것이 아까워 장화를 죽이기로 흥계를 꾸며, 큰 쥐를 잡아 털을 뽑아서 장화의 이불 속에 넣었다가 꺼내어 좌수에게 보이고 장화가 부정을 저질러 낙태하였다고 속여, 아들 장식을 시켜 못에 빠뜨려 죽였다. 그 순간 호랑이가 나와 장식의 두 귀와 한 팔, 한 다리를 잘라가 장식은 병신이 되었다.

이에 계모는 흥련을 더욱 학대하고 죽이려 하였다. 흥련은 장쇠에게서 장화가 죽은 것을 알았고, 또 꿈에 장화가 흥련의 꿈에 나타나 원통하게 죽은 사실을 알려주자, 흥련은 장화가 죽은 못을 찾아가 물에 뛰어들어 죽었다.

그로부터 그 못에는 밤낮으로 곡소리가 났으며, 원통하게 죽은 두 자매가 그 사연을 호소하려고 부사에게 가면 부사는 놀라서 죽었다. 이런 이상한 일 때문에 부사로 올 사람이 없었는데, 마침 정동우(鄭東佑)라는 사람이 자원하여 부사로 부임하였다.

도임 초야에 장화·흥련이 나타나 원통하게 죽은 원인과 원을 풀어줄 것을 간청하였다. 이튿날 부사는 좌수 부부를 문초한바, 장화는 낙태하여 투신자살하였고, 흥련은 행실이 부정하더니 야음을 틈타 가출하고 소식이 없으며, 장화의 낙태물이라고 증거물을 제시하는 것을 보고 사실인 것 같아, 좌수 부부를 훈방하였다.

그날 밤 꿈에 두 소저가 나타나 계모가 제시한 낙태물의 배를 갈라 보면 알 것이라 하고 사라졌다. 이튿날 부사는 다시 그 낙태물을 살피고 배를 갈라 보니 쥐똥이 나왔다. 이에 부사는 계모를 능지처참하고, 장쇠는 교수형에 처하였으며, 좌수는 훈방하였다.

그리고 못에 가서 자매의 시신을 건져 안장하고 비(碑)를 세워 혼령을 위로하였더니, 그날 밤 꿈에 두 자매가 다시 나타나 원한을 풀어 준 일을 사례하며, 앞으로 승직할 것이라 하였다. 그뒤 그 말대로 부사는 승직하여 통제사에 이르렀다.

한편, 배좌수는 윤씨를 세 번째 부인으로 맞았는데, 꿈에 두 딸이 나타나 상제가 전세에 못다한 부녀의 연분을 다시 이라고 하였다는 말을 전하고, 윤씨부인은 꿈에 상제로부터 꽃 두 송이를 받은 태몽을 꾸고 쌍동녀를 낳아 꿈을 생각하여 장화와 흥련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두 자매가 장성하여 평양의 부호 이연호의 쌍둥이와 혼인하여, 아들 딸을 낳고 복록을 누리며 잘살았다.

■의의 : 계모와 전처자식의 관계에서 빚어질 수 있는 윤리의 문제점과 무능한 가장으로 인해 가정이 파멸되는 비극적 모습을 가족구성원 간의 갈등으로 형상화한 작품으로 후처제의 제도적 모순과 함께 가장의 무책임을 함께 다루는 현실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계모 허씨를 악인으로, 장화흥련을 선인으로 묘사하여 선·악의 대립에서의 선의 승리하는 방향으로 작품을 이끌어 가고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

선인 - 장화, 흥련	선인의 승리 권선징악	결말 단계의 악인에 대한 징계 부분에서 독자들로 하여금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함
대립		
악인 - 허씨, 장쇠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본문해설 1

선달에도 보름께 달 밝은 밤
앞 냇강 짹짹 얼어조이던 밤에

→ 절망적인 현실 인식

내가 부르던 노래는 강 건너갔소!

→ 시구의 반복, 변주(시상의 개폐기능)

→ (노래):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희망과 바람이 담김

→ (노래는 강 건너갔소!): 희망과 바람의 상실로 인한 절망적 탄식

⇒ 겨울밤 강 건너간 노래

강 건너 하늘 끝에 사막도 닿은 곳

→ 부정적 현실로 절망의 공간

내 노래는 제비같이 날려서 갔소!

→ 절망적인 상황

→ (제비) 화자의 분신(희망, 꿈)

⇒ 사막까지 날아간 노래

못 잇을 계집이나 집조차 없다기

→ 그리움의 대상과 조국의 상실

가기도 갔지만 어린 날개 지치면

→ 나약한 존재로서의 화자

그만 어는 모랫불에 떨어져 타 죽겠쥬!

→ 절망적인 상황의 절정

⇒ 날개가 지쳐 떨어져 타 죽을 수도 있는 노래

<사막은 끝없이 푸른 하늘이 덮여

눈물 먹은 별들이 조상오는 밤.>

→ 부정적 시어의 의미 확장(사막): 절망적인 시대 상황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여 당대에 대한 화자의 상황 인식

⇒ 눈물 먹은 별들이 조상하는 밤

밤은 옛 일을 무지개보다도 곱게 짜내나니

→ 잃어버린 옛날의 아름다움을 회상하는 화자

한가락 여기두고 또 한가락 어데멘가

내가 부른 노래는 그 밤에 강 건너 갔소

⇒ 강 건너간 무지개보다 고운 노래

▣ 본문해설 2

[선달에도 보름께 달 밝은 밤

음력 12월

앞내강 짹짹 얼어 조이던 밤]에

[]⇒극한의 추위를 드러내는 시간적 배경(일제 강점기)

내가 부른 노래는 강 건너 갔소

‘갔소’의 반복- 화자의 의지 강조, 운율감 형성

[1연] 추운 겨울 밤 강을 건너간 노래

강 건너 하늘 끝에 사막도 닿은 곳

극한의 장소(가혹한 현실)

내 노래는 제비같이 날아서 갔소

봄이 왔음을 알려주는 새-희망의 메시지(비유)

[2연] 제비같이 날아서 하늘 끝 사막도 닿은 곳까지 건너간 노래

못 잇을 계집애 집조차 없다기에

나라를 잃은 우리 민족

가기는 갔지만 어린 날개 지치면

녹록치 않은 현실에 지침

그만 어느 모래불에 떨어져 타서 죽겠조.

힘겨운 현실을 이겨내지 못할 수도 있음.

[3연] 힘겨움에 모래불에 떨어져 타서 죽을 수도 있는 노래

[사막은 끝없이 푸른 하늘이 덮여

[]⇒힘겨운 현실은 변함이 없고 그에 대해 자연도 슬퍼함-일제강점기의 어려움, 힘겨움, 고난

눈물 먹은 별들이 조상 오는 밤]

남의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는 뜻을 드러내어 위문함.

[4연] 눈물 먹은 별들이 조상 오는 밤

밤은 옛일을 무지개보다 곱게 짜내나니

노래가 퍼져 나간 일

과거에 내가 불렀던 노래를 다시 새겨 봄.

한 가락 여기 두고 또 한 가락 어디맨가

내가 불렀던 노래 내가 앞으로 부를 노래

[내가 부른 노래는 그 밤에 강 건너 갔소]

[]⇒노래가 계속됨. 힘겨운 현실에도 꺾이지 않는 의지.

[5연] 또 다시 강을 건너는 내가 부른 노래

▣ 본문해설 3

[섬달에도 보름께 달 밝은 밤]

[시간적 배경, 절망적인 현실 인식]

앞내강(江) [쟁쟁 얼어 조이던¹⁾ 밤]에

[음성 상징어, 고통스런 식민지의 현실]

[내가 부르던 노래는 강(江) 건너갔소]

[과거 꿈, 희망, 경계, 강 건너의 삶에 대한 깊은 관심]

[강(江) 건너 하늘 끝에 사막(沙漠)도 닿은 곳]

[절망적 현실, 삭막하고 척박한]

내 노래는 제비같이 날아서 갔소

[마음-노래-제비]

[못 잊을 계집애 집조차 없다가에]

[우리민족 조국, 강을 건너 이유= 그리움, 걱정]

가기는 갔지만 어린 날개 지치면

[나약한 존재]

[그만 어느 모래불²⁾에 떨어져 타서 죽겠죠.]

[냉혹한 현실, 절망적인 상황의 설정]

사막(沙漠)은 끝없이 푸른 하늘이 덮여

[눈물 먹은 별들이 조상³⁾ 오는 밤]

[당시의 상황 인식(슬픔과 절망)]

밤은 옛일을 무지개보다 곱게 짜내나니

[과거희상의 매개체]

한 가락 여기 두고 또 한 가락 어디멘가

[고뇌하는 화자]

내가 부른 노래는 그 밤에 강(江) 건너갔소.

[반복(예사높임)]

[어휘 풀이] 1) 쟁쟁 얼어 조이던: 강이 얼어 얼음의 부피가 커지면서 서로 밀치는. 2) 모래불: 좁고 긴 모래 언덕. 3) 조상: 남의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는 뜻을 드러내어 상주(喪主)를 위문하는 것.

▣ 작품해설 1

▣ 이해와 감상

이 시는 화자 자신이 걸어온 길, 추구하던 가치 등을 “내가 부르던 노래”라는 시어를 통해 상징적으로 그리고 있다. 강조차 얼어붙는 겨울밤, 자신이 부르던 노래는 그 현실을 넘어 하늘 끝 사막까지 날아갔음을, 어린 날개가 지쳐 떨어져 사막에서 타 죽었을 수도 있음을 말하고 있다.

화자는 극한적인 현실에서 그에 굴하지 않고 약한 존재이지만 강한 의지로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고 했던 자신의 삶의 태도를 돌아보고 있는 것이다.

1연: 강이 얼어붙을 정도로 추운 겨울밤, 보름달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다.

이 밤, 어둠 속에서 시적 화자가 노래를 부른다. 그의 희망과 바람과 꿈을 담아 노래한다. 하지만 그의 노래는 더 이상 이곳에 들리지 않는다. 강 저편으로 끝도 없이 펼쳐진 삭막한 사막으로 날아가 버렸기 때문이다. 배경이 어둡고 차갑게 느껴지며, 사막이라는 단어에서 숨막힘과 삭막함이 느껴진다. 그리고 희망과 바람이 날아가 버렸기에 절망적인 현실임을 알 수 있다.

2연: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따뜻하고 편안한 보금자리인 집조차 없기에 그 상실감으로 인해 미련 없이 떠나가 버리는 희망과 바람의 노래는 삭막한 사막 위를 날아가다, 더위와 피곤함에 지쳐서 떨어져, 불붙는 모래에 타 죽어버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허무함이 느껴지며, 모랫불에 떨어져 타 죽어버릴 희망을 보며 절망적인 현실을 떠올릴 수 있다. 그리고 그런 현실에서 안타까움이 느껴진다.

3연: 삭막한 사막은 푸른 하늘마저 덮어버린다. 하늘을 덮어버린 사막으로 인해 모든 것은 어둠으로 변해 버린다. 그 어둠 속에서 별이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슬퍼하듯 물기를 머금은 채 힘없이 빛난다. 푸른 하늘 마저 잃어버린데서 처절한 절망감이 느껴지며, 눈물을 머금은 별들에게서 슬픔과 아픔이 느껴진다.

4연: 어두운 밤에 홀로 앉아 지금은 잃어버린 옛날의 아름다움을 추억하는, 회상하는 화자가 보인다. 그가 부르는 희망과 바람의 노래는 그의 걸을 떠나, 여기저기로 어딘지 모를 곳으로 흩어져 버린다. 그가 부른 노래는 그를 떠나 강 저편으로 어둠 속으로 떠나가 버린다. 옛 일을 마냥 앉아서 회상하는 그의 모습에서 허탈감과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린 듯한 인상을 받는다. 그리고 잃어버린 희망으로 인해 슬픔과 안타까움, 절망이 느껴진다.

해석의 핵심 : 금번 ebs 문학 작품 중에서 유일하게 연계가 되지 않은 작품이다. 작품해석이 난해하나 굳이 정확히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부정적 현실이라는 시대 상황에 맞추어 해석하면 어렵지 않은 작품이다. 다만 이육사의 다른 작품에서는 극복 의지가 주로 형상화된 반면, 이 시에서는 암울한 현실에 대한 탄식이 주로 나타난다.

시 해석의 핵심은 제목인 '강 건너간 노래'의 의미이다. '노래'를 이상에 대한 염원으로 해석하고 '강'을 단절로 이해한다면 자신의 이상이 실현되기 힘든 암울한 현실을 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부적인 시구의 의미는 긍정, 부정적 의미의 시어를 구분하여 이해하면 된다. (제비 - 따뜻한 봄과 같은 이상, 밤 사막 - 암울한 현실)

▣ 작품해설 1

■ 핵심 정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제재	노래

- 1) 정서 : 고뇌, 희망
- 2) 태도 : 의지적
- 3) 어조 : 회상적 어조
- 4) 주제 : 현실의 괴로움과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
- 5) 서술상의 특징
 - ①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지난날을 회상함
 - ② 특정 종결 어미를 반복하여 화자의 정서를 부각시킴
 - ③ 첫 연과 마지막 연에 유사한 시행을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운율을 형성함

이해와 감상

이 시는 화자 자신이 걸어온 길, 추구하던 가치 등을 '내가 부르는 노래'라는 시어를 통해 상징적으로 그리고 있다. 강조차 얼어붙는 겨울밤, 자신이 부르던 노래는 그 현실을 넘어 하늘 끝 사막까지 날아갔음을, 어린 날개가 지쳐 떨어져 사막에서 타 죽었을 수도 있음을 말하고 있다. 화자는 극한적인 현실에서 그에 굴하지 않고 약한 존재이지만 강한 의지로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고자 했던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고 있는 것이다.

▣ 작품해설 2

■ 감상 : 부정적 현실 속에서도 바람직한 삶에 대한 희망과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시이다. 이 시에서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은 '뺨뺨 얼'은 강, 하늘 끝에 닿은 '사막'과 같은 공간적 배경과 '밤'과 같은 시간적 배경을 통해 형상화되고 있다. 그와 같은 현실 속에서 화자는 '노래'에 생명력을 부여하여 강 건너 어딘가에 있는 '무지개'와 같은 삶의 희망에 닿고자 하는 의지를 노래하고 있다.

■ 주제 : 부정적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의지

■ 구성

- 01연 : 추운 겨울 밤 강을 건너간 노래, 현실의 괴로움과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
- 02연 : 제비같이 날아서 하늘 끝 사막도 닿은 곳까지 건너간 노래
- 03연 : 힘겨움에 모래불에 타서 죽을 수도 있는 노래
- 04연 : 눈물 먹은 별들이 조상 오는 밤
- 05연 : 또 다시 강을 건너는 내가 부른 노래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성격 : 의지적

■ 특징

- ① 과거 시제를 활용하여 지난날을 회상함
- ② 특정 종결어미를 반복하여 화자의 정서 부각
- ③ 유사한 통사구조를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함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본문해설 1

한 줄의 시는

단 한 권의 소설도 읽은 바 없이

★(시, 소설)→ 정신적 가치

★(시와 소설을 읽는 행위)→참다운 삶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

그는 한 평생을 행복하게 살며

→ 반어적 풍자

<많은 돈을 벌었고

높은 자리에 올라> → 물질적 가치

이처럼 훌륭한 비석을 남겼다

→ 반어적 풍자

(훌륭한 비석)→ 세속적 가치

⇒ 풍자적 대상으로서의 삶의 모습(가치 없고 세속적인 인물의 삶)

그리고 어느 유명한 문인이

→ 그의 일생에 동조하는 曲學阿世(곡학아세)하는 인물(물질문명의 지배를 받는 인물, 물질적 가치를 숭상하는 인물)

그를 기리는 묘비명을 여기에 썼다

⇒ 물질에 아부하는 사람의 풍자(무가치한 삶에 동조하는 세대 풍자)

비록 이 세상이 잿더미가 된다 해도

불의 뜨거움 굳굳이 견디며

이 묘비는 살아남아

귀중한 사료(史料)가 될 것이니

→ 반어적 풍자

⇒ 진실과는 상관없이 이어질 거짓된 역사

역사는 도대체 무엇을 기록하며

→ 정의가 기록되지 않은 현실에 대한 역사적 울분과 반성

시인은 어디에 무덤을 남길 것이냐

→ 시인의 사명에 대한 자문

⇒ 역사와 시인에 대한 성찰

▣ 본문해설 2

한 줄의 시는커녕

굵은 글씨: 정신적 가치

단 한 권의 소설도 읽은 바 없이

그는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며

물질문명의 지배를 받는 인물

많은 돈을 벌었고

높은 자리에 올라

이처럼 훌륭한 비석을 남겼다

반어적 표현

그리고 어느 유명한 문인이

비판의 대상. 부와 권력을 얻기 위한 곡학아세(曲學阿世: 바른 길에서 벗어나 학문으로 세상 사람에게 아첨함)

그를 기리는 묘비명을 여기에 썼다

비록 이 세상이 잣더미가 된다 해도

불의 뜨거움 곳곳이 건디며

이 묘비는 살아남아

마음속으로는 불타 없어지기를 바람

귀중한 사료가 될 것이니

반어적 표현, 비꼬는 말투

역사는 도대체 무엇을 기록하며

정의가 기록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울분

시인은 어디에 무덤을 남길 것이냐

역사적 사명에 대한 자문

- 갈래: 자유시, 서정시
- 성격: 비판적, 풍자적, 반어적
- 제재: 묘비명
- 주제: 정신적 가치가 경시되고 있는 현실 비판(물질을 중시하는 현대인에 대한 비판)
- 특징 ①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이들을 비판하면서 조롱함
② 의미상 대립되는 시어를 사용하여 주제를 강조함

▣ 작품해설 1

★ 감상 POINT

이 시는 "시"와 "소설"로 상징되는 정신적 가치와 "묘비"로 상징되는 세속적 삶을 반어적으로 대비시켜 참된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작품이다. 물질적 삶에 물든 현대인을 풍자적으로 드러내면서, 독자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산문적인 평이한 진술을 통해 일깨워 주고 있다.

■ 성격: 문명 비판적, 물질 문명 비판

■ 주제

- 세속적인 삶에 대한 비판(물질적 가치에 예속된 현대인의 삶 비판)
- 삶의 진실의 추구

★ 반어를 통해 대상에 대한 풍자성을 강화

- 시와 소설을 읽지 않고 행복한 사람 ⇔ 행복하게 산 사람(사실은 불행하게 산 사람)
-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의 묘비명 ⇔ 훌륭한 비석(사실은 훌륭하지 않은 비석)
- 오랜 시간이 지난 후의 묘비명 ⇔ 귀중한 사료(아무런 가치 없는 역사 자료)

■ 이해와 감상(시인의 말)

시인들 가운데는, 릴케처럼 자기의 묘비명을 미리 써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대개는 고인을 추모하는 동시대인들이 작성하거나, 또는 고인이 생전에 남긴 글에서 한 구절을 뽑아서 쓴다.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이정표같은 구실을 하기 때문인지, 동서양의 묘비명 가운데서 명문을 고른다면, 책 몇권의 분량이 넉넉히 될 것이다.

그런데 묘비명과 고인의 행적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특히 돈과 권력을 거머쥐었던 사람들일수록 엄청난 호화분묘와 거창한 묘비명을 남겨서 욕된 이름을 영원히 기억시키려고 한다. 이 헛된 욕망을 어찌할 것인가

■ 이해와 감상

시는 돈이나 지위와는 거리가 멀기만 한 것인가. 사람들은 시 한 줄이나 소설 한 권을 읽지 않고도 한평생 행복하게 살다 갈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작품에서는 이렇듯 근본적으로 외면되고 있는 시와 현대인들의 관계가 풍자되고 있다. 그러나 이때의 풍자는 공격적인 느낌보다는 서글픈 느낌을 갖게 한다.

내면의 심정이나 감상을 표현하는 다른 대부분의 시와 다르게 이 작품은 지적인 느낌을 줄 정도로 감상이 절제되어 있다. 한 사람의 일생이 '그렇게 살다 죽어 비석을 세웠다'하는 정도로 요약되고 있다. 이것은 시인이 삶에 대해 냉철한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시인이 바라보는 세계는 행복하고 만족스럽기만 한 세계는 아니다. 오히려 권태롭고 갑갑할 정도이며 부정적으로 보이는 일상적인 세계이다. 시나 소설을 모르면서 돈과 지위를 얻어 잘 먹고 잘 산다. 죽은 사람이나 그 사람 묘비명이나 써 주고 있는 시인이나 다 풍자의 대상이 된다. 세계를 잣더미로 만들 불 속에서도 그 훌륭한 묘비는 남을 테지만 시인은 어디에 무덤을 남길 것인가? 그것은 이 시대에 시인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도 같다. 이 시대는 시인이 살기에는 너무 어둡고 역사조차 진실을 기록할 것인가라고 의심되는 시대이다.

이 작품은 이러한 부정적인 세계와, 그 속에 살면서 그 세계를 냉정하게 바라보는 태도 사이의 기묘한 마찰에서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것이 우울한 풍자로 나타난다. 시인은 현대에서 아무런 힘도 갖지 못하다는 것을 풍자하지만, 그 우울의 힘은 삶과 역사와 시인 자신에 대해 반성하게 한다. 그 힘은 깊은 인생론의 지혜와 시대에 대한 냉정한 고찰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 작품은 그러한 통찰과 반성을 너무 분명하여 산문에 가까운 명쾌한 문장과 간결한 형태 속에 담아 내고 있다.

해석의 핵심 : 반어가 쓰였다는 것과 끝부분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시 해석의 핵심이다. 끝부분의 내용에서 묘비는 부정적 소재이다. 묘비가 살아남아 귀중한 사료가 된다면 역사는 기록할 것이 없게 되기 때문이다.

역사란 역사적 가치, 후대에 알릴 만한 것을 기록한다. 그러나 이 시의 묘비는 그러한 가치가 없다. 일제 때, 시와 소설은 시대현실과 삶의 진실을 드러내는 대명사였다. [이 시는 일제 때 지어진 시이다.] 따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시와 소설을 읽어야 했다. 그러나 묘비의 주인공은 시와 소설을 읽지 않고 자신의 부귀영화만을 추구했다. 이러한 묘비가 사료-역사의 재료로 남는다면 역사는 차마 이를 기록할 수가 없다. 앞에서 말했듯이 역사란 역사적 가치, 후대에 알릴 만한 것을 기록해야 하기 때문이다.

■ 묘비명의 상징적 의미

묘비명은 고인을 기념하기 위해 묘비에 명문이나 시문을 새긴 것으로, 그 사람의 삶과 추구했던 가치관을 담고 있다. 하지만 묘비명과 고인의 행적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돈과 권력을 거머쥐었던 사람들일수록 엄청난 호화 분묘와 거창한 묘비명을 남겨서 욕된 이름을 영원히 기억시키려고 한다. 이 시에서도 '그'의 묘비명이 과연 물질적인 삶을 화려하게 살다 간 '그'의 실제 삶과 어울리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이 시에서 묘비명은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헛된 욕망이자 현실과 타협한 문인의 타락한 정신을 상징한다.

■ 대립적 소재의 사용

이 시는 대립적 소재의 사용으로 주제를 강화하고 있다. 즉, '시'와 '소설'은 문학의 한 형태로서 (정신적인 가치) 를 대표하며, '그'와 관련된 '많은 돈'과 '높은 지위'는 (물질적 가치) 를 의미한다.

■ 반어적 표현

1연에서 '그'는 한 줄의 시나 단 한 권의 소설도 읽지 않았지만 많은 돈을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처럼 정신적 가치를 경시하고 물질적 가치만 중시한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는 의문이다. 게다가 그런 삶을 산 이에게 명색이 '문인'이라는 사람이 '훌륭한' 묘비명을 써 주었다는 것은 더욱 아이러니하다. 따라서 시인이 '그'를 두고 '이처럼 훌륭한 비석을 남겼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의 삶을 담은 묘비명이 결코 훌륭할 수 없다는 의미를 반어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상징적, 사회 비판적, 반성적
제재	묘비명
주제	물질적 가치가 정신적 가치를 지배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
특징	① 대립적 소재의 사용으로 주제를 강화함. ② 정신적 가치가 경시되는 현실을 (반어적) 으로 풍자함.

▣ 작품해설 2

■ 성격 : 비판적, 풍자적

■ 주제 : 정신적 가치가 경시되는 현실에 대한 비판

■ 특징 :

- 절제된 표현과 요약된 서술을 통해 정신적 삶의 가치가 경시되는 현실을 비판함
- 정신적 가치를 추구해야 할 사람들마저 물질적 가치와 권위에 종속되어 버린 현실을 반어적으로 풍자함

■ 구성 :

- 1-6행 : 정신적 가치를 도외시하고도 물질적 성공을 거둔 사람의 비석
- 7-8행 : 부와 권력에 종속된 문인
- 9-14행 : 시인은 발붙일 곳 없는 정신적 가치가 경시되는 현실

■ 감상

이 작품은 부정적인 세계와, 그 속에 살면서 그 세계를 냉정하게 바라보는 태도 사이의 마찰을 드러내고 있으며, 그것을 우울한 풍자로 나타내고 있다. 오늘날 시인은 아무런 힘도 갖지 못한다는 것을 풍자하지만, 그 우울의 힘은 삶과 역사와 시인 자신에 대해 반성하게 한다. 그 힘은 인생에 대한 깊은 지혜와 시대에 대한 냉정한 고찰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 작품은 그러한 통찰과 반성을 산문에 가까운 명쾌한 문장과 간결한 형태 속에 담아내고 있다.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본문해설

[앞부분의 줄거리]

명나라 가정연간 금릉 순천부에 사는 유현이라는 명신은 늦게야 아들 연수(延壽)를 얻는다. 유공의 부인 최씨는 연수를 낳고 세상을 떠난다. 연수는 15세에 한림학사를 제수받으나 연소하므로 10년을 더 수학하고 나서 출사하겠다고 한다. 천자는 특별히 본직을 띠고 6년 동안의 여가를 준다. 유 한림은 덕성과 재학을 겸비한 사씨와 결혼한다. 사씨는 유 한림과의 금슬은 좋으나 9년이 지나도 출산을 못한다. 이에 사씨는 남편에게 새로이 여자를 얻기를 권한다. 유 한림은 거절하나 여러 번 권하자 마지못해 교씨를 맞아들인다. 교씨는 천성이 간악하고 질투와 시기심이 강한 여자로, 겉으로는 사씨를 존경하는 척하나 속으로는 증오한다. 교씨는 아들 장주를 출산하고는 자기가 정실이 되려고 마음먹고, 문객 동청과 모의하여 남편 유 한림에게 온갖 참소를 다한다. 그 후에 사씨도 아들 인아를 출산한다. 교씨는 장래에 불안을 느껴 동청과 짜고 자신이 낳은 아들 장주를 죽이고, 그 죄를 사씨에게 ('인아 있으니 이제 장주 필요없다'는 누명을 뒤집어씌운다. 유 한림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으나 결국 사씨를 폐출시키고 교씨를 정실로 맞아들인다. 교씨의 간악함은 이에 그치지 않고 문객 동청과 간통하면서 유 한림의 전 재산을 탈취해 도망가서 살기로 약속한다. 동청은 유연수가 천자에 대해 불평한다는 소리를 얻 승상을 통해 고하게 하여 그를 유배시키는 데 성공한다. 집에서 쫓겨나 남쪽으로 간 사씨는 방황을 하다가 선인들의 도움을 받는다.

왕비[여영과 아황 중 한 명, 조력자, 앞일을 암시, 사씨를 위로, 격려]가 웃으며 말했다.

“부인이 이곳[저승]에 오긴 오겠지만 아직 때가 멀었소. 남해 도인[조력자]이 그대와 인연이 있으니 잠깐 의탁하게 될 것이오.[조력에 대한 암시] 이 또한 하늘의 뜻이나라.”

사 씨가 여쭙었다.

“남해라면 바다 끝으로 알고 있습니다. 첩에게는 탈 것이 없고 돈도 없는데 어찌 갈 수 있겠나이까?”

왕비가 말했다.

“조만간 길을 인도하는 자가 있을 것이니 조금도 염려 마라.”

이윽고 좌우에 앉아 있는 부인들을 하나하나 소개했다. 위국 부인 장강*, 한나라의 반첩여*[중국에서 절개를 지켰던 여인들] 등이 있었다. 사 씨가 다소곳이 일어나 머리를 조아리고 말했다.

“뜻밖에도 모든 부인님의 얼굴을 오늘 뵈게 되니 크나큰 영광입니다.”

드디어 하직을 하고 여동의 인도를 받아 내려오는데, 걸었던 주름을 내리는 소리가 요란하였다. 이 소리에 놀라 몸을 일으키니 유모와 시비가 부인이 깨신다 하고 부르거늘 사 씨가 일어나 앉으니 이미 날이 저물었다. 명한 정신이 한참 만에야 진정되었다. 입에서는 향기로운 냄새가 났고 왕비께서 하시던 말씀이 뚜렷했다. 유모에게 물었다.

“내가 어디 갔다 왔느냐?”

유모와 시비가 대답했다.

“부인께서 기절하는 바람에 소인들이 간호하여 이제야 깨어나셨는데 어디를 가셨단 말입니까?”

사 씨가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을 다 말하고 대나무 수풀을 가리키며 말했다.

“분명히 저 길로 갔다 왔으니 어찌 꿈이라 하리오. 믿지 못하겠다면 나를 따라오라.”

그러고는 길을 찾아 대나무 수풀 뒤쪽으로 가니 사당이 하나 있었다. 현판이 걸려 있는데 황릉묘*라고 쓰여 있었다. 분명 아황과 여영[절개를 지킨 순임금의 부인들], 두 왕비의 묘로 꿈에서 본 것과 같았다. 사당 안으로 들어가 살펴보니 두 왕비의 초상화가 걸려 있는데 꿈에서 본 것과 같았다. 이에 사 씨가 향을 피우고 절하며 말했다.

“첩이 왕비의 가르치심을 입어 훗날 좋은 시절을 만나서 영화를 누리게 된다면 어찌 그 은혜를 잊으리까?”

분향을 마친 후 앉아서 신세를 생각하니 슬픔이 밀려왔다.

시비를 시켜 묘지기 집에 가서 밥을 구해 와서는 세 사람이 나누어 먹었다. 이윽고 사 씨가 말했다.

“의지할 곳이 없으니 신령이 나를 놀리시는구나.”[고립무원]

앞길이 막막하여 어쩔 줄 모르는 중 별써 달이 밝았다. 세 사람이 방황하고 있는데 묘문으로 두 사람이 들어와 물었다.

“어려움을 만나 물에 빠지려 하시는 부인이 아니옵니까?”

사 씨가 눈을 들어 자세히 보니 한 명은 여승이고 다른 한 명은 여동이였다. 크게 놀라며 말했다.

“어찌 우리를 아는가?”

여승이 합장하고 말했다.

“우리는 동정 군산[중국 지명]에 사는 사람인데 조금 전 꿈결에 관음보살께서 어진 여자[사씨]가 화를 만나 날이 저물어 갈 곳을 몰라 방황하니 급히 황릉묘로 가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배를 저어 와서 부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해로 가게 됨]

(중략)

한편 한림학사 유연수는 유배지에 도착하니 바람이 거세고 인심이 사나워 갖은 고초를 겪게 되었다. 외로운 가운데 이러한 고생을 하니 예전의 총명함이 점점 돌아와 뉘우치며 말했다. [교씨에게 현혹되었던 성정이 회복됨]

“사 씨가 동청을 꺼렸는데 이제 와서 생각하니 그 말이 옳도다. 어진 아내를 의심했으니 무슨 면목으로 조상을 대하리오.”

밤낮 이런 생각을 하면서 탄식하니 병에 걸리고 말았다. 이곳에는 마땅한 의약이 없었다. 병세는 날로 심해져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하루는 흰 옷 입은 노파[조력자]가 병(瓶)을 들고 와서 말했다.

“상공[대감]의 병이 위독하니 이 물을 먹으면 좋아지리라.”

한림이 물었다.

“그대는 누구인데 유배당한 사람의 병을 구하시오?”

노파가 말했다.

“나는 동정 군산에 사는 사람이다.”

그러고는 병을 뜰 가운데 놓고 사라졌다. 한림이 놀라 일어나니 꿈이었다.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다음 날 아침 하인이 뜰을 청소하다가 들어와 고했다.

“뜰에서 물이 솟아나옵니다.”

한림이 이상하게 여겨 창을 열고 보니 꿈에 노파가 병을 놓았던 자리였다. 물을 한 그릇 떠오라고 해서 마시니 맛이 달고 상쾌한 것이 마치 단 이슬을 먹은 것 같았다. 원래 행주는 수질이 좋지 않은 곳이다. 한림의 병도 그렇게 좋지 않은 물 때문에 생긴 것이었다. 그런데 이 물을 먹은 즉시 병세가 사라지고 예전의 얼굴과 기력을 회복하였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모두 신기하게 여겼다. 이후로도 그 샘은 마르지 않아 마을 사람들이 나누어 마셨다. 이로 인해 물로 인한 병이 없어지자 사람들이 그 샘을 학사정이라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전해진다. [사실성 부여]

- 김만중, 「사씨남정기」-

- * 장강 : 춘추 전국 시대 위나라 장공의 아내.
- * 반첩여 : 한나라 성제의 후궁.
- * 황릉묘 : 순임금의 두 왕비인 아황과 여영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사당.

▣ 작품해설 1

▣ 줄거리

(1) **유연수의 출생과 사씨와의 결혼**: 명나라 가정연간 금릉 순천부에 사는 유현이라는 명신은 늦게야 아들 연수(延壽)를 얻는다. 유공의 부인 최씨는 연수를 낳고 세상을 떠난다. 연수는 15세에 한림학사를 제수받으나 연소하므로 10년을 더 수학하고 나서 출사하겠다고 한다. 천자는 특별히 본직을 띠고 6년 동안의 여가를 준다. 유 한림은 덕성과 재학을 겸비한 사씨와 결혼한다.

(2) **사씨, 아들을 못 낳자 교씨를 권하여 첩으로 들임**: 사씨는 유 한림과의 금슬은 좋으나 9년이 지나도 출산을 못한다. 이에 사씨는 남편에게 새로이 여자를 얻기를 권한다. 유 한림은 거절하나 여러 번 권하자 마지못해 교씨를 맞아들인다. 교씨는 천성이 간악하고 질투와 시기심이 강한 여자라, 겉으로는 사씨를 존경하는 척하나 속으로는 증오한다.

(3) **교씨, 아들을 낳고, 동청과 모의하여 유 한림을 모함**: 교씨는 아들 장주를 출산하고는 자기가 정실이 되려고 마음 먹고, 문객 동청과 모의하여 남편 유 한림에게 온갖 참소를 다한다. 그 후에 사씨도 아들 인아를 출산한다.

(4) **교씨의 모함으로 사씨 폐출, 교씨 정실이 됨**: 교씨는 장래에 불안을 느껴 동청과 짜고 자신이 낳은 아들 장주를 죽이고, 그 죄를 사씨에게 ('인아 있으니 이제 장주 필요없다'는 누명을 뒤집어씌운다. 유 한림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으나 결국 사씨를 폐출시키고 교씨를 정실로 맞아들인다.

(5) **교씨, 동청과 간통, 유 한림 유배시킴**: 교씨의 간악함은 이에 그치지 않고 문객 동청과 간통하면서 유 한림의 전 재산을 탈취해 도망가서 살기로 약속한다. 동청은 유연수가 천자에 대해 불평한다는 소리를 엄 승상을 통해 고하게 하여 그를 유배시키는 데 성공한다. 유 한림을 고발한 공로로 태수(지방관)가 된 동청은 교씨와 함께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는 등 갖은 악행을 저지른다.

(6) **유 한림 소환, 동청 처형**: 조정에서는 태자 책봉과 엄 승상 처형 과정에서 유 한림에 대한 혐의가 풀려, 충신을 참소한 죄로 동청을 처형한다. 유 한림은 비로소 교씨와 동청의 간계에 속은 줄 알고 죄를 뉘우친다.

(7) **사씨와 해후, 다시 정실로**: 고향으로 돌아온 유 한림은 사방으로 탐문하여 사씨의 행방을 찾는다. 한편 남편 유 한림이 돌아왔다는 소문을 들은 사씨는 산사에서 나와 남편을 찾아 나선다. 사씨와 유 한림은 도중에 해후한다. 그리고 유 한림은 사씨에게 전죄를 사과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간악한 교씨를 처형하고 사씨를 다시 정실로 맞아들인다.

▣ 핵심 정리

★ 제목 사씨남정기(謝氏南征記)의 의미

사씨가 가정에서 쫓겨나고, 남편 유 한림이 조정에서 쫓겨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로 보아, 이 작품에서는 당시 조선 사회의 모순과 실상을 적나라하게 비판하기 위해 '남정'이란 의미에 더 중심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부정적 의미)

★ 창작 동기와 주제

숙종이 인현 왕후를 폐출하고 장희빈을 정비(正妃)로 세운 것을 반대하다 귀양을 가게 된 지은이가 숙종의 잘못을 풍간(諷諫: 완곡한 표현으로 잘못을 고치도록 말하는 것)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배지에서 지은 것으로, 숙종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한 목적 소설

또, 작품 창작 동기를 왕에 대한 풍간에 국한시키지 않고, 권선징악을 통한 일부 다쳐 제도 비판이라는 측면으로 확대하려는 견해도 있다.

한편, 이 소설의 주제를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려는 처첩 사이의 갈등'으로 보아, 쟁寵형(爭寵形: 서로 사람을 차지하

기 위해 다툼) 가정 소설로 다루기도 한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강조된 것은 여인의 덕행이다. 특히 사씨가 남편 한림에게 소실을 얻어 아들을 낳도록 주선해 준 일이나, 교씨의 간교로 인해 쫓겨났을 때 친정으로 가지 않고 시부모의 묘소에서 지낸 일 등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부덕(婦德)을 실행하려는 강인한 의지의 발로라 하겠다. 그러므로 이 작품의 주제는 책충이라기보다 오히려 덕행으로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역사적 사실	사씨남정기
인물	숙종 인현왕후 - 아들이 없음 장희빈 - 아들 균(경종)	유연수 사씨(처) - 아들 인아 교씨(첩) - 아들 장주
사건	장 희민의 무고(誣告) → 인현왕후의 폐위 → 인현왕후 복위	교씨의 모해 → 사씨 추방 → 사씨의 복권

■ 갈래 : 고전소설, 가정소설, 풍간(諷諫)소설, 목적소설

■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 문체 : 문어체, 산문체

■ 배경

- 공간적 - 중국, 금릉 순천부 유씨 집안, 사씨의 남정 행로
- 시간적 - 유연수의 출생부터 80세에 이르기까지의 시간
- 사상적 - 유교적 세계관, 권선징악

■ 특징

- 조선조의 일부다처제가 빛은 처첩 간의 갈등을 소설화한 최초의 작품
- 숙종(유연수)이 장희빈(교씨)에게 홀려 인현왕후(사씨)를 쫓아낸 것을 풍자, 숙종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한 목적소설
- 영웅소설이 고전소설의 큰 흐름이라면 이 작품은 가정의 문제를 다루는 가정소설의 영역을 개척
- 대화를 통해 사건을 전개하고, 갈등을 사실적으로 표현함
- 까다로운 한문투의 표현을 피하고 구어체에 접근함
- 속담이나 격언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우리말을 능숙하게 구사함
- 당시의 제목이 대개 '전(傳)'으로 끝난 것에 비해 특이한 제목이다.
- 사씨는 조선 여성의 통념을 뛰어넘어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고 나가는 적극성 보여줌. ('이생규장전'의 처녀, 춘향, 박씨)

■ 주제

- 처첩 간의 갈등과 사씨(謝氏)의 고행(苦行), 권선징악(勸善懲惡)
- 사씨의 부덕(婦德)과 사필귀정. 권선징악

■ 등장인물

사씨(사정옥)	유연수의 부인. 전형적인 현모양처로 후덕한 인품을 지니고 있음 (유교적 여성의 전형. 조선 여성의 통념을 뛰어넘어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고 나간다.)
임씨	유연수의 첩. 남경장사가 버리고 간 사씨의 아들을 구한 인물. 인덕과 자색 뛰어남.
유연수	세 부인의 남편. 15세에 등과한 유능한 인물이지만, 교씨의 흉계에 넘어가 귀양가게 됨. 이후 잘못을 뉘우치고 사씨와 다시 행복하게 삶 (5세에 등과했지만 판단력이 부족함. 가부장적 사회에서 봉건적 사고방식을 지닌 전형적 인물. 본성은 착하다.)

↕ ↕

교씨(교채)	유연수의 첩. 사씨를 몰아내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죽이는 등 온
--------	-------------------------------------

란)	갓 악행을 저지르다가 끝내 죽임을 당함(욕망 충족을 위해 자기 아들까지 죽인 악인의 전형.)
동청	교씨의 정부(情夫). 교씨와 내통하나, 계책을 꾸며 유연수를 귀양 보낸 악인의 전형. 냉진과 교씨에게 배신을 당하고 결국 죽음.
남매, 십낭	교씨와 내통하면서 교씨의 악행을 조장하고 유인함.
엄송	유한림을 제거하는데 앞장을 서는 승상. 간신.

■ 구성 : 평면적 구성-시간의 순서에 따른 일대기적 구성

- 발단 - 명나라 유현의 아들 연수는 15세에 한림학사가 됨
- 전개 - 유 한림과 결혼한 사 씨는 애를 낳지 못하자 교 씨를 첩으로 들이게 함
- 위기 - 교 씨는 한림에게 사 씨에 대한 온갖 참소를 함
- 절정 - 교 씨는 자기 아들을 죽여 사 씨를 모함하여 정실이 된 후 한림을 참소하고 갓은 악행을 저지름
- 결말 - 교 씨의 모든 악행이 드러나고 한림과 사 씨가 해후하여 교 씨를 처형함

★작품 point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중국 명나라 때, 양반 사대부인 유 한림의 가정에서 벌어지는 처첩 간의 갈등을 그린 가정 소설로, 후처(교씨)의 모략으로 고생하던 본처(사씨)가 고생 끝에 남편의 사랑을 되찾는다는 권선징악적 주제를 담고 있다. 나아가 조선 사회의 축첩 제도의 불합리성을 비판한 작품이기도 하다.

이 작품은 숙종 때 김만중이 유배지(남해)에서 지은 소설로, 인현 왕후 폐위 사건과 관련이 있다. 즉, 장희빈 사건과 유사하여 숙종이 인현 왕후를 폐출하고 장희빈을 정비(正妃)로 세운 것을 풍자하여 숙종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지었다는 주장이 일찍부터 제기되기도 하였다. 일부다처의 가정에서 일어난 처첩 갈등을 중심으로 한, 가정 소설의 한 전형을 이루고 있어 문학사적으로도 중요하다. 즉, 교씨와 동청 등의 음모자들의 활약과 적나라한 욕망의 표출, 일방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정실부인, 그리고 그 가운데 놓인 시비들의 역할 등은 후대 가정 소설의 모형이 되었다. 숙종은 유연수, 인현 왕후는 사씨, 장희빈은 교씨로 형상화되었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정실부인 사씨를 고매(高邁)인격이나 품성, 학식, 재질 따위가 높고 빼어남)한 부덕(婦德) 부녀자의 아름다운 덕행)의 소유자로, 첩 교씨를 간교한 여인으로 설정하였는데, 이와 같은 대립적 인물 설정은 여주인공 사씨의 인격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인현 왕후를 옹호하다 귀양을 가게 된 김만중이 인현 왕후 폐위의 부당성을 풍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씨 부인의 성격을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작가 자신의 가치관이 봉건적 도덕성을 옹호하고자 했다는 한계성을 보인다.

작품 분석의 핵심 : 사씨남정기는 금번 수능을 합하면 총 3회 출제된 작품이다. 3회 출제된 경우는 거의 없다. 평가원에서 예상에 빚나가는 출제를 하였다.

문제는 그리 어렵지 않으나 [대부분 지문과의 내용 일치 문제로 접근하면 쉽게 풀리는 문제였다.] **지문에 주어진 상황이 특이하여** [사씨와 유한림이 시련을 겪는 부분,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 부분이 출제되었다. 특히 사씨가 초월적인 인물-왕비, 장강 등을 만나는 부분은 지문의 앞의 내용을 모른다면 많이 헛갈릴 수 있는 내용이다. 출제 지문 앞에서 사씨는] **전체 줄거리를 모른다면 지문 해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다.** 그러나 사씨남정기는 매우 많이 알려진 작품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줄거리를 대부분의 수험생이 숙지하고 있었다.

출제지문 앞의 상황 : 교씨에게 모함을 받아 쫓겨난 사씨는 정처없이 떠돌다가 오래 전에 죽은 중국의 유명한 여사들[지조 절개를 지킨 훌륭한 부인들, 왕비, 장강, 반첩여 등]을 만난다. 그 부인들과 하직하고 나오니 자신은 기절해 있었고 그 부인들은 꿈에서 만난 것이었다. 그리고 근처에 그 부인들을 모신 사당이 있었다.

▣ 작품해설 2

■ 전체 줄거리 1

명나라 가정 연간 금릉 순천부에 사는 유현의 아들 연수(延壽)는 15세에 한림학사를 제수받는다. 나이가 어려 10년을 더 수학한 뒤에 출사하겠다고 하자 천자는 특별히 6년 동안의 여가를 준다. 유 한림은 덕성과 재학을 겸비한 사씨와 결혼하지만 사씨는 9년이 지나도 출산을 못 한다. 이에 사씨가 남편에게 새로이 여자를 얻기를 권하자, 마지못해 교씨를 맞아들여 아들 장주를 얻는다. 얼마 후 사씨도 혼인한 지 10년 만에 아들 인아를 낳는다. 교씨는 문객 동청과 모의하여 남편 유 한림에게 온갖 참소를 다하여 사씨를 폐출시키는 데 성공하고, 심지어 유 한림을 천자에게 참소하여 유배시킨다. 유 한림을 고발한 공로로 지방관이 된 동청은 교씨와 함께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는 등 갖은 악행을 저지른다. 이때 조정에서는 유 한림에 대한 혐의를 풀어 소환하고, 충신을 참소한 동청을 처형한다. 정배가 풀려 고향으로 돌아온 유 한림은 사씨의 행방을 찾고, 남편이 돌아왔다는 소문을 들은 사씨는 산사에서 나와 남편을 찾아 나선다. 도중에 해후한 두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와 간악한 교씨를 처형하고 사씨는 다시 정실이 된다.

■ 전체 줄거리 1

명나라의 명신 유희는 늘그막에 아들 연수를 낳았으나 곧이어 부인 최 씨가 세상을 떠난다. 연수는 15세에 과거에 급제하여 한림학사가 된 후 덕성과 재덕을 겸비한 사정옥과 결혼을 한다. 그러나 사 씨가 9년이 넘도록 출산을 못하여 유 한림에게 후실을 얻어 후사를 이으라고 권하고 한림은 사 씨의 간곡한 청에 못 이겨 교 씨를 받아들였으나, 고모 두(杜) 부인은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교 씨가 아들 장주를 낳고, 얼마 후 사 씨도 혼인한 지 10년 만에 아들 인아를 낳는다. 간악한 교 씨는 문객 동청과 짜고 온갖 흉계를 꾸민 끝에 장주까지 죽여 사 씨에게 누명을 씌운다. 결국 한림은 사 씨를 축출하고 교 씨를 정실로 삼는다. 사 씨는 시부모의 묘하에서 머물다가 몽조(夢兆)로 교 씨가 보낸 자객을 피하여 수월암에 거처하며 여승 묘희의 도움을 받는다. 교 씨는 동청과 간통하고, 동청은 한림까지 없애려고 조정에 참소한다. 한림은 유배되고 동청은 한림을 고발한 공으로 지방관이 되어 갈 때 교 씨는 그를 따라간다. 나중에 한림이 성은을 입어 풀려난 뒤에야 전일의 모든 불행이 교 씨의 흉계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된다. 한림은 동청의 공격을 받아 도피하다가 여승 묘희와 사 씨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하고 사 씨와도 상봉한다. 교 씨는 죄상이 폭로되어 처형당하고, 한림은 이부 시랑이 되어 사 씨와 다시 합하고, 사 씨를 도와주고 인아를 구하여 기른 임 씨를 첩으로 맞이하여 영화를 누리게 된다. 본문에 수록된 부분은 유 소사 집에서 사 씨의 재덕을 알아보고 청혼을 하는 대목이다.

■ 핵심정리

☛갈래 : 고전 소설, 가정 소설, 국문 소설, 한문 소설(중손 김춘택이 한문으로 번역), 풍간 소설(諷諫: 완곡한 표현으로 잘못을 고치도록 말함), 목적 소설

☛성격 : 사실적, 유교적, 봉건적, 교훈적, 풍간적, 가정적, 목적적

배경 ① 시간적: 중국 명나라 초기

② 공간적: 중국 북경 금릉 순천부

•문체 : 문어체, 산문체

연대 : 조선 후기(숙종15~18년)

☛제재 : 처첩 간의 갈등

☛주제 : 사씨의 부덕(婦德)과 권선징악(勸善懲惡)

☛특징 : 후대 가정 소설의 모범이 됨.

: 일대기적 구성을 취하고 있음.

: 선악의 대비가 명확함.

: 유교적 도리를 강조함.

: 풍간을 목적으로 함. / 천우신조(天佑神助)에 의해 우연적으로 사건이 전개됨.

- 대화를 통해 사건을 전개하고, 갈등을 사실적으로 표현함.

- 까다로운 한문투의 표현을 피하고 구어체에 접근함.

- 속담이나 격언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우리말을 능숙하게 구사함.

■ '사씨남정기'의 문학사적 의의

- 일부다처제로 인한 처첩 간의 갈등을 최초로 소설화함.
- 가정 문제를 다루는 가정 소설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함.
- 조선 시대에 장편 소설이 창작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됨.
- 가문 소설의 전형을 보여 주며, 후대 장편 가문 소설과 영웅 소설에 영향을 미침.

■ 작품이 후대에 미친 영향

- 선인형, 악인형이라는 전형적인 인물 유형을 성립함.
- 선과 악의 대립적 사건 전개 구도를 다룸.
- 악인형 인물의 파멸을 통해 권선징악의 주제를 드러냄

성혼(成婚)	요망한 첩	간악한 문객	가화(家禍)	남정(南征)	가운 회복
유연수와 사정옥의 결혼 및 출산 없음.	첩 교체란의 간악함과 아들 출산	교씨의 정부 동청의 음모와 유한림에 대한 모함	사씨의 폐출 및 유한림의 유배	사씨의 시련	유한림이 사씨와 재회하고 교씨를 처형함.



사씨의 높은 덕성을 기리고 권선징악의 교훈을 전함.

구성

발단	중국 명나라 세종 때 금릉 순천부에 사는 유현이라는 명신(名臣)의 아들로 태어난 연수는 15세에 장원 급제하여 한림학사를 제수 받음.
전개	유연수(유 한림)는 덕성과 재학(才學)을 겸비한 사씨와 결혼하나, 늦도록 후사가 없어 교씨를 첩으로 맞아들임. 교씨는 천성이 간악한 인물로 아들을 낳자 정실이 되기 위해 사씨를 참소하고 결국 유 한림은 사씨를 폐출시키고 교씨를 정실로 삼게 됨.
위기	교씨는 문객 동청과 간통하면서 유 한림을 참소하여 유배시킴.
절정	마침내 조정에서는 유 한림에 대한 혐의를 풀어 소환하고 충신을 참소한 동청을 처형
대단원	유 한림은 사방으로 사씨의 행방을 찾다가 소식을 듣고 온 사씨와 결국 해후함. 유 한림은 과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향으로 돌아와 사씨를 정실로 맞아들이고 간악한 교씨를 처형함.

* 교과서에는 전개 부분을 수록하였다.

■ 해설

- 조선 숙종 때 김만중이 지은 소설로, 처첩 갈등형 가정 소설이라는 하나의 유형을 형성한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 명나라 시절 유한림이 간악하고 시기심이 강한 첩 교씨의 투기와 모함에 넘어가 높은 덕성과 학문을 지닌 본처 사씨를 버리고 교씨를 정실로 맞이하게 되나, 교씨는 그녀의 갖은 악행이 탄로 나 처형당하고 유한림이 다시 사씨를 거두어 행복하게 살았다는 내용을 줄거리로 한다. 이는 숙종이 인현 왕후를 폐위시키고 장희빈을 중전으로 책봉한 사건과 무관하지 않아서, 작가가 임금에게 풍간하고자 쓴 소설이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다. 다른 고전 소설들처럼 위기 상황에서 하늘이 돕는 우연한 사건 전개는 소설로서의 한계를 보여 주기도 하지만, 사건 구성이 치밀한 편이며 인물의 심리 묘사가 뛰어나다. 또한 당대 현실 문제를 전아한 문체로 표현한 점 등이 문학성을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 '사씨남정기'는 처첩 갈등을 중심으로 한 소설로서 사대부 가문 여성들의 덕목을 환기하려 한 작품이다.(현실 비판)

적 의도와 교훈성을 지님) 이 작품의 처첩 갈등을 이해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갈등의 당사자들인 처와 첩의 관계 자체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이 경우 사씨는 부덕(婦德)을 갖춘 전통적인 여성인 반면 교씨는 정실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탐욕적 인물로 볼 수 있다. 결국 악인 교씨가 징벌을 받는 것으로 귀결됨으로써 이 작품은 처첩들이 도덕성을 갖춘다면 가정의 화목이 지속될 수 있다는 의식을 담은 것(처첩 제도의 인정을 전제로 했을 때의 주제 의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축첩제가 야기한 한 가정의 위기(처첩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염두에 두고 읽는 것이다. 이 경우 사씨와 그의 남편인 유연수의 관계가 중요시된다. 유연수는 한 가정의 가장이자 한 가문의 가부장이다. 만약 이러한 자가 우매하거나 첩에게 미혹된다면 가문의 존속이 위태로워진다. 이때 처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사씨는 가정을 바로잡기 위해 그 나름의 현실적인 논리에 입각하여 행동하는 인물로 볼 수 있다.' 사씨남정기'는 그러한 사씨의 고난을 다룬 소설이다.

• '사씨남정기'는 조선 시대 일부다처제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일어나는 처첩 간의 갈등을 다룸으로써 축첩 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권선징악이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소설이다. 서포 김만중이 유배지에서 쓴 대표적인 가정 소설로 알려져 있는 이 작품은 중국 명나라 때 양반 사대부인 유 한림의 가정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그린 내용이다.

나아가 사씨 부인은 인현 왕후를, 유 한림은 숙종을, 교씨는 희빈 장씨를 각각 암시한다고도 볼 수 있다. 즉, 인현 왕후를 옹호하다 귀양을 가게 된 김만중이 인현 왕후 폐위의 부당성을 풍자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사씨 부인의 성격을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작가의 가치관인 봉건적 도덕성을 옹호하고자 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 17세기 후반에 창작된 이 작품은 소설에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했던 조선 후기 사회에서 이례적으로 사대부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국문·한문·국한문 혼용으로 된 많은 이본들이 전하는 것으로 보아 다양한 층위의 독자들에게 폭넓게 읽혔음을 알 수 있다. 이 작품을 창작하게 된 동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처첩 제도라는 당대 사회의 제도적 문제를 염두에 두고 창작되었다는 것, 다른 하나는 숙종 때의 정치적 사건을 염두에 두고 창작된 작품이라는 것이다. 창작 동기를 감안한다면, 이 작품에 제시된 문제점이 가정 혹은 가문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적인 위기로까지 비화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씨남정기'에서는 적자(嫡子)가 가문을 이어야 한다는 당시의 가치관으로 인해 발생한 사씨와 교씨의 갈등과 사씨의 고난을 전개하면서 인물의 심리와 성격을 세밀하게 묘사하였다.

사씨는 부덕(婦德)을 갖추고 있으며 유교적 가치관에 부합하는 인물로 전형적인 선인으로 묘사되고, 교씨는 간악한 인물로 사씨를 곤경에 빠뜨리는 역할을 하는 전형적인 악인으로 묘사되었다. 그리고 교씨의 악행과 사씨의 선행을 대비시켜 사씨의 인격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이 작품에 형상화된 선인형·악인형이라는 전형적 인물 유형, 선악 인물의 대립 구도, 악인의 파멸을 통한 권선징악적 주제 제시는 후대 영웅 소설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 사씨남정기는 조선 숙종 때 김만중이 창작한 한글 소설이다. 유연수 가문의 사 부인과 교 씨 사이에 벌어지는 처첩 간의 갈등을 소재로 권선징악과 사필귀정의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본문은 전형적인 악인, 교 씨와 동정의 간교한 계교로 한없이 선한 인물로 설정된 사 부인이 고난을 당하는 장면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단순히 처첩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교씨 일당의 말만 믿고 사 부인을 축출하는 유연수의 무능함과 불합리한 가부장제, 축첩 제도의 문제점이 동시에 노출되어 있기도 하다.

■ 내용 탐구

• 사대부가의 며느리가 갖추어야 할 덕목은 무엇이라 보고 있는지 말해보자.

-공경하고 경계하여 지아비의 뜻을 어기지 말아야 한다.

-지아비를 바른 길로 이끌되 지나치게 나서지 말아야 한다.

• 사씨의 말에 두 부인이 반대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해보자

• "암탉이 새벽에 울고 철부(哲婦)가 나라를 기울게 하는 것은 경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 여자의 적극적 활동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 "사씨는 마음속으로 몹시 근심하면서 홀로 생각하였다. '체질이 허약하여 자녀를 생육할 수 없는가 보다.' 사씨가 조용히 한림에게 첩을 두라고 권고하였다."

: 사씨는 출산을 통해 가문의 대를 이어 주는 것이 아녀자의 마땅한 도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

• "집안에 첩을 두는 것은 환난의 근본이야."

: 처첩 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음을 말해 줌. 사씨와 교씨의 갈등을 예고함.

• "일처일첩(一妻一妾)은 인륜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 가부장권 강화의 사회적 배경

■ 작품에 반영된 당대 현실

1)정실인 사 씨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교 씨를 첩으로 들여 아들을 낳게 함.

: 첩을 들여서라도 아들을 낳아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함.

2) •교 씨는 자신이 남아(男兒)를 생산하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사 씨가 아들을 낳자 불안해 함.

•교 씨가 사 씨를 참소하여 쫓아내고 정실이 됨.

: 축첩 제도 때문에 처첩 간의 갈등이나 적서 차별 문제가 나타남.

3) •사 씨가 교 씨를 첩으로 들이도록 다른 사람들을 설득함.

•유연수가 사 씨와 자신을 참소하고, 다른 남자와 간통한 교씨를 처형함.

: 여인은 투기하지 않고 정절과 도리를 지켜야 함.

4) 유연수는 사 씨와의 사이에서 아들 한 명을 얻고, 임 씨와의 사이에서 아들 세 명을 얻어 문호가 성대해짐.

: 가문의 번성이 사대부 가문에서 매우 중요함.

■ 등장인물의 성격

사씨: 현모양처로서 성품이 곱고 착한 여인의 전형

교씨: 위선적이고 교활하며 표독스러운 악인의 전형

유 한림: 본성은 착하나 판단력이 부족하며 봉건적 사고방식을 지닌 인물의 전형

동창: 교 씨의 정부로서 악인의 전형

■ 사씨와 교씨의 인물 유형

고전 소설에서는 선인(善人)과 악인(惡人)의 구별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사씨남정기'에서 사 씨는 현모양처로서 성품이 곱고 착한 여인의 전형으로 그려지고 있으며, 교 씨는 위선적이고 교활한 면모를 지닌 악인의 전형으로 그려지고 있다. 따라서 사 씨가 거문고를 타는 교 씨의 행위를 문제 삼는 것은 교 씨에 대한 질투심 때문이 아니라 교 씨가 당시에 양반가의 여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음악을 연주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작품에서 사 씨는 여자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다하는 유교적 가치관에 부합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 중국을 배경으로 설정한 이유: 이 소설은 역사적 사건의 실제 인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중국 명나라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는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날카로운 현실 비판 의식을 가리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 제목의 의미와 창작 배경

• 제목 '사씨남정기(謝氏南征記)'는 '사씨가 남쪽으로 옮겨가는 이야기'라는 뜻이다. 이 작품은 숙종이 인현 왕후를 폐위시키고 장 희빈을 왕비로 맞아들이는 데 반대하던 김만중이 남해도로 유배 가서 쓴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다시 말해 '사씨 부인'=인현 왕후, 유 한림=숙종, 교씨=장 희빈의 의미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인 배경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 작품에는 당대의 가부장적 의식과 여성에 대한 인식 등이 드러나 있어 조선 중기의 사회상을 보여 준다는 가치가 있다.

• '춘향전', '심청전', '홍길동전'과 같이 널리 알려진 고전 소설의 제목에는 일반적으로 '전'이 붙는다. 그런데 '사씨남정기'의 제목에는 '전'이란 말을 쓰지 않고 '사씨남정기', 혹은 '남정기'라고 쓰고 있다. '남정(南征)'은 '남쪽으로 쫓겨 간다.'라는 뜻으로, 사 씨가 가정에서 쫓겨나고, 남편 유 한림이 조정에서 쫓겨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로 보아, 이 작품에서는 당시 조선 사회의 모순과 실상을 적나라하게 비판하기 위해 '남정'이란 의미에 더 중점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 '사씨남정기'의 주제 의식

이 작품은 사실상 숙종의 인현 왕후 폐위 사건을 역사적 배경으로 하지만, 소설적 배경은 중국 명나라 시대로 설정되어 있다. 이는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의 이면에 있는 날카로운 저항 의식을 가리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즉 작가는 역사적 사건을 소설로 기록하여 숙종의 성심을 깨우치게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국가의 어려움을 다스리는 데 부녀자의 선약이 주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고 일반 부녀자들을 교훈하기 위해 이 작품을 쓴 것

으로 볼 수 있다. 이 작품이 지닌 목적의식은 인물의 배치나 사건의 전개에 한계를 가져와 작품의 문학성이 위축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만중의 작가적 역량은 이를 극복하고 뛰어난 작품성을 발휘하고 있다.

■ '사씨남정기'와 '인현왕후전'의 비교

	사씨남정기	인현왕후전
인물	유 한림 — 사씨(처) - 인아(아들) — 교씨(첩) - 장주(아들)	숙종 — 인현 왕후 - 없음 — 희빈 장씨 - 군(경종)
사건 전개	사씨가 취첩을 권유함. → 교씨를 첩으로 삼음. → 교씨가 득남 후에 오만방자해짐. → 교씨가 사씨를 모함함. → 교씨가 사씨의 출문 후 처가 됨. → 사씨가 남정(南征)함. → 사씨가 복귀되고 교씨가 타살됨.	인현 왕후가 후궁 간택을 권유함. → 장씨를 후궁으로 삼음. → 장씨가 득남 후에 오만방자해짐. → 장씨가 인현 왕후를 모함함. → 장씨가 인현 왕후 폐출 후 왕비가 됨. → 인현 왕후가 안국방에서 근신함. → 인현 왕후가 복위되고 장씨가 사약을 받음.

■ 17세기 고전소설의 특징

17세기에 나온 대표적인 고전 소설로는 허균의 '홍길동전', 김만중의 '구운몽'과 '사씨남정기', 조성기의 '창선감의록' 등이 있다. '사씨남정기'와 '창선감의록'은 당시 가문 의식의 대두와 가부장권의 강화라는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다. '사씨남정기'는 한 가정이 첩에게 미혹되었으나 처가 제 역할을 다함으로써 가정의 분란이 수습되었다는 이야기이고, '창선감의록'은 가부장이 될 형이 용렬하여 그 어머니와 함께 나쁜 일을 벌이지만 배 다른 동생이 성인군자여서 결국 형이 회개함으로써 가문의 질서가 회복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이 두 작품은 도덕적 당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식이 담긴 작품들로서, '구운몽'과 함께 18, 19세기 소설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 가정 소설(家庭小說)

한 가정 내에서 처와 첩 사이, 남편과 아내 사이, 자식들 사이의 갈등과 대립을 그려 낸 소설을 가정 소설이라 한다. 가정 소설은 보통 한 가정, 한 세대를 배경으로 하는데, 시·공간적 배경이 두 가문 이상 혹은 두 세대 이상인 가문 소설과는 구별된다. 가정 소설은 가족 간의 갈등을 주로 다루어서 여성들이 주된 독자층을 이루었다. 소설을 황당무계하다고 비판했던 조선 사대부 계층에서도 가정 소설만큼은 감계(鑑戒)의 뜻이 함축되어 있다고 호평을 하였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창선감의록', '사씨남정기', '정을선전', '장화홍련전' 등이 있다.

■ 재자가인형(才子佳人型) 인물

재자가인형 인물은 특별히 서사 문학에서 탁월하거나 비범한 재주나 용모, 풍채, 미모, 능력 등을 가진 인물을 가리킨다. 본래 신화에서 신성한 혈통을 이어받은 영웅적인 인물이 소설에 이르러서 다소 그 자질이 약화된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향유자들의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질이 필수적이었다고 설명된다. 전승 과정에서는 쉽게 기억되기 위해서라도 비범한 자질이 필요했을 것이다. 오늘날에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개인적 능력, 사회적 지위, 경제적 부 등의 측면에서 비범한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또한 이 작품들이 대중들의 관심과 성원을 받는 데 기여하고 있다.

■ 편집자적 논평(서술자의 개입)

3인칭 시점으로 서술되는 소설에서 서술자는 작품 속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다. 사건을 독자에게 들려주는 전달자로서, 외부로 드러나는 것만을 관찰하여 전달하기도 하고(3인칭 관찰자 시점),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 사건의 의미 등을 알고 이를 전달하기도 한다(전지적 작가 시점).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소설 속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독자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어“(나는) 그것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편집자적 논평이라 한다. 이러한 서술자의 개입은 특히 고전 소설에서 빈번하게 드러나는 특징 중 하나이다

여성 영웅 소설의 인물

공직이나 전쟁터 등지에서 종횡무진 활약했던 인물에게, 생물학적 성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여성의 역할만을 강요하는 것은 불합리한 일일 수밖에 없다. 사람에게서는 남녀라는 생물학적 성의 일반적 특성과는 상관없는 개인적인 고유한 성향이 있는 법이다. 그런데, 유가적 가치관은 생물학적 성에 입각하여 사회적 성역할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절대적인 가치로서 가르치고 실천할 것으로 요구했다. 여성 영웅 소설의 인물들은 그같은 관습적이고 통념적인 성 역할에 대한 규범적 지침을 거부하고 비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록 사세부득이 하여 규범을 일탈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허용된 사회적 가치에 따라 그들이 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생각될 수 있었기 때문에 광범위한 사회적인 공감과 이해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요구되고 있던 여자의도의 준수라는 규범과, 가족주의적 관점에서 본 효의 논리와 가문의 유지라는 가치 사이에서 갈등하는 존재이다. 하나는 집 안의 영역에서 행해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집 밖의 영역에서만 행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생물학적 성 역할이 엄연히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집의 안과 밖이라는 장벽을 넘어서야만 했다. 남북개척은 생물학적 성을 사회적 성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작품 속에서 여성인물들에게 설정해 놓은 제약, 사회적 금제를 넘어서 여성 인물들에게는 집 밖에서 당면해야 하는 과업들이 그다지 문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들은 수학 과정에서부터 마치 그러한 역할을 위해 태어난 것처럼 잠재된 능력을 맘껏 발휘하여 그들 앞에 놓여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한다. 그같은 과정들은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초자연적 능력을 지닌 신이한 존재들의 도움과 그들이 속해 있는 신비한 세계질서의 조응 아래 이루어지고 있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초월적인 세계의 원조라는 현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남성과 여성, 안과 밖이라는 인간적 질서 너머 작동하는 초월적 세계 질서의 개입은, 결국 집의 안과 밖, 여성 역할과 남성 역할이라는 이분법적인 질서관이 인간들의 편의에 의해 제정한 것에 지나지 않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 강진욱, "한국 고전 문학 속의 가족과 여성"(월인, 2007)

■ 소설을 통한 여성 독자층의 교화

17세기 중엽부터 조선 사회 자체가 유례를 보기 힘들 정도로 철저한 주자학적 이념에 기반을 둔 부계 혈연 중심의 가부장제를 강화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동안 주자학적 이념에 관한 한 도덕적 우월성을 지니고 있었던 이른바 사림들이 본격적으로 부상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주자하듯이 17세기 장편 소설은 당시에 새롭게 부상하는 주자학적 혈연주의의 윤리 의식과 이에 기반한 가부장제와 떨어질 수 없다.

그런데 '사씨남정기', '창선감의록', '소현성록'은 가정과 가문을 본격적으로 끌어온 최초의 소설적 양식이다. 이 작품들은 처첩의 갈등, 간신의 문제, 악한의 설정 양상 등 상당한 부분에서 공통점을 보여 준다. <중략> (물론 작품이 다르고 있는 내용은) 간신을 통한 심각한 정치적 갈등이나 현실적 이득만을 노리고 갖은 악행을 일으키는 인물들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충분히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들은 어디까지나 가정이나 가문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철저하게 종속되어 있다. 그런 만큼 이들 작품은 가부장제적 이념을 어떠한 방향으로 형상화하건 이를 배면에 깔고 있다. 따라서 당시의 여성들, 특히 사대부가의 여성들은 가부장제적 이념에 대한 교화적 차원에서 소설과 친연성을 맺었다고 볼 수 있다. - 송성욱, '17세기 소설사의 한 국면', 한국고전연구 통권 8집(한국고전연구학회, 2002)

■ 정병헌, '사씨남정기의 인물 형상과 지향'(2008)

'사씨남정기'는 가정 내의 사건, 그중에서도 처와 첩의 갈등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흔히 '처첩 갈등형 가정 소설'로 분류하고 있다. 실제로 이 작품에는 정처와 첩실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과 이에 연유하는 사건이 가정이라는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사건이 벌어지는 공간은 가정을 벗어나 중국 남방으로 확대되고, 사건의 성격도 단순히 처첩의 갈등으로 끝나지 않고 정치적 세력의 대결로까지 확대된다. 따라서 이 작품을 단순히 가정 내의 일에 대한 견해의 차이를 극대화하고, 이를 작품으로 형상화하였다는 점에 국한하여 보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축첩제 현실의 부정

'사씨남정기'의 서술자는 사 씨를 내세워 축첩의 동기를 관념적으로 설정한 뒤, 당대의 축첩제 현실을 부정하고, 그것을 통해 교 씨를 악인형적 인물로 부각시킨다. 즉 유씨 가문의 후사를 잇기 위해 교 씨를 맞는 것으로 축첩의 동기를 설정하였으면서도, 사 씨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하여 교 씨의 존재 근거를 박탈함으로써 갈등적 상황을 연출한다. 그리고 이에 상응하여 교 씨가 자신의 존재 근거 확보를 위해 사 씨를 모해하고, 나중에는 유연수까지 모해하며 끝내는 파멸에 이르는 것으로 그린다. 서술자가 왜 이처럼 축첩 동기를 관념적으로 설정하는가는 그러한 동기 설정을 통해 부각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따져보면 이해될 수 있다. '사씨남정기'에서 축첩은 '후사를 이어 가문을 유지한다'는 명분 아래 처 사 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면서도 사 씨는 결국 첩 교 씨 때문에 모진 고난을 겪는 것으로

그러진다. 이러한 서사 내용을 통해 부각되는 것은 모든 것에 우선하여 가문의 유지를 내세우는 사 씨의 부적이다. 이를 통해 사씨는 가부장제 이념의 표상으로 부각되는 것이다. - 박일용, '사씨남정기의 이념과 미학'(1998)

■ 주제적 한계

'사씨남정기'는 가부장적 이념이 제시하는 이상적인 삶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이념 지향적인 인간 사 씨를 통해 가부장적 질서에 내재되어 있는 모순들, 그 속에서 당면할 수 있는 극한적인 문제 상황을 매우 의식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치열하고도 극한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사씨남정기'는 가부장적 질서가 근원적으로 부조리하고 맹목적인 것일 수 있다는 가정(혹은 질문)은 끝내 회피한다. 이 소설에서 가부장인 유연수나 천자가 결코 본성 자체가 악한 사람으로 설정될 수 없었던 것은 이 때문인데,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가부장'의 존재는 현명한 판단력을 전제로 가부장에게 가문이나 국가를 치리(治理)할 수 있는 전제권을 부여하는 가부장적 질서가 그 근본에서부터 부조리한 것일 수 있다는 가정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가부장의 존재는 가부장적 질서 내부에서는 결코 해결될 수도 없고 정직하게 성찰될 수도 없는 맹점과도 같다.

- 강상순, '사씨남정기의 적대와 희생의 논리'(2001)

■ '사씨남정기' 다르게 읽기

'사씨남정기'를 읽는 독자들은 사 씨의 고난에 함께 상심하고 교 씨의 악행에 함께 분노하게 된다. 하지만 이 소설에서 보이는 처첩 간의 갈등은 다른 각도에서 인물의 심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당시의 처첩 간의 갈등은 아들 생산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런 맥락에서 교 씨의 입장을 염두에 두고 이 작품에 접근해 보면, 교 씨가 아들을 생산한 후에 정실부인이 되기 위해서 계략을 꾸미고 사 씨 부인을 핍박하는 것은, 자신과 자신의 아들이 일생 감당해야 할 사회적 차별에 대한 일종의 대응이나 해결책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 홍신선, "사씨남정기"(2003)

■ '사씨남정기'는 어떤 작품인가

'사씨남정기'는 조선 숙종 때 김만중이 창작한 한글 소설이다. 유연수 가문의 사 부인과 교 씨 사이에 벌어지는 처첩 간의 갈등을 소재로 권선징악과 사필귀정의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본문은 전형적인 악인, 교 씨와 동청의 간교한 계교로 한 없이 선한 인물로 설정된 사 부인이 고난을 당하는 장면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단순히 처첩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교 씨 일당의 말만 믿고 사 부인을 축출하는 유연수의 무능함과 불합리한 가부장제, 축첩 제도의 문제점이 동시에 노출되어 있기도 하다.

선인: •사 씨 •춘빙

악인: •교 씨 •동청 •냉진

■ 공감과 거리두기

문학 작품의 수용은 작중 인물의 시선에 동조하여 상상적 체험을 할 때 이루어진다. 작자가 공감을 노리고 만들어 낸 인물에게 공감을 느끼지 못할 경우, 독자는 자신이 설정한 임의의 인물 또는 가공의 인물을 설정하여 작가가 의도한 인물에 '거리두기'를 하게 된다. 이 작품에서 작자가 사 부인의 시선으로 전체 사건을 조망한다는 전제 아래 독자 또한 그런 입장을 취한다고 치자. 그러면 작자와 독자는 동일한 인물을 통해 사건을 조망하게 된다. 그러므로 독자는 자신을 사 부인과 동일시하는 '공감'을 경험한다. 하지만 독자가 교 씨의 처지에 연민을 느끼는 경우 사 부인에 대해서는 '거리두기'를 하게 된다.

■ 17세기 국문 소설의 융성과 김만중

17세기는 국문 소설의 융성기로서 '홍길동전', '구운몽', '사씨남정기' 등의 국문 소설이 많이 창작되고 수용된 시기이다. 이 무렵에 국문 소설이 융성한 것은 첫째로 국문(한글)이 널리 보급되었다는 점, 둘째로 임진왜란 이후 서민 의식이 깨어나 새로운 문학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점, 셋째로 여성을 중심으로 독자층이 넓게 형성되었다는 점과 연관이 있다. 그 당시 소설은 풍속을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지배층의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김만중은 지배층에 속한 인물이면서도 진보적인 문학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잘 알려진 것처럼 우리말과 글의 가치를 옹호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설의 가치를 역설하였다. 그가 직접 여러 편의 국문 소설을 창작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 본문 해설

1. 반 밤등 혼자 이리

한밤중에 혼자 일어 문노라 이 내 꿈아

→ 화자가 소현세자를 만난 꿈

만리 요양을 어느덧 다녀 온고

→ 청나라가 건국된 곳(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이 볼모로 끌려 간 곳).

반갑다 학가선용(鶴駕仙容)을 친히 뵈듯 하여라.

→ 학을 탄 신선의 모습. 여기서는 소현세자와 봉림대군

⇒ (해석) 한밤중에 혼자 일어 문노라 이 내 꿈아

만리 요양을 어느덧 다녀 온고

반갑다 학가선용(鶴駕仙容)을 친히 뵈듯 하여라.

* 한밤중 : 야반(夜半) * 요양 : 청나라가 건국된 곳.

⇒ 청나라에 볼모로 끌려간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에 대한 그리움

2. 풍설 석거친 날에

풍설(風雪) 석거친 날에 못노라 북래사자(北來使者)

→ 병자호란을 겪은 뒤의 참담한 상황을 암시

→ 왕세자 등이 볼모로 잡혀 가 있던 청(淸)나라의 심양에서 온 사자(使者)를 말함

소해용안(小海容顏)이 언제나 치오신고,

→ '소해(小海)'는 왕세자를 뜻하며 '용안(容顏)'은 얼굴의 높임말로 소현세자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

고국(故國)의 못 죽는 고신(孤臣)이 눈물계워 하노라.

→ 조선(치욕을 당한) 외로운 신하(화자 자신)

⇒ (해석) 눈보라가 뒤섞여 몰아치는 날에 북쪽 심양에서 온 사신에게 문노라.

(볼모로 끌려 가 계신) 왕세자의 낯빛이 얼마나 추워하시던가?

고국에서 죽지 못하여 살고 있는 외로운 신하는 (서럽고 안타까움에) 눈물을 금치 못하고 있노라

⇒ 청나라에 볼모로 끌려간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에 대한 걱정

* 북래사자(北來使者) : 북쪽 심양에서 온 심부름꾼(사자)

* 소해용안(小海容顏) : 우리나라 왕자의 모습

* 고국(故國)의 : 고국의 다음에 생략된 말 : '국치(國恥)에도'

* 고신(孤臣) : 필자 자신

3. 후생 죽은 후에

후생 죽은 후에 항왕(항우)를 누가 달랠 것인가.

楚軍(초군) 三年(삼년)에 艱苦(간고)도 그지없다.

→ 초나라 군사 → 고생

어느 때나 漢日(한일)이 밝아 太公(태공)과 같은 賢臣(현신)이 나오게 할 것인가?

→ 한나라 세상 → 강태공 → 현명한 신하

⇒ (해석) 후생이 죽은 후이니 항우를 누가 달랠 것인가

초나라 군사된 지 삼년인데 고생이 한량없다.

어느때나 한나라 세상이 밝아 강태공과 같은 현명한 신하가 나오게 할 것인가

4. 박제상(朴堤上) 죽은 후에

박제상 죽은 후에 님의 시름 알리 없다

→ 임금의 걱정과 근심(신라는 백제를 견제하기 위해 402년(실성왕 1) 왜(일본)에 내물왕의 아들 미사흔(未斯欣)을, 412년에는 고구려에 미사흔의 형 복호(卜好)를 볼모로 보냈다. 내물왕의 큰아들인 눌지왕이 왕위에 오르자 볼모로 잡혀 있는 동생들을 구출하려 했다. 왕은 신하들의 천거를 받아 당시 삼랑주간으로 명망이 높던 박제상을 보냈다. 먼저 고구려왕을 회유해 복호를 구출해 돌아온 뒤, 왜에는 자신이 신라를 배반하고 도망 온 사람처럼 속이고 들어갔다. 미사흔을 구출해 미리 고국으로 보내고 그들에게 잡혔는데, 왜의 협박과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충절(忠節)을 지키다가 죽었다.)

이역 춘궁(春宮)을 누라서 모셔오리

→ 이역만리 청나라에 있는 소현세자

지금에 치술령 고훈(孤魂)을 못내 슬퍼하노라.

→ 박제상의 아내가 남편을 기다리다 망부석(望夫石)이 되었다는 전설

⇒ (해석) 박제상 죽은 후에 님의 사람 알리 없다

이성 춘궁을 누라서 모셔오리

지금에 취술령 고훈을 못내 설워하노라.

⇒ 볼모로 잡혀간 왕자를 구해오지 못하는 안타까움

5. 모구를 돌아보니

모구를 돌아보니 衛(위)사람 어여쁘다.

→ 중국의 지명

歲月(세월)이 자로 가니 침줄이 길었어라.

→ 너무 빨리 흐르니

이 몸의 헤어진 갓옷을 기워 줄 이 없어라.

→ 털가죽 옷

6. 조정(朝廷)을 바라보니

朝廷(조정)을 바라보니 武臣(무신)도 하 많구나.

→ 무척

辛苦(신고)한 和親(화친)은 누구를 위해 한 것인고.

→ 고통스러운

슬프다 趙廐吏(조구리)가 이미 죽으니 參乘(참승)할 이가 없어라.

→ 윗사람을 마차로 모심

7. 구중(九重)달 밝은 밤의

九重(구중) 달 밝은 밤에 聖慮(성려) 일정(一定) 많으려니,

→ 임금의 근심 → 정말

異域(이역) 風霜(풍상)에 鶴駕(학가)인들 잊을소냐.

→ 신선같은 얼굴, 세자

이 밖에 억만 창생(億萬蒼生)을 못내 분별하시도다.

→ 백성들

⇒ (해석) 구중궁궐의 달 밝은 밤에 임금의 근심이 정말 많으려니,

먼 이역의 풍상에 왕세자의 수레인들 잊겠는가.

이 밖에 백성들을 못내 걱정하시는구나.

⇒ 근심 많은 임금님에 대한 걱정

* 성려 : 임금의 걱정.

* 일터 : 꼭.

* 학가 : 학을 태운 수레. 곧 임금을 비유.

* 분별하시는다 : 걱정하시도다.

8. 구렁에 낫는 풀이

구렁에 낫는 풀이 봄비에 절로 길어

→ 움썩하게 팬 땅

알을 이 없으니 그 아니 조흠소냐

우리는 너희만 못하야 실람겨워 하노라.

→ 풀(의인, 선망의 대상) 걱정:근심을 이길 수 없구나(비분강개, 풀과 우리 대조)

⇒ (해석) 구렁에 낫는 풀이 봄비에 절로 길어

알을 이 없으니 그 아니 조흠소냐

우리는 너희만 못하야 실람겨워 하노라.

⇒ 우리(화자)의 걱정과 근심(병자호란의 치욕)

9. 조그만 이 한 몸이

조그만 이 한 몸이 하늘 밧기 떠디니

→ 화자(자괴감과 무기력을 느낌)

오색구름 깊은 곳의 어느 것이 서울인고

바람에 지나는 검줄 갖아야 갈 길 몰라 하노라.

→ 비유(화자-검불(마른 풀)같은 화자의 모습(자괴감, 무기력)

⇒ (해석) 조그만 이 한 몸이 하늘 밖으로 떨어지니

오색 구름 깊어진 곳 어디가 서울인가?

바람이 이리저리 구르는 검불같이 갈 길 몰라 하노라.

⇒ 연군지정과 자괴감(自塊-스스로 느끼는 부끄러움)

10. 이거사 어린 거사

이것아 어린 것아 잡말 마라스라

→ 어리석은 쓸데없는 말, 부질없는 말

칠실(漆室)의 비가(悲歌)를 뇌라셔 슬퍼하리

→ 슬픈 노래(화자의 노래) 설의법(현실 비판적 - 어리석은 사람들은 치욕도 부끄러워하지 않음)

어디서 탁주 한 잔 얻어 이 실람 풀까 하노라.

→ 막걸리(위로, 위안) 근심-걱정(비분강개)

⇒ (해석) 이것아! 어리석은 사람아! 부질없는 말 하지 말아라.

어두운 방구석에서 부르는 슬픈 노래를 누가 슬퍼하라.

어디서 탁주나 한 잔 얻어 이 시름을 풀어 볼까 하노라

* 칠실(漆室) : 매우 캄캄한 방

⇒ 현실비판과 국치를 당한 비분강개(悲憤慷慨)

▣ 핵심 정리

■ 갈래 : 평시조, 연시조

■ 성격 : 비탄적, 직서적, 대조적

■ 특징 : 화자가 처한 현실을 근심하며 괴로워하고 있다.

■ 제재 : 소해용안(小海容顔), 소현세자를 걱정하는 마음

■ 주제

■ 국치(國恥)에 대한 비분강개(悲憤慷慨)

■ 볼모가 된 두 왕자에 대한 염려

■ 우국 충정

■ 출전 : 송암유고(松巖遺稿)

▣ 이해와 감상

볼모로 잡혀간 왕자에 대한 걱정과 국치(國恥-나라의 치욕)를 당한 비분강개(悲憤慷慨)를 노래한 총 10수의 비가(悲歌)이다. 병자호란으로 볼모로 잡혀 청나라로 끌려간 두 왕자를 걱정하면서, 병자호란을 당한 치욕과 시름을 자연물과 인간사를 대비하여 드러내고 있으며, 무기력한 자신의 상황을 한탄하는 내용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 이해와 감상

병자호란의 국치를 당하여 비분강개(悲憤慷慨)한 나머지 지은 '悲歌' 10수 중 둘째 수로, 볼모로 끌려 간 소현세자와 봉림대군 두 왕자의 신변 염려와, 비참한 국치(國恥)를 보고도 나라를 위해 죽지 못한 처지를 한탄하는 우국 충정이 가슴을 뜨겁게 한다. 중장의 '小海'는 원래 우리 나라를 가리키지만, 여기서는 두 왕자를 가리키며, '孤臣'은 자신을 가리킨다.

초장과 중장에서 작가는, 눈보라 치는 겨울에 청나라에 갔다가 돌아온 사신에게, 청나라에서 소현세자가 추위에 얼마나 고생을 하고 계시느냐고 묻는다. 그리고 중장에서는 신하된 처지로서 세자의 이 같은 고생을 보면서도 차마 죽지 못하는 자신을 힐난하면서 비통한 감회를 표현했다.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전 서울 계동(桂洞) 홍숯햇골에서 살 때 일어났다. 휘문 중학교의 교편을 잡고, 독서(讀書), 작시(作詩)도 하고, 고서(古書)도 사들이고, 그 틈으로써 난을 길렀던 것이다. 한가롭고 자유로운 맛은 몹시 바쁜 가운데에서 깨닫는 것이다. 원고를 쓰다가 밤을 새우기도 왕왕[이따금] 하였다. 그러하면 그러할수록 난의 위안이 더 필요하였다. 그 푸름임을 보고 방렬(芳烈)한[질은] 향을 맡을 순간엔, 문득 환희의 별유 세계(別有世界)[신선세계]에 들어 무아무상(無我無想)의 경지(境地)[높은 정신적 경지]에 도달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조선어 학회 사건[시대적 배경, 일제에 부합하지 않는 깨끗한 필자의 성정이 난을 닮음]에 피검[잡힘]되어 홍원·함흥서 2년 만에 돌아와 보니 난은 반수 이상이 죽었다. 그 해 여산(礪山)으로 돌아와서 십여 분을 간신히 살렸다. 갑자기 8·15 광복이 되자 나는 서울로 또 가 있었다. 한겨울을 지내고 와 보니 난은 모두 죽었고, 겨우 뿌리만 성한 것이 두어 개 있었다. 그걸 서울로 가지고 가 또 살려 잎이 돋아나게 하였다. 건란(建蘭)과 춘란(春蘭)[난의 종류]이다. 춘란은 중국 춘란이 진기한 것이다. 꽃이나 보려 하던 것이, 또 6·25 전쟁으로 피난하였다가 그 다음 해 여름에 가 보니, 장독대 옆 풀썩 속에 그 고해(枯骸)만 영성하게 남아 있었다.

그 후 전주로 와 양사재(養士齋)에 있으며, 소공(素空)이 건란 한 분(盆)을 주었고, 고경선(高敬善) 군이 제주서 풍란 한 등걸을 가지고 왔다. 풍란에 웅란(雄蘭)·자란(雌蘭) 두 가지가 있는데, 자란은 이왕 안서(岸曙) 집에서 보던 그것으로서 잎이 넓죽하고, 웅란은 잎이 좁고 빼어났다. 물을 자주 주고, 겨울에는 특히 옹호하여, 자란은 네 잎이 돌고 웅란은 다복다복하게 길었다. 벌써 네 해가 되었다.

십여 일 전 나는 바닷게를 먹고 중독되어 광란(霍亂)[배탈]이 났다. 5, 6일 동안 미음만 마시고 인삼 몇 뿌리 달여 먹고 나왔으되, 그래도 병석에 누워 더 조리[요양] 하였다. 책도 보고, 시도 생각해 보았다. 풍란은 곁에 두었다. 하이얀 꽃이 몇 송이 벌었다. 방렬·청상(淸爽)[맑고 시원함]한 향이 움직이고 있다. 나는 밤에도 자다가 깨었다. 그 향을 맡으며 이렇게 생각을 하여 등불을 켜고 노트에 적었다.

잎이 뺏뺏하고도 오히려 영롱(玲瓏)[광채가 맑고 찬란함]하다.

썩은 향나무 껍질에 옥(玉) 같은 뿌리를 서려 두고, [누추한 바탕 속에서도 고결하게 자라나는 난의 생태를 묘사하고 있다.]

청량(淸涼)[깨끗하고 시원한]한 물기를 머금고 바람으로 사노니.

[초장은 풍란의 잎과 뿌리를, 중장은 풍란의 속성과 꽃을, 종장은 풍란의 성질과 향기를 노래하고 있다.]

꽃은 하이하고도 어린 자연(紫烟) 빛이다. [꽃은 하이얀 빛을 띠면서도 보랏빛 연기의 색을 띠운다.]

높고 조출한 그 품(品)이며 그 향(香)을,

숲 속에 숨겨 있어도 아는 이는 아노니.

[비록 난이 숲 속에 숨겨져 있더라도 높고 조출한 난의 품과 향기로 인해 높은 인격자는 그것을 안다는 뜻으로 난초와의 친화적인 교감을 나눌 수 있다는 작자의 마음 자세를 시사하고 있다.]

완당(阮堂)[추사 김정희의 호] 선생이 한묵연(翰墨緣)[문한, 필묵과의 인연]이 있다듯이 나는 난연(蘭緣)이 있고 난복(蘭福)이 있다.[완당 선생이 좋은 붓과 벼루를 많이 얻었다는 이야기에 빗대어, 자신은 난을 많이 키우고 좋은 난을 기르게 되는 연(緣)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당귀자계수 나무도 있으나, 이 웅란에는 자웅(雌雄)을 결(決)할 수 없다.[웅란이 가장 좋다] 이 웅란은 난 가운데에서도 가장 진귀(珍貴)하다.

‘간죽향수문주인(看竹向須問主人)’이라 하는 시구가 있다. 그도 그럴 듯하다. 나는 어느 집에 가 그 난을 보면,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겠다. 고서(古書)도 없고, 난(蘭)도 없이 되잖은 서화(書畵)나 붙여 놓 방은, 비록 화려 광활하다 하더라도 그건 한 요릿집에 불과하다. 두실와옥(斗室蝸屋)이라도 고서 몇 권, 난 두어 분, 그리고 그 사이 술이나 한 병을 두었다면 삼공(三公)[삼정승, 작자는 고서, 난, 술을 삼공(三公)에 비견하고 있다. 이 세 가지를 갖추고 있으면 삼정승에 비할 바 없이 만족스러운 경지를 느낀다는 표현이다]을 바꾸지 않을 것 아닌가![작고 조출한 거처일망정 고서 몇 권, 난초 두어 분, 그리고 그 사이에 붓과 나눌 술이나 한 병을 두었다면 정승의 높은 벼슬과도

바꾸지 않을 것인가!] 빵은 육체나 기를 따름이지만 난은 정신을 기르지 않는가!

▣ 작품 해설

▣ 이해와 감상

난초를 기르는 담담한 이야기인데 역사의 우여곡절이 그 위로 지나가고 있다. 이병기에게 난은 단순한 식물이 아니다. 난은 가람의 정신세계의 한 부분 자체이며 따라서 난과 같이 고결한 지은이의 인간적 면모를 느끼게 하는 글이다. 가람은 식민지 시대를, 해방 전후 좌우 이데올로기 대립시대를, 전쟁과 그 후의 궁핍을 난과 더불어 겪었고 난을 통해 그 어려움을 뛰어넘으려 했다.

관란으로 고통받을 때 풍란이 하얗게 꽃을 피웠고 밤에 깨어 앉아 그 품과 향을 노래하는 시를 쓰는 모습은, 가람에게 난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를 짐작하게 한다.

수필이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 일반적인 삶의 의미를 전달하는 글이라고 할 때 이 <풍란>은 자신과 난초와의 인연을 차분하게 기술함으로써 풍진 세상을 살아가는 고결한 기품과 정신의 깊이를 드러내주고 있는 좋은 글이다.

<높고 조출한 그 품이며 그 향을/숲 속에 숨겨 있어도 아는 이는 아느니>에 특히 난에 대한 깊은 사랑이 묻어난다.

▣ 이해와 감상

가람 이병기에게 난은 그의 정신 세계이자, 고결한 인간적 면모를 지닌 대상으로 존재한다. 이 글은 난의 일반적인 생태를 나열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난의 아름다움, 특히 방향을 가장 절실하게 느꼈던 순간을 무아 무상의 별유세계(別有世界)라하여 자신의 생활과 난을 연결시키고 있다. 그리고, 난을 돌볼 수 없었던 시기의 역사적 사건들을 기술하여 개인사의 시련과 고통을 난의 시련과 일치시키고 있다. 이러한 개인적 체험을 바탕으로, 작자는 난이 지닌 기품과 방렬(芳烈)한 향(香)을 담담하게 기술한다.

이 글에서 지은이는 고달픈 생활에 여념이 없을 때 난을 통해 정신적 위안을 얻었고, 역사적·개인사적 시련기에 처했을 때는 난도 역시 고해(枯骸)만 남게 되어 자신과 난과의 인연은 고결한 인간의 정신적 세계를 표상한다. 난의 이러한 속성은 비록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있어도 나타나며, 기품과 향기가 동일한 깊이를 지닌 사람은 난초의 품과 향을 안다고 하면서 정신적 삶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글에서 작자는 난초에 대해서 인격적 친화감을 가질 정도로 오랫동안 난을 가까이해 왔음을 고백하고 있다. 난초라는 자연물을 통해 지은이가 드러내려는 관조의 세계는 지극히 고상하고 해맑은 성정의 세계이다. 부질없는 속물 근성을 경계하면서 높고 청아(清雅)한 경지를 난과의 인연에서 구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수필이 인격의 표백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감상해 보고, 법정 스님이 '무소유'라는 글을 읽고 법정이 난에게 가졌던 관점과 가람을 비교하면서 글을 읽으면 보다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한다.

▣ 핵심 정리

- * 형식 : 경수필
- * 성격 : 관조적, 예찬적, 체험적
- * 문체 : 간결체
- * 제재 : 난초
- * 주제 : 난초의 청초함과 고결한 기품 예찬
- * 출전 : <원광문화(圓光文化)>(1954)

처음	(나는 난을 - 열면 바로 죽는다.)	난에 대한 친화감
중간	(이전 서울 계동 - 벌써 네 해가 되었다.)	난을 길러온 과정
끝	(십여 일 전 나는 - 정신을 기르지 않는다)	난에 대한 사랑

* 구성 :

★ 난초를 예찬한 작품들

이병기의 <난초> 이병기의 <풍란>

<난초>에서는 난의 외양과 본성을 예찬하고 있으며, 수필 <풍란>에서는 난 기르기의 어려움과 난이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정신을 기르는 식물임을 말하고 있다. <난초>의 종장에서 '미진도 가까이 않고 우로 받아 살기 때문에, 난이 정신을 기른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난초> 고결, 청초한 기품

본디 그 마음은 깨끗함을 즐겨 하여,
정(淨)한 모래 틈에 뿌리를 서려 두고,

미진(微塵)도 가까이 않고 우로(雨露) 받아 사느니라.<이병기: '난초'>

언젠가는 마다고 뿌리치고 돌아서 가든 너 뒷모습이 시방 여기 와 이리도 청초(淸楚)한 치마폭을 휩싸고 섰는가. 어느 작가가 너를 아끼어 청자분에 옮겨 수유 산방(水踰山房)에서 삼동(三冬)을 같이 날적에, 꽃피면 아내방에 두리란 말을 듣자 잠시 아미를 숙인 채, 차마 말을 못하고 새침한 눈시울에 이슬이 맺히더니.//

그래선지 추운 동짓날 밤엔 맺히고 맺힌 설움을 한꺼번에 울음으로 새우고, 오늘 아침에는 뾰로통한 얼굴이 끝내 병긋한 웃음으로 터지고 만 단정(丹貞)한 꽃잎엔 매섭도록 차가운 결심이 맺혔다.<박기원: '난'>

■ 본문 감상

나는 난(蘭)을 기른지 20여 년 20여 종으로 30여 분(盆)까지 두었다. 동네 사람들은 나의 집을 화초집이라고도 하고, 난초 병원이라고도 하였다. 화초 가운데 난이 가장 기르기 어렵다. 난을 달라는 이는 많으나, 잘 기르는 이는 드물다. 난을 나누어 가면 죽이지 않으면 병을 내는 것이다. 난은 모래와 물로 산다. 거름을 잘못하면 죽든지 병이 나든지 한다. 그리고 별도 아침 저녁 외에는 아니 짝여야 한다. 적어도 10년 이상 길러 보고야 그 미립이 난다 하는 건, 첫째 물 줄 줄을 알고, 둘째 거름 줄 줄을 알고, 셋째 위치를 막아 줄 줄을 알아야 한다. 조금만 촉랭(觸冷)해도 감기가 들고 뿌리가 얼면 바로 죽는다.

이전 서울 계동(桂洞) 홍술햇골에서 살 때 일이었다. 휘문 중학교의 교편을 잡고, 독서(讀書), 작시(作詩)도 하고, 고서(古書)도 사들이고, 그 틈으로써 난을 길렀던 것이다. 한가롭고 자유로운 맛은 몹시 바쁜 가운데에서 깨닫는 것이다. 원고를 쓰다가 밤을 새우기도 왕왕 하였다. 그러하면 그러할수록 난의 위안이 더 필요하였다. 그 푸른 잎을 보고 방렬(芳烈)한 향을 맡을 순간엔, 문득 환희의 별유 세계(別有世界)에 들어 무아무상(無我無想)의 경지(境地)에 도달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조선어 학회 사건에 피검되어 홍원·함흥서 2년 만에 돌아와 보니 난은 반수 이상이 죽었다. 그 해 여산(礪山)으로 돌아와서 십여 분을 간신히 살렸다. 갑자기 8·15 광복이 되자 나는 서울로 또 가 있었다. 한겨울을 지내고 와 보니 난은 모두 죽었고, 겨우 뿌리만 성한 것이 두어 개 있었다. 그걸 서울로 가지고 가 또 살려 잎이 돌아나게 하였다. 건란(建蘭)과 춘란(春蘭)이다. 춘란은 중국 춘란이 진기한 것이다. 꽃이나 보려 하던 것이, 또 6·25 전쟁으로 피난하였다가 그 다음 해 여름에 가 보니, 장독대 옆 풀숲 속에 그 고해(枯骸)만 영성하게 남아 있었다.

그 후 전주로 와 양사재(養士齋)에 있으며, 소공(素空)이 건란 한 분(盆)을 주었고, 고경선(高敬善) 군이 제주서 풍란 한 등걸을 가지고 왔다. 풍란에 웅란(雄蘭)·자란(雌蘭) 두 가지가 있는데, 자란은 이왕 안서(岸曙) 집에서 보던 그것으로서 잎이 넓죽하고, 웅란은 잎이 좁고 빼어났다. 물을 자주 주고, 겨울에는 특히 옹호하여, 자란은 네 잎이 돌고 웅란은 다 복다복하게 길었다. 벌써 네 해가 되었다.

십여 일 전 나는 바닷게를 먹고 중독되어 광란(亂)이 났다. 5, 6일 동안 미음만 마시고 인삼 몇 뿌리 달여 먹고 나았으되, 그래도 병석에 누워 더 조리 하였다. 책도 보고, 시도 생각해 보았다. 풍란은 곁에 두었다. 하이얀 꽃이 몇 송이 벌었다. 방렬·청상(淸爽)한 향이 움직이고 있다. 나는 밤에도 자다가 깨었다. 그 향을 맡으며 이렇게 생각을 하여 등불을 켜고 노트에 적었다.

잎이 뽀뽀하고도 오히려 영롱(玲瓏)하다.

썩은 향나무 껍질에 옥(玉) 같은 뿌리를 서려 두고,

청량(淸涼)한 물기를 머금고 바람으로 사노니.

꽃은 하이하고도 여린 자연(紫烟) 빛이다.

높고 조출한 그 품(品)이며 그 향(香)을,

숲 속에 숨겨 있어도 아는 이는 아노니.

완당(阮堂) 선생이 한묵연(翰墨緣)이 있다듯이 나는 난연(蘭緣)이 있고 난복(蘭福)이 있다. 당귀자·계수 나무도 있으나, 이 웅란에는 백중(伯仲)할 수 없다. 이 웅란은 난 가운데에서도 가장 진귀(珍貴)하다.

'간죽향수문주인(看竹向須問主人)'이라 하는 시구가 있다. 그도 그럴 듯하다. 나는 어느 집에 가 그 난을 보면,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겠다. 고서(古書)도 없고, 난(蘭)도 없이 되잖은 서화(書畫)나 붙여 놓 방은, 비록 화려 광활하다 하더라도 그건 한 요릿집에 불과하다. 두실와옥(斗室蝸屋)이라도 고서 몇 권, 난 두어 분, 그리고 그 사이 술이나 한 병을 두었다면 삼공(三公)을 바꾸지 않을 것 아닌가! 뺨은 육체나 기를 따름이지만 난은 정신을 기르지 않는가!

■ 어휘와 구절풀이

- * 매립 : 경험을 통해 얻은 묘한 이치. 요령
- * 촉랭(觸冷) : 찬 기운이 몸에 닿음
- * 왕왕(往往) : 이따금. 때때로
- * 방렬(芳烈) : 향기가 몹시 짙음
- * 고해(枯骸) : 말라 죽은 형체
- * 곽란(亂) : 음식이 체하여 토하고 설사하는 급성 위장병
- * 청상 : 맑고 시원함.
- * 자연(紫燕) : 보랏빛 연기
- * 영롱(玲瓏) : 광채가 찬란함. 금옥이 울리는 소리가 맑고 산뜻함
- * 완당 : 조선 말의 서예가이자 금석학자인 김정희의 호.
- * 한묵연 : 문한·필묵과의 인연
- * 간죽 향수 문주인(看竹向須問主人) : 대나무가 자라나는 것을 보고 모름지기 그 주인을 묻는다. 즉 주인의 지조를 알 수 있다는 의미임
- * 요릿집 : 허장 성세(虛張聲勢)뿐이고 속물 근성을 가진 사람의 집을 비유한 말
- * 두실(斗室)와옥(蝸屋) : 매우 작은 집.
- * 삼공(三公) : 영의정과 좌의정, 우의정을 이룸
- * 거름을 잘못하면 - 아니 쪼여야 한다 : 난 기르기의 어려움을 나타낸 대목
- * 적어도 10년 - 미립이 난다. : 난초는 적어도 10년 이상 길러 봐야 경험에서 얻는 묘한 이치와 요령을 깨닫게 된다.
- * 독서(讀書), - 길렀던 것이다. : 책도 읽고, 시도 짓고, 옛날 서적도 사 들이고, 그러는 틈틈이 난초를 길렀다는 의미. 작자의 고결한 선비 분위기를 알게 해주는 대목이다.
- * 방렬·청상(淸爽)한 향이 움직이고 있다 : 아름답고 짙은, 시원한 향기가 떠돌아다닌다.
- * 잎이 뺨뺨하고도 - 바람으로 사노니 : 초장은 풍란의 잎을, 중장은 풍란의 속성을, 종장은 풍란의 성질을 노래하고 있다.
- * 썩은 향나무 껍질에 옥같은 뿌리를 서려 두고 : 누추한 바탕 속에서도 고결하게 자라나는 난의 생태를 묘사하고 있다.
- * 꽃은 하이하고도 여린 자연(紫烟) 빛이다 : 꽃은 하이얀 빛을 띠면서도 보랏빛 연기의 색을 띠운다.
- * 잎이 - 바람으로 사노니. : 초장은 풍란의 잎과 뿌리를, 중장은 풍란의 속성과 꽃을, 종장은 풍란의 성질과 향기를 노래하고 있다.
- * 숲 속에 숨겨 - 아노니. : 비록 난이 숲 속에 숨겨져 있더라도 높고 조출한 난의 품과 향기로 인해 높은 인격자는 그것을 안다는 뜻으로 난초와의 친화적인 교감을 나눌 수 있다는 작자의 마음 자세를 시사하고 있다.
- * 완당 선생이 - 난복이 있다 : 완당 선생이 좋은 붓과 벼루를 많이 얻었다는 이야기에 빗대어, 자신은 난을 많이 키우고 좋은 난을 기르게 되는 연(緣)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 간죽향수문주인 : 대나무 향한 것을 보고 모름지기 그 대나무의 주인을 묻는다.

* 두실와옥이라도 - 바꾸지 않을 것 아닌가! : 작고 조촐한 거처일망정 고서 몇 권, 난초 두어 분, 그리고 그 사이에 벗과 나눌 술이나 한 병을 두었다면 정승의 높은 벼슬과도 바꾸지 않을 것인가!

* 삼공을 바꾸지 않을 것 : 작자는 고서, 난, 술을 삼공(三公)에 비견하고 있다. 이 세 가지를 갖추고 있으면 삼정승에 비할 바 없이 만족스러운 경지를 느낀다는 표현이다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본문해설

[앞부분의 줄거리]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온 나는 옛것이 사라지고 소비와 향락의 장소로 변해버린 모습에 안타까워한다. 그러던 중, 어린 시절의 추억이 서려있는 도깨비불을 떠올린다.

조무래기들은 도깨비불만 보면 네 그르니 내 옳으니 하며 짜그락거리기 일쑤였고[도깨비불의 정체에 대한 이견], 그러면 나이 좀 있는 사람이 얼른 쉬쉬하면서, 도깨비가 들겠다고 나무라 주게 마련이었던 것이다. 도깨비가 들으면 무엇이 어떻다고 불똥 끄듯 서두르며 말리려 들었을까. 그것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다. 알면서도 짐짓[일부러] 모르는 시늉을 해 보이려 했지만, 그네들도 어려서부터 가르쳐 준 이가 없어 이렇다 하게 내놓지 못하는 눈치가 역연하던 것이다.[신비롭고 경외로운 도깨비에 대한 인식] 그것은 바지랑대에 등을 매달고 명석에 둘러앉아 삼을 삼거나 태모시를 뚫던* 늘그막의 아낙네들도 마찬가지로 가늠[도깨비가 들으면 어떻게 된다는 생각]을 못 해, 도깨비불에 손가락질 하면 도깨비가 쫓아온다는 것밖에 다른 말은 할 줄 모르고 있었다. 그네들은 낮춘말로, 도깨비들이 벌거벗고 산다더라고 귀뜸해 주었으며, 그것은 그것들이 여름내 왕대뽕 자드락이나 갯가에 나와 불놀이를 하다가도, 기러기 그림자에 눈두렁 콩노릇*이 지고 오려논에 자마구*가 일며부터는 아무도 모르게 간곳없이 사라지던 것을 보아 믿을 만한 말이라고 우길 따름이었다.[추워지면 사라진 도깨비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벌거벗고 산다고 생각함]

된내기* 빛에 두엄이 허영게 흰 위로 난초 치던 붓끝 같은 마늘 싹이 솟고, 보리밭 머리에 장끼가 내리기 시작하여 이듬해 구렁찰 논배미에서 뚝- 뚝- 뚝부기 짝 찾는 소리로 개구리 눈두렁 넘기 바쁘던 여름까지는 도깨비들이 감뭇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아직 학령기에도 이르지 않았던 나는 정말 알지 못했다. 차지던 바람이 메져지고[수분이 적어지고] 개펄에 성에 영기듯 허영게 소금기가 끼는 철이 되면, 음습한 바람이 맴돌아야 난동하던 인화(燐火)[도깨비불]가 전혀 일지 않던 것을.

어른들이 눈을 꿈적이며 먹탕곳 개펄개를 그만 보라고 타이른 밤이면 담 밑에 반딧불만 자주 날아도, 촛불 붙이려 혼자 사당(祠堂) 문을 열 때처럼 뒷덜미가 선뜩하고 떨떠름하여 담 밑에도 가지 못할 만큼이나 그 도깨비불은 여간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다. 그러므로 그런 날은 아무리 무더워도 모기가 떠매어 간다는 핑계로 마실 마당에서 일찍 물러나곤 하였다.[어린 마음에 도깨비불이 나오지 않는 계절에도 도깨비불을 무서워 함.]

(중략)

복산이가 자리를 만들 동안 나는 변소를 찾아 나섰다. 농가라면 흔히 그렇듯 그곳은 저만치 밭마당 구석에 따로 나와 있었다. 나는 마당을 가로질러 가면서 무심결에 개펄 쪽을 둘러보다가 소스라쳐 놀라며 그 자리에 굳어 버리고 말았다. 아- 나는 참으로 오랜만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도깨비불- 그렇다. 왕대뽕 밑 먹탕곳 개펄에 푸른빛을 내뿜는 도깨비불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던 것이다.

하나 둘 서이 너이…… 나는 어느새 도깨비불들을 손가락으로 헤아려 나가고 있었다. 변치 않은 것이 한 가지 더 있다는 반가움, 반가움과 즐거움[옛것에 대한 그리움]에 들떠 그것들을 차곡차곡 빠뜨리지 않고 세어 나갔다.

“마흔다섯…….”

하고 중얼거리며 나는 손가락을 떨었다. 내일 새벽엔 안개도 볼 수 있으리라고 믿어, 가슴의 설렘에 손가락마저 떨린 거였다. 모를 일이었다. 옛날로 돌아가 혹시 길 잃은 여우가 울부짖게 될지도.

“계서 뭇 허나?”

복산이가 같은 용무로 나오면서 허텅지거리[일정한 상대 없이 하는 말]를 했다.

“아, 도깨비불…… 생전 못 볼 줄 알았다가 보니 좋은데. 멋있는걸.”

나는 건너편을 손가락질하면서 들뜬 소리로 말했다.

“무엇이?”

“저 도깨비불…….”

“무엇 불?”

“옛날에 보던 도깨비불, 그거 아녀?”

“무슨 불? 허어 참, 그렇게 장가를 가라구.”[철 줌 들라는 뜻]

“…….”

“도깨비불 좋아허네…… 저게? 술고래라서 안주두 고루 먹어 헛소리는 안 험 중 알았더니…….”

“그럼 모르겠는데…….”

“뭘 몰러? 저건 서울서 온 낚시꾼들의 간드레[카바이드, 화확 등불] 불이여. 명색 문화인이라면서 밤낚시 한 번두 못 해 봤구먼.”

나는 무엇에 반혀 하늘 높이 떠올랐다가 거꾸로 떨어진 기분이었다.[기대에 대한 실망] 오랜 꿈결에서 순간적으로 깨어난 것처럼 허망하고 민망했다.

“이리 죽 늘어앉은 디는 물길이구, 저쪽 저리 둘러앉은 디가 우수지[인공 저수지]여. 갯물이 들어오면 수문을 막았다가 쓸물 때 열어 물을 빼는디 민물고기 갯물 고기가 섞이구 해서 씨알두 게가 굶구, 물길에서는 잔챙이래두 붕어만 문다네. 남포, 청라 담에는 여기를 친다는 거.”

그제서야 나는 늘어앉은 불빛[인정이 없는 도시적 성격의 불]들이 제자리에 죽어 있음을 비로소 깨달았다. 무등 타기와 솜바꼭질을 하던 살아 있는 불이 아니란 것만 진작 알았어도 마흔다섯까지 수효를 헤아리지는 않았을 터였다. 나는 무슨 재산불이를 어둠 속에 잃고 찾지 못한 투로 무거워진 가슴[옛것이 상실된 것을 확인하는 안타까움]을 안고 복산이 따라 방으로 들어갔다.

- 이문구, 「관촌수필」-

- * 툇던 : 끝을 가늘고 부드럽게 하려고 톱으로 훑던.
- * 콩노긔 : 콩의 꽃.
- * 자마구 : 곡식의 꽃가루.
- * 된내기 : 된서리.
- * 감뭇하기도 : 보이던 것이 전연 보이지 않아 찾을 곳이 감감하기도.

▣ 작품해설

▣ 이해와 감상

◆ <관촌수필(冠村隨筆)>은 연작소설이다. 『일락서산(日落西山)』, 『화무십일(花無十日)』, 『행운유수(行雲流水)』, 『녹수청산(綠水靑山)』, 『공산토월(空山吐月)』, 『관산주정(關山蜀丁)』, 『여요주서(與謠註序)』, 『월곡후야(月谷後夜)』의 여덟 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랜 타관 생활 끝에 고향에 들러 옛 터전을 둘러보며 떠오르는 감상을 위주로 쓰고 있다. 중심이 되는 내용은, 6.25로 인해 집안이 풍비박산되고 타관 생활을 떠도는 주인공이 그 때를 회상하면서 불행을 초래한 시대적 의미를 형상화한 것이다. 제목에 '수필'이라는 말이 나오듯이, 이 작품이 하나의 회고담의 형식을 취하면서 지난날을 회고하는 에피소드들을 나열하는 가운데 소설적 구조를 꺾고 있다.

◆ 주인공 '나'는 조상의 성묘를 위해 참으로 오랜만에 고향을 찾는다. 과거의 명문으로서의 명예와 권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모조리 사라진 고향을 확인한다. 그 과거의 한복판에 자리한 어른은 '할아버지'이다. 할아버지는 명문 가문으로서의 명예심이 남달랐고, 품격을 지키는 삶을 살았으며, 의기와 선비로서의 긍지가 대단했던 분이다. 그런 할아버지로부터 주인공은 보수적 정신, 선민의식을 교훈으로 받았으며, 그것에 대해 부담스럽게 여기거나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면에서 작가정신은 다분히 복고주의적이라 해도 좋다.

◆ 이 소설의 미학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문체이다. 고풍스런 말투, 한학적 소양이 없이는 알기 어려운 어구, 명문의 후예로서만 알 수 있는 세간과 풍습에 관련된 말들이 많아 독특한 매력을 풍긴다. 제재가 그렇더라 해도 이렇게 여실하게 표현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렇게 능란하게 구사하는 것은, 작가 스스로가 그런 생활에 젖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 '나'가 고향 방문을 통해 받는 정서는 아픔이다. 실향민이란 말로 표현되는 정체성의 상실에서 오는 아픔이다. 그것은 물론 시대적 아픔(전쟁)의 소산이다. 전쟁은 이 긍지 높은 가족사를 단절시켰고, 그 상흔은 실향민 의식으로 남아 그를 여전히 괴롭힌다. 그가 아픔을 지속하는 한 전쟁의 참혹함은 계속된다. 작가는 이 자전적 소설에서 명문 후예로서의 긍지와 권위를 박탈당한 것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아픔에 젖어 있다. 따라서 그의 소설이 복고적 정신으로 그려진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 이 소설은 논란의 소지도 많지만, 급격한 시대 변화로 과거의 모든 것이 거의 사라졌지만, 우리의 내면에 아직도 드리우고 있는 전통적 생활의 품격 높은 일면은 하나의 가치로 자리하고 있다. 명문의 가풍은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우리가 회복해야 할 드높은 정신적 기풍의 높이를 지녔던 것도 사실이다.

◆ 고풍스럽고 현란한 문체, 명문의 후예 의식

이 소설의 미학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문체라고 할 수 있다. 고풍스런 말투, 한학적 소양이 없이는 알기 어려운 어구, 명문의 후예로서만 알 수 있는 세간과 풍습에 관련된 말들이 많아 독특한 매력을 풍긴다. 제재가 그렇더라 해도 이토록 여실하게 표현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렇게 능란하게 구사하는 것은, 작가 스스로가 그런 생활에 젖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할아버지의 자(字)는 긍우(肯宇), 호를 능하(陵河)라 했으며, 병오(丙午)생으로 상주 목사(尙州牧使)의 아들이요, 강릉 부사(江陵大都護府使)의 손자로 태어났었다. 그러나 과거(科擧)는 스스로 포기했다고 했다. 그 즈음엔 이미 선조들이 모두 벼슬살이를 반납하고 낙향해 버린 뒤였고, 공부를 중단해야 할 만큼 의기(意氣)와 가산이 침체돼 그럭저럭 실기(失期)해 버리고 만 것이라 했다. 때문에 벼슬자리에 못 오른 건 시국 탓으로 돌렸고, 자신의 불운(不運)함을 한탄했으며, 그러한 한(恨)이랄까 전조(前朝)에의 향수랄까, 하여간 그런 감상이 지나쳐, 종중에서 한창 명성을 떨쳤던 두 향렬 손위인 월남(李商在)의 개명(開明)마저 늘 못 마땅하게 여길 지경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보면 할아버지의 처신은 월남(月南)의 처세와 정반대였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이 소설을 읽어 가는 가운데 고풍한 멋을 한껏 느낄 수 있는 것도 이 소설이 노리는 미학의 일면이다. 물론 이 문체에는 위에서 말한 전통적 관념의 세계가 고스란히 배어 있다. 나는 가문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었지만 그것은 좌절되었고, 그것 때문에 정체성을 잃고 아픈 삶을 살아왔던 것이다. 나가 그런 의식에 젖어 있는 한 영원히 실향민으로 남게 될 비극을 예감할 수 있다.

◆ 지속되는 전쟁의 아픔

실향민. 나는 어느덧 실향민이 돼 버리고 말았다는 느낌을 덜어 버릴 수가 없었다. 고향이랬자 무덤(墓)들밖에 남겨둔 게 없던 터라 어차피 무심하게 여겨 온 셈이긴 했지만, 막상 퇴락해 버린 고향을 대하니, 나 자신이 그토록 처연하고 험험하며 외로울 수가 없던 것이다.

나가 고향에서 받는 정서는 아픔, 그것이다. 그것은 실향민이란 말로 표현되는 정체성의 상실이다. 그것은 물론 시대적 아픔의 소산이다. 이 작품의 배경이 되고 있는 한국 전쟁은 이 주제와 맞물려 있다. 전쟁은 이 긍지 높은 가족사를 단절시켰고, 그 상흔은 실향민 의식으로 남아 그를 여전히 괴롭힌다. 그가 아픔을 지속하는 한 전쟁의 참혹함은 계속된다. <일락서산> 한 편에 국한하면 이 아픔이 그렇게 극명하게 그려져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 연작들의 전편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에피소드의 서사적 맥락에서 보면 전쟁의 상처는 중심을 이룬다.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한 또 다른 소설적 성취라고 할 만한 이 작품은 전쟁의 아픔을 가족사의 몰락으로 보여 준다. 그의 가족사가 자랑할 만하고, 역사적 전통성을 가졌을 때, 이 전쟁의 부정적인 면은 더욱 부각된다. 그것은 반역사적 행위였기 때문이다. 작가는 이 자전적 소설에서 명문 후예로서의 긍지와 권위를 박탈당한 것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아픔에 젖어 있다. 따라서 그의 소설이 복고적 정신으로 그려진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앞에서, 이 소설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지만, 급격한 시대 변화로 과거의 모든 것이 거의 사라졌지만, 우리의 내면에 아직도 드리우고 있는 전통적 생활의 품격 높은 일면은 하나의 가치로 자리하고 있다. 명문의 가풍은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우리가 회복해야 할 드높은 정신적 기풍의 높이를 지녔던 것도 사실이다.

▣ 핵심정리

■ 배경 : 6.25직후 충청도 관촌(갈머리) 마을

■ 시점 : 1인칭 주인공

■ 성격 : 자전적, 회고적, 순수 소설

■ 주제

산업화 과정 속에서 급속히 사라져 간 전통에 대한 비감, 아픔
따뜻한 인간애의 추구.

따뜻한 공동체적 삶의 파괴, 농촌의 어려움

■ 인물

나 - 고향을 그리워하는 인물 (서술자)

옹점이, 대복이 - 토속적인 인물

석공 신씨 - [공산토월]의 주인공. 6 25 때의 부역 사실로 5년간 복역 후, 마을 일에 앞장서 성실하고 억척스럽게 살다 요절한 비극적 인물

■ 의의 : 농촌 문제를 비교적 사실적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여유있고 걸쭉한 입담과 해학으로 접근한 농민소설의 전범

■ 관촌수필 구성

<'관촌수필' 전체 내용>(전8편의 연작소설 형태)

1편. 일락서산(日落西山) : 나의 인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 할아버지와 옛날 어린 시절 고향 풍경을 향수조로 엮음

2편. 화무십일(花無十日) : 6 25전쟁을 통한 윤영감 일가의 수난사, 비극적 관계를 회상

3편. 행운유수(行雲流水) : 성장기에 함께 했던 옹점이의 결혼 생활, 인생유전을 가슴 아프게 그림

4편. 녹수청산(綠水靑山) : 대복이와 그 가족에 얽힌 이웃 이야기 그리고 그 삶이 퇴색되어 가는 과정을 그림

5편. 공산토월(空山吐月) : 왕조 체제의 억압적 구조 속에 신음하면서도 서로 돕던 백성의 전형을 석공(石工)을 통해

보여 줌

6편. 관산추정(關山菊丁) : 포근하던 한내(大川)가 도시에서 밀려들어온 소비문화와 퇴폐의 하수구로 전락한 실상을 그림

7편. 여요주서(與謠註序) : 아버지의 병구완을 위해 잡은 꿩 때문에 자연보호를 위배했다는 이유로 공권력의 횡포를 당함

8편. 월곡후야(月谷後夜) : 벽촌에서 소녀를 겁탈한 사건을 둘러싸고 동네 청년들이 범인에게 사적인 제재를 가한다는 이야기

■ 이문구 관촌수필

■ 이해와 감상

이문구의 소설은 우리 사회의 근대화 과정 속에서, 점차 상실되어 가는 전통적 삶의 숨결과 현장을 사실적으로 묘파하고 있다. 그가 다루고 있는 세계는, 근대화의 물결에 후광을 얻는 도시적 삶이 아니라 근대화의 음지에 해당되는 도시 변두리나 농촌의 변화된 현실이다.

그리고 그의 소설들은 단순히 그가 다루는 토속적인 세계의 전통적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대화 과정 속에서 겪는 변화의 실상과 양상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따라서, 고향을 잃은 사람들을 다루면서도 고향에 대한 향수와 추억을 낭만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러한 변화의 과정 속에서 겪는 갈등과 불화의 정체를 밝히는 데에 작가의 시선이 응집되어 있다.

이 관촌수필에서도 이러한 이문구의 소설적 특징이 잘 드러나 있다.

고향을 무대로 하면서도 고향의 복고적 취향이나 전통적 인간의 삶을 다루지 않고 그 이면에 놓인 변화의 구체적 정체를 밝히면서 변화 속에서 겪는 인간적 갈등과 변모된 현실을 비판적으로 제시하려는 점이 그것이다.

■ 핵심 정리

* 배경 : 60년대, 산업 근대화의 미명 아래서 점차 무너져 가는 전통적 농촌.

* 시점 : 1인칭 주인공 시점

* 주제 : '근대화'로 인해 붕괴되어 가는 농촌 현실을 통한 따뜻한 인간애의 추구.

* 구성

◇ 1-5편:작가의 고향을 배경으로 하는 유년 시절의 추억을 그림.

①일락서산(日落西山)

②화무십일(花無十日)

③행운유수(行雲流水)

④녹수청산(綠水靑山)

⑤공산토월(空山吐月)

6편:어린 시절의 고향 친구를 만난 이야기.

⑥관산추정(冠山秋情)

7-8편:커서 고향을 돌아보며 체험한 내용.

⑦여요주서(麗謠註書)

⑧월곡후야(月谷後夜)

* 출전 : [현대문학](1972~1977)

■ 줄거리

▶ 제1편 일락서산(日落西山) : 연작 소설 8편 중 첫 번째 발표작.

억압받고 무시당하면서도 끈질기게 삶을 영위해 나가는 인물들을 그렸던 종래의 작품 성향을 벗어난 작품으로, 옛 모습을 찾을 길 없는 고향을 찾아가, 전형적인 조선인이었던 조부와 과격한 좌익 사상으로 희생된 아버지 그리고 그들의 그늘에서 외로운 소년 시절을 보냈으며 이제는 오랜 타향살이로 인해 고향을 영영 잃어버린 나에 이르는 3대를 담담하게 회상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우리는 오늘의 한국 지식인의 성격 단면을 파악하게 된다.

▶제2편 화무십일(花無十日) : 연작 소설 8편 중 두 번째 작품.

피난민 일가에 대한 나의 어머니의 따뜻한 인간애를 다룸으로써, 우리 사회에 뿌리 박고 있는 전통적 삶의 인간미를 감동적으로 느끼게 한다.

▶제5편 공산토월(空山吐月) : 연작 소설 8편 중 다섯 번째로 발표된 작품.

관춘수필 연작 가운데 가장 감동 깊은 작품으로 평가되며, 성실하게 살다 간 어느 청년(석공 신씨)의 이야기이다. 웅점이나 대복이 등 종래의 관춘수필에 등장했던 토속적인 인간상보다 약간 세련된 인물로서 그의 이름은 신씨(申氏)이다. 직업은 석공(石工)인데, 그는 선산(先山)의 유택을 치장해 주는 등 나의 집안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서 나서는 잊을 수 없는 인물이다. 신씨는 6·25 때 부역을 한 일로 인해 5년간 형무소 살이를 했고, 출옥 후에는 마을의 온갖 굵은 일을 도맡아 하면서 억척스럽고 성실하게 살았으나 37세의 한창 나이로 요절(夭折)함으로써 나의 뇌리에 극적인 인상을 남긴다.

이러한 비극 속에는 인간에 대한 연민과 사랑이 있으며, 불우한 세대에 불우하게 끝나 버린 삶의 통분이 있다.

▶제6편 관산추정(冠山秋情) : 연작 소설 8편 중 여섯 번째로 발표된 작품.

전통적인 마을 안을 흐르는 '한내(大川)'가 도시 소비 문명으로 인해 점차 파괴되어 퇴폐적 하수구로 변하게 된 실상을 그리고 있다.

▶제7편 여요주서(麗謠註書) : 연작 소설 8편 중 일곱 번째로 발표된 작품.

중학 동창인 친구가 아버지의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핑을 잡아 팔려다가 발각되어 공권력에 시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작품 분석의 핵심 : 작품의 사건 자체는 이해가 어렵지 않다. '도깨비불'을 중심으로 과거 어린 시절의 생각과 어른이 되어 느끼는 심정을 주로 묘사하고 있다. 어렸을 때에는 '도깨비불'이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어른이 되어서는 그것이 '반가움, 즐거움'으로 느껴진다. 그러나 이내 그것이 도깨비불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는 무거운 심정이 된다. 이를 통해 인물의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것이다.